

시로 읽는 성보순례
팔상전, 달빛
국보 제55호 법주사팔상전
조선시대 ▶2면

현대불교

탐욕과 같은 불길은 없고
노여움과 같은 죄는 없으며
마음의 고요보다 더한 안락은 없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6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 888 호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평생교육시대, 불교계 '무감각'

종교 평생교육원 설립법 추진… 기독교 압도적 우세 예상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평생교육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있고, 종교단체까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불교계도 변화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단체를 설립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종교단체는 산하 학교나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을 주체로 해 우회적으로 평생교육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종교단체에 교육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높아졌다.

이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남양주 갑)이 7월 12일 주최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재선 변호사는 "종교단체 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마련 및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안을 구성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면서 독립적 위원회를 통해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성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상 종교단체에도 평생교육시장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 의원 측은 평생교육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이 평생교육시장이 종교계에 개방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개신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사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의 '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강좌. 급증하고 있는 평생교육 수요에 맞춰 불교계도 특화된 교육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 교회 우회 운영해
사찰 평생교육원은 2곳뿐

실제 광림, 만나, 새문안, 소망, 여의도순복음, 온누리, 사랑의 교회 등 대형 교회들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생교육 관련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랑의 교회의 '포에버 평생교육원'은 영어, 일어, 웰빙체조, 스포츠댄스, 한글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교회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면 1천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평생교육 정책과 개신교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상당 수준 이뤄진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당장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불교계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시설, 운영 전문가 등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동국대와 위덕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 불교종립대학 정도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 사찰 평생교육원은 현재 조계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유일하다.

조계사 '마인드케어'가 모델
특화 교육, 전문가 양성 시급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총괄기획이사는 "평생교육원은 불자들의 재교육을 넘어 불교의 사회적 회향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불교계도 시대적 요구인 '평생교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평생교육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불교계 평생교육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간화선, 문화재, 자연환경 등 불교가 선점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사가 6월 개원한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불교계 평생교육원의 롤모델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도시마을공동체 만들기 특강만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마인드 케어 코스, 교육지도사 코스, 스페셜 강좌 등으로 강좌를 넓힐 계획이다. 마인드 케어 코스는 청소년 마음건강캠프, CEO 자유행복 캠프, 가족 행복 캠프 등 계층과 주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교육지도사 코스는 청소년 심리상담사, 스트레스 관리사, 창의활동지도사 등 교육 · 케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또, 인문학 교실, 바리스타 과정, 호스피스 강좌 등 사회적 교육들도 특별 강좌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기획이사는 "최근 평생교육도 현대인의 마음 치유, 스트레스 줄이기 등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불교에는 '선'이라고 하는 최고의 마음 수행법이 있다. 사찰 평생교육원은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공 교육기관인만큼 종교색을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 평생교육원은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앞서 가야 한다"며 "'멘탈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기존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여름밤의 찬불가 좋은벗풍경소리(회장 덕신)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2012 붓다콘서트 '7월 한 여름밤 노래 한 바탕'을 개최했다. 찬불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콘서트는 12월까지 매월 무료로 개최된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콘서트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비롯해 원적정사 니르바나 합창단, 조계종 종무원 통기타 동아리 칼립소, 성악가 김재일, LMB싱어즈 등이 출연해 20여 곡의 찬불가를 선보였다. 원적정사 니르바나 합창단이 '사랑하는 이여'를 합창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원로회의 종헌 인준안 '부결'

40차 회의서… 선거법 공포 사실상 무산

조계종 쇄신 종헌 개정 인준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의장 종산) 7월 20일 제40차 회의를 열고 쇄신 종헌 인준에 대해 이 같이 결의했다. 1994년 개혁 이후 4차례 종헌 개정이 있었지만, 원로회의에서 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종단 주요소임에 대한 자격을 법계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원로회의는 이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종헌의 인준이 부결됨에 따라 쇄신 입법으로 불렸던 선거법 공포는 사실상 무산됐다. 선거법에서 종회의원 출마 자격을 법납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해 법계부문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로회의 부결에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쟁점 사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부결됐다. 개혁입법 중 하나인 선거법이 공포가 어려워졌다"며 "9월 중앙종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의 결기구로 종정 추대를 비롯해 종헌 개정안 인준, 총무원장 인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신중일 기자

템플스테이, 학교폭력예방 근절한다

구미 도리사, 교과부 우수 사례 공모 당선

템플스테이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사례로 첫 공식 인정됐다.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 정책제안 공모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우수사례로는 학교 30개교, 일반단체 10곳이 선정됐으며, 종교단체 유일하게 구미 도리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도리사는 교과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학교폭력 우수사례집 책자에도 수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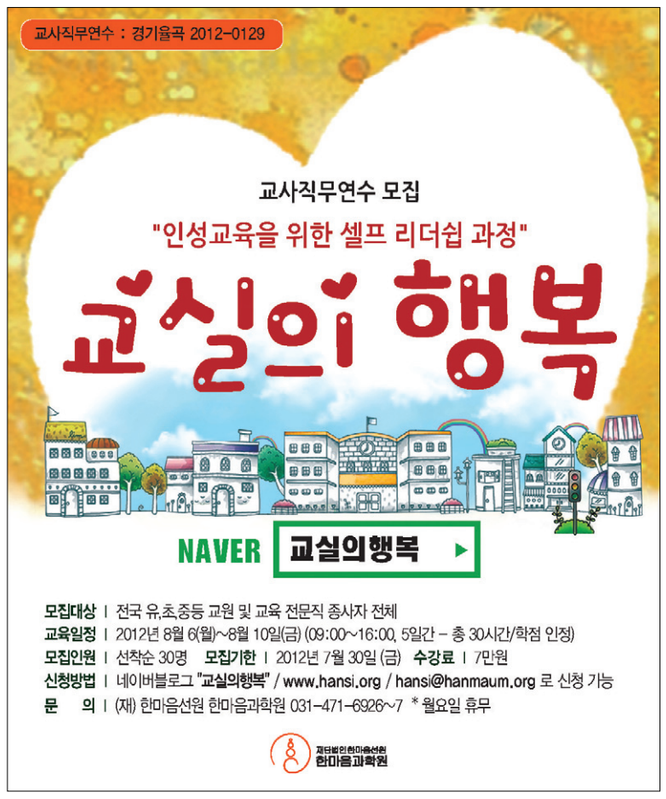
도리사의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가 모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처음 시작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매월 첫째, 셋째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8회 차까지 총 16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프로그램 역시 심리치료부터 명상, 108배 등 불교 수행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고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참가자들의 변화를 보고 꾸준히 바꾼 것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은 당장 호응을 불러왔다.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현재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연계하는 정기적 프로그램으로 정착됐다. 인근 지역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템플스테이에 참가시키고 있다.

도리사 템플스테이 연수국 포교국장 인법스님은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아'라는 외부 낙인은 이런 긍정적 변화의지를 막고 있었다"며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긍정적인 참 자아를 찾아내고 인내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898호 INDEX

종단 2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세미나

종합 3
대불련 50주년 진단
10 · 27 법난 피해자회 기자회견

시방세계 5
경봉선사 열반 30주기 다례재



신행 6
대학생 해외봉사 인기

캠페인 11
절마당이 주차장인가?

새연재 13
유정길의 생태사회와 불교

부처님 10대 제자에게 배운다 14
② 신통제일 목건련 – 〈상〉귀의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5호 법주사팔상전



팔상전, 달빛

이 길 원

추녀에 부딪친 달빛이 주루룩 미끄러진다
달빛도 한기를 먹었다
수천 년 전부터 갈라져 싸우는 좁은 땅
화두가 통일인 게 서러워
꺼억꺼억 울고 있다

인도로 건너 가 경전 하나 달랑 들고
나귀 타고 돌아온 의상화상도
삼국통일 기원하며 법주사 지었다니
부처님도 통일이 소원이다

아름다운 땅. 어찌 그리 탐내는지
쳐들어온 왜구 물리치던 벽암대사
법주사 소실되지 소나무 베어
석가모니 생애 8단계로 나누어 그리며
진리가 하나이듯 속이 하나로 뻥 뚫린 건물에
날개 편 공작처럼 지붕만 5개 얹으니
팔상전

주문인지 기도인지 웅얼거리는 할머니
소망 가득 머리에 이고 돌고 도는데
지구도 돌고
달빛도 돌고
석가모니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길원 시인은… 충북 청주 출생. 1990년 〈시문학〉으로 등단. 시집 〈어느 아침 나무가 되어〉, 〈헤이리 시편〉 등

"한국불교 성패, 사회적 실천이 열쇠"

이도흠 교수, 통합종단 50주년 2차 세미나서 강조

"이제 조계종은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불교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매진해야 한다."

통합종단 50년을 맞은 조계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2차 세미나'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조계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홍사성 불교평론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종단의 사회적 상황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50년의 세월동안 세력은 이미 기독교에 밀려났고, 대중들은 불교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이 교수는 "일부 외부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승단의 범계 행위, 주도적 담론 창출 실패, 교육·포교의 전근대성, 사회적 실천 부족 등 내부적 요인이 더 큰 문제"라며 "여러 요인 가운데 기독교가 불교를 압도하게 된 원인은 사회적 실천을 등안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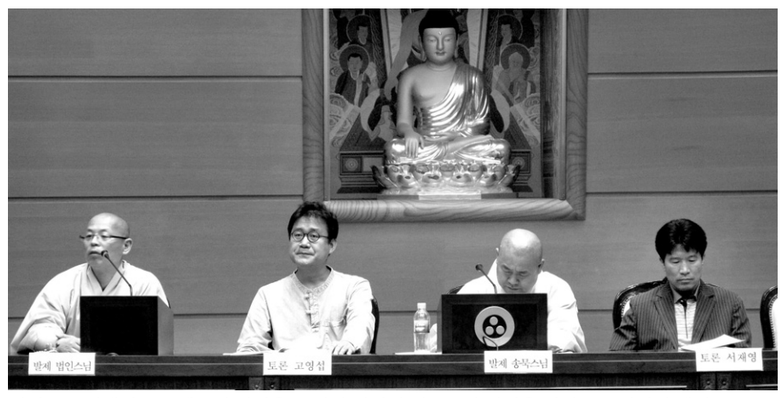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불교가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과제로 환경과 생명, 갈등의 해결, 복지와 상생을 꼽았다. 세 가지 분야에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불살생의 생명관, 연기적 생태론을 통해 환경과 생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으며, 화쟁·연기론에 입각해 갈등을 불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와 상생에 대해서는 공감의 연대를 통한 불교적 삶을 강조했다.

중생의 아픔, 연기론적 공감
전담기구 설립 등 추진 제언
"승가교육, 대학 같다" 비판
'통합종단 50년' 이의 제기도

이 교수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와 중생,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둘이 아닌 하나고, 중생이 곧 부처"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를 맺고 실천하는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밝혔다.

사회적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실천에 대한 중의를 모아 이를 전담하고 추진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을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역기능과 모순을 극복한 대안의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의 대안이 불교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계종이 걸어온 5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승가교육, 포교에 대한 현황과 전망, 비판들도 쏟아졌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환경이 통일되지 못했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2013년 말부터 기본교육기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 스님은 승가교육 개선 방향으로 △기본교육 교과과정 전면 개편 △기본교재 한글화 및 교수법 현대화 △인문학적 소양과 창조적 응용능력 배양 등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현재 포교원 종책을 브리핑했다. 일련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승가교육은 일반교육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승가교육은 세간의 대학 커리큘럼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종단 50주년의 개념에 대한 비판도 제시됐다. 토론자인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단 밖에서는 한국불교 전체의 발전을 논하던 사람도 종단으로 들어오면 종단에 국한돼 사고하기 시작한다"며 "그럼에도 굳이 통합종단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통합종단은 비구와 대처가 하나로 모여 종단을 이뤘다는 뜻이지만, 이미 70년대 통합종단의 깨졌다. '통합종단 50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통합종단 50주년 맞아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50주년이라는 용어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근현대적 종단 출범 50주년이 맞는 용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민의 죽비'를 항상 되새기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자승 스님 예방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7월 18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문 고문은 먼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진산식에서 뵙고 처음 뵙는다"며 합장 했으며, 자승 스님은 "대선 출마 선언을 잘 봤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영결식 당시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고문은 최근 사찰들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문 고문은 "대선 출마 선언 후 대흥사에 가니 너무 환대해줘 감사했다. 늘 불교계에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며 "어제에는 전주 참좋은우리절에 방문했는데 '국민죽비'라고 쓰여진 선물을 주셨다. 항상 국민의 경책들을 옆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 7월 18일 자승 스님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자승 스님과의 예방을 마친 문 고문은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찾아 환담을 이어갔다. 이날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나라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선전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선해 스님 주지 추천 규탄

해인사정상화추진위 성명 발표… 총궐기 촉구

해인사가 '주지 부적격' 의견을 받은 선각 스님 대신 선해 스님으로 주지 품신을 교체한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공동의장 원학, 여연, 이하 정상화추진위)는 7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해 스님의 주지 추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상화추진위는 성명서에서 "몇몇 소임자 스님과 선각, 선해 스님이 있는 자리에서 방장 법전 스님이 통보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일 뿐 누가 봐도 선각 스님이 지명한 인선"이라며 "해인사가 선각 스님의 사설사암이며, 선각 스님은 창건주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교육원 8월 23~24일 교수법 연찬회

학인 스님들에 대한 교육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교육원(원장 현응)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목동 국제 선센터에서 교수법 연찬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연찬회는 승가대학, 대학원 교육 교역자 스님들과 교수 아사리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 해결, 효과적 강의 방법 홍보 등이 논의된다.

신중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8월 16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 도 모 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 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 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50주년인데…좋아할 수만 없는 대불련

기념 사업회 발기인대회, 동문 네트워크 구축 추진

201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7월 14일 오후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주년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 이하 대불련)은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 50주년 기념사업회 주요사업을 '사은과 감사'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50년 동안 대불련이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50년사 발간 △대불련에 힘이 된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등을 추진한다. 대불련 발전을 위한 추진위원회 · 운영위원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조직구성을 통해 후원금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여름캠프 등을 통해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번 간의 갈등을 허물겠다는 게 대불련의 계획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불련 50주년 행사를 위해서는 신도 단체 재등록을 놓고 빚어진 포교원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대불련은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역량 집중으로 현안을 풀어내려 하고 있다.

최경환 대불련 회장은 발기인 대회 인사말에서 "이번 기념사업회는 대불련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 재학생들을 위한 후원회 조직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후원의 틀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념사업회가 원만히 회향되면 포교원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대불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숲 동문 축제의 장" 다짐
조계종 단체 등록 갈등 숙제
회장 "적법한 절차면 등록"

7월 16일에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공개 예방하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대불련의 역사성과 특수성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 추진경과보고 △신도단체 재등록사업 이후 대불련의 현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요구조건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불련이 신도 단체 재등록 거부 사유는 단순히 조계종 명칭 사용 강요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교원장이 당연직 총재가 되고, 포교원장이 회장과 감사의 임명권자로 나설 것을 포교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종단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게 포교원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학생 불자들의 다양성이 존중돼 온 연합 모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불련이 신도 단체 재등록을 무조건 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궁극적으로 포교신도단체로 등록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며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모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자 포교원은 대불련과의 선긋기에 들어갔다. 대학 동아리 중심의 포교가 아닌 사찰, 지역 중심의 대학생 포교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7월 18일 통합종단 50주년 2차 세미나에서 포교부장 송묵 스님의 발제문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송묵 스님은 "청년과 대학생 포교 전략의 재설정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올해 종단 차원의 청년 · 대학생 포교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고, 3,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청년 · 대학생 포교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행선을 그리고 갈등 구조에 접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자신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학생들은 기존질서를 초월해 자유로운 사상을 지녀야 한다"며 "종단이 좀 더 마음을 열고 포용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10.27법난 피해자들을 악용 말라"

법난 피해자회, 17일 기자회견… 영담스님 사퇴 촉구

10.27법난 피해자 스님과 재가자들이 현재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자 스님들은 현 위원장 영담 스님의 사퇴를 재차 종용했다.

10.27법난 피해자결성회(회장 금룡, 이하 법난 피해자회)는 7월 17일 심의위원회

교육기념관 건립 반대
"보상이 아닌 배상" 강조



10.27 법난 피해자 결성회는 7월 17일 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회의 상황을 성토했다.

법난 피해자회는 회견문을 통해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돼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은 안중에도 없다. 매년 연 10억 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며 "여지껏 의료지원금은 3억여 원을 판정하고, 위원장의 욕심으로 위원회는 장기간 파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원장은 매월 13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난 피해자회는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정상화 △영담 스님의 위원장 사퇴하고 신임 총무부장에 인수 인계 △피해자 의견이 배제된 10.27법난 교육기념관 건립 반대 등을 주장했다.

법난 피해자회는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스님들의 그간의 성토도 이어졌다. 법난 피해자회장 금룡 스님은 "처음부터 보상이 아닌 배상의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 했다"며 "하지만 그나마의 보상도 안 이뤄지고 있다. 치료비 몇 푼 심의해 쥐어준 게 고작"이라고 성토했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위원장 영담 스님이 민간 위촉직 위원들을 일괄 해촉하고 신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민간 위원들은 위원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위원장의 해임까지 요구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난 피해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총무원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KT 올레 공식 사과공문 전달

해당 홈피 팝업에도 게재

㈜KT가 올레사이트(www.olleh.com)의 특정 종교 이미지 사용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 이하 종평위)에 공식 사과공문을 보내고 해당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게재했다.

㈜KT는 공문을 통해 "서비스 개편 시 실수로 귀 종교에 다른 특정종교 이미지가 잘못 연결 되어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종교편향이나 폄훼의 의도와 고의성은 없었다"라며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귀 종단 및 관련된 모든 분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의 '타운서비스'에 팝업과 게시판을 통해 19일 오후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종평위는 지난 6월 29일 ㈜KT에서 운영하는 올레사이트에서 특정종교 이미지를 사용에 대해 경위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당 기업에 발송했다. 이에 지난 7월 10일 고경곤 ㈜KT 인터넷추진본부 본부장, 김종철 팀장이 방문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번에는 댓가성 교회 헌금 의혹?

현병철 국가위원장, 親MB 교회에 거액 헌금

연임에 도전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친MB계열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거액 헌금이 국가위원장 임명 1년 전부터 집중돼 댓가성 여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7월 13일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기부금 내역서와 한양대 법학과 교수 시절 강의 내역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친MB 계열 김삼환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강동 명성교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명성교회에 매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씩 4년 동안 무려 5,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헌금을 기부해 왔다. 이는 같은 기간 현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한 총액 377,000원의 약 14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7년 현 위원장이 교회를 포함해 각종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12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거액 헌금 기부의 시점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7년까지 연간 1백만 원 정도였던 현 위원장의 교회 기부금이 갑자기 1000만원대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로비성 고액 헌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담임목사는 17대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



위원장 임명 1년 전부터 급증
3년간 年평균 1000만원 헌금

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예배를 집전하는 등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친MB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현 위원장은 한양대 법대 교수 시절 단 한 차례의 강의 없이 억대 연봉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한양대 법대 교수와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겸직하면서 2년간 단 한 차례의 강의도 없이 양쪽에서 각각 1억원대와 2천만원대의 연봉을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망교회 거액 로비성 헌금 의혹을 샀던 유영숙 환경부장관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현병철은 더 이상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이런 인사가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MB정부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신중일 기자

남한산성 장경사 47년만에 보존지 회복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경사 시효 취득 인정

국가 부지 내 사찰 종교 용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찰 종교용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7월 11일 조계종 장경사(주지 경우)가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경사가 1965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는 날인 1985년 4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 용지라도 사찰이 악의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경사는 1965년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들을 매수하고 헌등대, 9층 석탑, 대웅전 등 건립해 지역 사찰로서의 역할을 여법히 해왔다. 하지만 1988년 필지가 국유로 보존등기가 됐지만, 국가에서는 사찰 점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갑자기 1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장경사 측은 "국유재산인 종교용지에 대한 점유취득을 인정한 첫 판례"라며 "향후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를 확보하도록 해 민족문화유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일 주 문



팔공산 승시축제 개소식

팔공산승시축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7월 15일 팔공산 씨네80 자동차극장 시설 단지 내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선시집 출간기념법회

영천 죽림사 주지 법의 스님은 7월 17일 영천문화원에서 법어집 '놓아라'와 선시집 '그날이 오늘같이' 출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비움으로 행복찾기 진행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7월 20일 보신각 광장에서 제20차 비움으로 행복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국제선센터 수능100 일기도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8월 1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능 100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세계불교문화올림픽 환영법회

각황사 회주 능인 스님은 7월 18일 동대구 제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유치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캄보디아에 자비 씨앗 심다

천호희망재단 쫑산 고교에 교과서 등 전달

"세계일화에서 보면 캄보디아와 한국은 둘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천호희망재단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월서 스님〈사진〉이 캄보디아 오지를 찾아 자비보시행을 펼쳤다.

월서 스님은 7월 13일 캄보디아 오지인 소말리의 쫑산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교과서 9종 3000권, 노트와 필기도구 등 학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교과서 전달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승왕청 승왕 텝붕스님과 캄보디아 벽오지 마을에 국정교과서 지원계약 체결 후 첫 행사다.

월서 스님이 캄보디아 오지에서의 교육에 애착을 갖는 것은 은사인 금오 스님과 캄보디아와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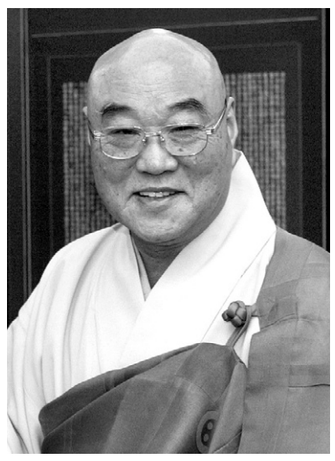
월서 스님은 "은사 금오 스님이 1964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 그 인연으로 인해 다시 캄보디아에 오게 됐다"며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세계평화기원 법회'와 2003년 캄보디아 승왕청에서 텝붕 스님을 친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친견하니 건강해 매우 흐뭇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월서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문에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부처님의 눈부신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니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호희망재단의 이날 지원사업은 지난해 캄보디아 승왕청 외무 담당 스님이 캄보디아 어린이 교육을 위해 월서 스님 측에 요청하며 진행됐다.

캄보디아 도시지역을 제외한 벽오지 학교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교과서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과서는 초등의 경우 합본으로 학년 당 4권, 중등의 경우에는 4~9권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교과서는 권당 평균 1.6달러, 사전류는 권당 평균 15달러로 학교당 평균 2500달러가 소요된다. 천호희망재단은 매년 3만 6000여 권의 교과서를 오지 마을 50여 곳 초·중·고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텝봉 스님은 "캄보디아 외부지원으로 교육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한국의 월서 대종사가 지원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 교과서 지원에서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월서 스님은 "최근 캄보디아 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결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양국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불교계가 캄보디아 이주여성은 물론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사업에도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붕신문 창간 29주년 기념식



7월 20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창간기념식 대법회 모습

1984년 일붕 서경보스님이 일붕법보로 창간해 1987년에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해 온 일붕신문이 창간 29주년을 맞이했다.

일붕신문(발행인 서병열)은 7월 20일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태민안 평화통일 기원 일붕신문 창간 29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붕신문사 회장 도기 스님, 수석부회장 청운 스님, 사장 동봉 스님,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 종단총연합회 총재 의륜 스님, (재)일붕선교종 원로의장 지공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지도자 및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불자연예인 축하공연에 이어 진행된 기념 법요식은 연등사 도심 스님의 발원문 봉독과 흥천사 비천회의 육법공양, 고석 스님의 연혁보고로 진행됐다.

회장 도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붕스님의 뜻을 받들어 불법홍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제5대 사장인 동봉스님은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붕존자님의 유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임을 잊지말자"고 당부했다. (02)777-0959

노덕현 기자

〈인사〉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정기 전보 인사 단행

조계종은 7월 20일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의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및 팀장, 행정관, 주임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115명 인사 대상가운데 25명이 전보 이동 조치됐으며 나머지 종무원은 유임됐다.

총무차장에는 김영일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포교차장에는 김상기 봉은사 종무실장, 불교사업단 사무차장에는 박용규 총무차장이 발령됐다. 황철기 포교차장은 중앙신도회로 파견됐다. 또 김상기 종무실장의 포교차장 전보로 공석인 봉은사 종무실장 자리는 총무원 총무부 박종학 사찰교무팀장이 파견됐다.

또 팀장급에서는 총무부 사찰교무팀장에 기획실 윤승환 기획팀장이, 기획실 기획팀장에 김용구 홍보팀장이 전보 발령됐다. 황충기 기획실 법무감사팀장은 재무부 재무팀장으로 김영주 재무부 재무팀장은 포교원 포교팀장으로 전보됐다.

전창훈 포교원 포교팀장은 기획실 법무감사팀장으로, 정유탁 신도팀장은 문화부 문화팀장, 고명석 포교부 종무관은 포교원 포교팀장으로 전보됐다. 박정규 호계원 사무팀장은 기획실 홍보팀장으로 전보됐다.

또 행정관급에서는 성만제 총무부 사찰교무팀 행정관이 총무팀으로, 진준호 재무팀 행정관이 교육원 교육부로, 류창무 호법부 호법팀 행정관이 호계원 사무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 자신감 생겨나"

B-GEP 강의 22일 회향… 비구니 스님 15명 수료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던 강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 세계화와 비구니 스님들의 국제 능력 배양에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사진〉은 첫 '비구니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B-G.E.P)'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문을 풀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B-G.E.P는 12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업이 진행됐다. 어느 정도 영어가 가능한 요원들을 선발했기에 가능한 영어 원전 강독과 원어민과의 토론 등이 주된 프로그램이었다. 여기에 국제 감각 배양을 위한 전문 교수진의 강의와 워크숍도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B-G.E.P은 글로벌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영어 이론 공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현장에서 대화·토론·발표가 가능한 실용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22일 열린 'B-G.E.P' 프로그램 회향식을 끝으로 강좌를 수료한 스님은 모두 15명. 모두 출석률 70%와 개별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여러 기준을 통과했다. 'B-G.E.P'을 수료한 스님들은 향후 국제선센터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와 보조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실무 경험을 닦아 나가게 된다.

국제화 감각 배양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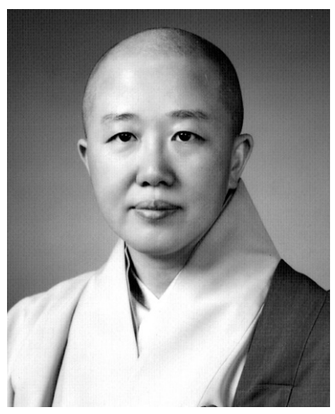
정기 강좌 확대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선센터도 국제 인력과 조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용인 화운사 국제불교학교와는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명법 스님은 향후 B-G.E.P이 비구 스님까지 아우르는 국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아직은 정해 지지 않았지만, 정기적 프로젝트가 된다면 강좌와 인원을 확대해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비구 스님들도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모든 승가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회향식에는 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G.E.P를 수료한 불자 20명도 함께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명법 스님은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불교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조했다.

금강대 김호중 씨, 정부 국비유학생 선발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7월 18일 졸업생 김호중(통상통역중어전공) 씨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한 2012 정부 국비유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김호중 씨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중국 지역연구 분야'에 지원해 유일하게 선발됐으며 9월부터 홍콩대(The University of HongKong) 중국 개발학 석사과정(The Master of China Development Studies)을 밟을 예정이다.

이로써 금강대는 지난 해 홍주연(영어통번역학과졸, 美 조지타운대 석사과정)씨 이어 2년 연속 한국정부 국비유학생을 배출하게 됐다. 김호중 씨는 "앞으로 국가의 지원에 보답하고 나아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선재포럼 사무실 개소… 본격 활동 시작

불교계 선진시민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단체인 선재 포럼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선재포럼(공동대표 박대성, 정상옥, 박시현)은 오는 7월 27일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연다.

한편, 선재포럼에는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정상옥 前 대한불교청년회장. 박시현 前 천태종 청년회 중앙회장, 임병화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석오 前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주요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창종 선포문 포

불법홍포와 수행정진에 매진하시는 제방의 청정승가와 돈독한 불심으로 삼보호지에 앞장서는 불제자 여러분들의 무운장구를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합장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한국불교중흥과 세계평화를 주창하셨던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합니다. 일붕존자께서는 1992년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을 역임하셨으며, 세계 전역을 다니시며 평화를 주창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평화교육자협회(IAEWP)에 의해 1996년까지 2회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셨고, 126개의 박사학위, 1,042권의 저서, 757개의 통일기원비건립, 50여만 점의 선필(禪筆), 최대 석굴법당 건립 등 5개 분야에서 기네스북에 오르신 금세기 최고의 석학 평화운동가로 지금도 수많은 불자와 후학들에게 생불로 추앙받고 계시는 존자님의 법통을 계승발전하고 흩어진 일붕 종도님들의 뜻을 한데모아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소승이지만 존자님을 도와 일붕선교종을 창종했으며, 초대 총무원장, 2대 종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존자님의 수행과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왔기에 한국불교중흥과 불교 세계화의 유훈을 실천하고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을 창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불제자 여러분의 뜨거운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린종단·개혁종단·교육종단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56(2012)년 7월 24일 11시 힘찬 붕정만리를 시작하려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종정 법담 정각 합장

◆ 입종안내 ◆

제방에
함께하실
종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 전화 : 041-566-2277 ~ 566-2278 FAX : 041-566-6141



7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경봉선사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3000여 사부대중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경봉 스님의 법향과 가풍이 깃든 극락암 삼소굴에서의 생전 모습.

"시주 무서워 하라"… 가르침을 거울 삼겠습니다

통도사, 7월 16일 경봉 선사 탄신 120주기, 열반 30주기 다례재 봉행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다가 눈 앞에서 바로 주인공을 보았네. 하하 웃고 서로 만나 의혹이 없어지니 우담발화 꽃 빛이 법계에 흐르네"

7월 16일 오전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 크게 걸린 스크린에는 법문하는 경봉 스님의 생전 모습이 비쳤다.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기리는 다례재에 모인 추모객들은 마치 살아 돌아온 듯 생생한 그 모습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설법전에 가득 울려퍼지는 스님의 일성은 설법전을 가득 메운 3000여 대중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날 모인 대중들은 극락암 삼소굴에서 엄격하면서도 검소한 수행가풍을 후학들에게 보여준 경봉 스님의 행화를 따르기를 발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수행가풍을 바로세운 큰 스승, 경봉선사 탄생 120주년과 열반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초우 월파 월탄 암도 정련 스님 등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총무원장 자승,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의 스님들이 운집했다. 나동연 양산시장과 지역 불자 등을 합하면 3000여 명이 참석했다. 30년동안 극락암에서 열리던 추모법회는 이날 많은 대중으로인해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옛 조사(祖師)의 살림살이를 들어 금일 경봉대선사 영전(影前)에 법향(法香)을 올린다"며 "주고 빼앗는 자재의 기봉을 갖춘 이가 몇몇이나 될꼬(여탈자재능기기 與奪自在能幾幾)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천상인간무등필 天上人間無等匹)"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경봉 대종사의 30주기를 맞아 큰 스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지금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함"이라며 "치열한 구도행을 후학들의 수행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추모했다.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남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대하고, 스스로 자숙할 땐 추상(秋霜, 가을의 찬 서리)같이 하라." 평소 경봉 스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일러준 가르침이다.

보리밥과 죽순나물로 대변되는 삶을 산 스님에 대한 후학들의 회고는 엄격하면서도 그 안에 검소하고 따듯한 가르침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왔다.

극락람 호국선원에서 경봉 스님 회상에서 정진했던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백척간두에 서있고 진퇴양난에 빠져 물을 것 조차 없었던 터에 '공부가 안되는가. 차나 한잔 마셔'란 스님의 따스한 말씀이 떠오른다"며 스님을 그리워했다.

문도 대표로 나선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항상 시주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검소한 생활에도 소요자재한 경지를 펼치셨다"고 스님을 떠올렸다.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자기에겐 추상 처럼 대하라"
"공부 안되나, 차한잔 마셔"

극락암 삼소굴 가풍 '검소'
詩 書 畵 禪 茶 즐긴 오절
통도선문화재단 건립 추진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이 향을 올리고 있다.

이어 스님은 경봉 스님의 선풍 선양 및 보살도를 구현하기 위한 통도선문화재단 건립을 통해 그 가르침을 전할 것을 밝혔다.

다례재에서는 문도를 대표해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의 헌화와 함께 각계 인사들의 헌화, 경봉 스님의 사진집 '삼소굴 향성' 봉헌,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다례재 이후 참가 대중들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삼소굴'을 찾아 스님의 친필 유묵과 법거량 편지, 화엄산림대법회 기록 등 스님의 결점없는 삶과 법력에 감탄했다. 특별전은 9월 23일까지 열린다. 시 · 서 · 화 삼절에 선과 차를 아우른 오절로 불렸던 대선사의 향취는 30년이 지나도 은은히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

양산 통도사= 노덕현 기자



정수환 화가가 기증한 영정그림



종정 진제 스님이 추모 법어를 하고있다.



통도사 성보 박물관서 열리는 '삼소굴' 특별전을 둘러보는 스님들. 특별전은 9월 23일까지 열린다.



이날 극락암에는 다례재 이후 스님을 추모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학생활의 로또…해외봉사 지원자 몰려

불교계 종립대 · 사찰 해외봉사 대학생에 인기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 중요한 스펙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대신 해외봉사를 택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각 기관 및 단체서 해외봉사자로 선발되는 것은 '대학생활의 로또'라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불교 종립대학과 사찰서 실시하는 해외봉사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다. 참가비용은 학교와 단체의 후원으로 소액만 지불하며, 인턴쉽과 문화탐방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경쟁률이 6:1에 이를 정도로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자 선발 기준 역시 까다롭다. 학점제한, 자기소개서 등 1차로 서류심사를 마친 뒤, 2차 면접을 통해 봉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한다.

해외봉사활동은 대부분 노력봉사와 교육봉사로 이뤄진다. 집짓기, 벽화그리기, 한국 · 영어 교육, 문화교류 등이 주 프로그램이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은 매 학기 방학마다 재학생 30여 명을 선발해 해외봉사에 나선다. 참사람봉사단은 7월 2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국해 2주간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봉사활동은 카자스흐스탄 국립대 재학 중인 학생들과 장애인 노인 요양병원 쉼터 건립을 한다. 특히 신한 · 국민 은행 등 우수 금융기업의 해외 인턴쉽 활동도 포함돼 인기가 높았다. 인턴쉽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봉사자 30명 중 10명으로, 인턴쉽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학점도 부여된다.

동국대 손재현 교수(사범대 체육교육과 무용담당 · 참사람봉사단 부단장)는 "최근 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젊은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 해외봉사에 관심이 큰 것 같다"며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알려주는 최고의 교육이다. 아직까진 불교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종립학교니 만큼 불교포교를 위한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불교도 알리고, 봉사도 하고
해외 인턴쉽, 소액 참가비에
경쟁률 6:1, 지원자 속출
봉사도 스펙으로 자리매김

6년 째 해외봉사활동을 해온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단장 박상범)도 지난 6월 30일~7월 7일 필리핀 알바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0년부터 하계는 필리핀, 동계는 캄보디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35명의 학생들이 선발됐지만, 평소에는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한다.

봉사활동은 집짓기, 학교 페인트 칠하기, 마을 환경 정화 등이다. 이밖에도 인도, 몽골에서 의과대학,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의료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은 6월 30일~7월 7일 필리핀 알바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봉사자들이 필리핀 학생들과 부채만들기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자료제공=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해외봉사활동은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와 동국대의 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봉사정신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및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조계사 대학생회도 지난 2월 15명의 학생들이 로터스월드와 협력해 5박7일간 캄보디아로 해외봉사에 나섰다.

조근희 조계사 대학생회 부회장은 "주변 친구들만 봐도 취업문제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참가했지만 막상 봉사활동을 하니 많은 것을 배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금강대(총장 정병조)도 9월 봉사단 발대식을 마치고 봉사단원을 선발해 동계방학 중 해외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약 15명 학생을 선발해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봉사를 펼친다.

이외에도 **정토회**는 매년 여름, 겨울 두 차례씩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 인도 등으로 해외봉사에 나서고 있다. 참가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봉사 지원자는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정토회는 지난해까지 역사탐방과 봉사활동을 겸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동북아역사대장정만 실시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첫 대학생 광고 공모전

국문, 영문판… 9월 9일까지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공동주최로 '제1회 템플스테이 대학(원)생 광고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1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광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전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참가 자격은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이며, 공모분야는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국문판 인쇄광고와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문화,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영문판 인쇄광고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광고 작품 공모는 오는 8월 13일~9월 9일 공모전 전용 온라인 카페(cafe.naver.com/adtemplestay)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9월 11일 온라인 카페에 공지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은 전체 부문에서 대상 1팀을 선정해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이와 함께 2012년 하반기 템플스테이 광고로 활용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또한 특별상(한국관광공사 사장상) 1팀에게는 오는 11월 영국 런던 세계여행박람회 참가를 위한 항공비와 숙박비(2인 기준)가 제공된다. (02)5641-1806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청소년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다

(사)평화로운세상, 8월 3~5일 법흥사서 평화캠프

전국 청소년들이 모여 평화와 공존을 배우는 캠프가 열린다. (사) 평화로운세상만들기(이사장 도완)는 오는 8월3~5일까지 2박3일간 법흥사 경내에 있는 하이원 평화캠프장에서 '제3기 청소년평화캠프'를 개최한다.

2박 3일간 캠핑하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아 체험, 농촌봉사활동, 구봉대산 트레킹,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캠프 기간 중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평화 음악회도 열린다. 8월 4일 법흥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천년의 향기 금강송과 함께하는 평화음악회'에는 음악회는 서울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테너 이동원, 소프라노 정재희의 성악공연과 여성5인조 퓨전국악걸그룹 '아랑'과 중국 전통현악기단 '12소녀악단' 연주공연 등이 선보여진다.

또한 평화로운세상만들기 홍보대사인 4인조보이밴드 범킨스의 락공연과 가수 이창휘, 강달님, 국도영 등의 노래공연도 만날 수 있다. 도완 스님은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해 공동체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을 배워 진취적인 이상을 가진 인재들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화캠프 참가대상은 초 · 중 · 고등학생으로 선착순 200명을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033) 375-3201

신중일 기자

신행 소식

개운사, 런던올림픽 선전기원 마라톤 개최

서울 개운사(주지 범해)가 2012년 런던올림픽 마라톤 선전기원을 위해 8월 12일 '2012 성북구민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대회 코스는 개운사 경내 운동장을 출발해 안암역을 거쳐 아리랑고개를 반환하는 5km 코스와, 이를지나 성북공원, 성가정입양원을 돌아오는 10km 코스로 진행된다.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은 "성북구민들과 함께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계기로 마라톤 동호인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는 마라톤 대회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위한 숲속판화체험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여름방학을 맞아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함께 전통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숲속판화학교'를 연다.

프로그램은 7월 28~29일, 8월 4~5일, 8월 11~12일 3회에 걸쳐 목판화 티셔츠를 만들기, 전통책 만들기, 우리집 가훈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도, 명상 등의 프로그램들도 마련된다.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단, 다문화 가정은 무료. (033)761-7885

한국불교건축의 美를 느끼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정)가 국제선센터 국제극장 명법 스님, 신재순 건축가와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기행'을 실시한다.

행사는 7월 29일 진행되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 유적을 탐방한다. 우리나라 인공연못 중 가장 오래된 부여 궁남지,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된 나주 벽나리 민불, 독특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는 완주 화암사 등 전라도 일대를 돌아보며 한국불교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5만원. (02)2650-2200

신흥사 토요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가 9월 1일 어린이법회 토요아카데미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을 맞아 '체험을 통해 희망을 꿈꾸는 즐거운 토요일'이란 주제로 열린 프로그램은 원각사를 비롯한 속초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토요아카데미를 연다.

토요아카데미는 만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아동미술 및 수채화, 클레이교실, 난타,문화재탐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033)636-7044

올레길 걸으며 참나를 찾다

서귀포 약천사(주지 성원)가 여름방학을 맞아 올레 휴양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여름불교학교, 영어놀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여름불교학교는 7월 28~29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약천사 순력도 만들기, 전기자전거타기, 허브 버뮬리 만들기, 법성도 걷기, 예불, 포행, 사물 체험 등을 진행한다.

또 7월 30일~8월 1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무찰흙놀이, 원투게임, 물놀이 등을 진행하는 영어놀이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이밖에 중 · 고등학생과 일반을 대상으로 8월 3~5일 올레길을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올레 휴양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올레길 걷기, 묵언 포행, 산책, 108배 참회, 합장주 만들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64)738-500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 량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암 사진 (안 · 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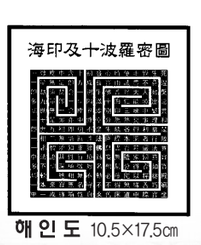


종정 큰스님의
법성게 친필휘호 보급 안내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게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게 휘호는 신묘한 氣가 있습니다.

※ 달마도도 보급합니다.

○ 보급가 15만원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 · P 010-6478-1569



해인도 10.5×17.5㎝

〈족자〉

법성게 38×145㎝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저소득, 편모 가정 아이들의 따뜻한 쉼터

수원불교청년불자들, 길벗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원지역청년불자들이 모여 새로운 지역아동포교의 모델을 만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i길벗(대표이사 김춘길)이 수원 장안구 파장동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길벗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애)를 7월 17일 개소한 것.

파장초등학교 정문에 자리잡은 길벗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8월 6일부터 보호 및 학습지도 활동을 하게 된다.

시설은 130㎡(약 40평) 규모로 아동 공부방과 컴퓨터실, 개인상담실, 야외 정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아동은 식대와 약간의 교재비를,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길벗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이 교실'을 열고 이주민 대상의 한글, 문화강좌도 마련할 예정이다.

i길벗은 지난 30여 년간 수원지역 청년불교 운동을 펼쳐온 수원불교청년회원들이 뜻을 모아 올 4월 설립한 단체다. 아동복지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법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안직수 i길벗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는 수원지역 아동센터 42곳 중 30여 곳이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 대부분이 개신교 포교를 하는 예배당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수원불교청년회는 갈수록 침체되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활로를 찾기 위해 길벗을 설립·법인화해

아동복지·포교활성화 위해
소외계층 30명 대상 개소
공부방·심성교육 제공
사회적기업 설립도 계획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37명의 이사들이 참여해 자본금 5000만원을 모아 설립된 i길벗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아동거주시설 정기봉사활동 및 후원 △아동지원센터 설립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유산 교육사업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한국체험 마련 △기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i길벗 회원들은 안산 둥지 청소년의 집을 매달 한차례 방문해 시설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립행궁동 어린이 집 후원 등도 하고 있다.

안 상임이사는 "파장동 지역은 학습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아이들이 방과 후 숙제 및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운영하고 심성교육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길벗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0명을 정원으로 하며 명상교육, 요가, 사찰답사 등 불교관련 문화활동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춘길 대표는 "길벗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한구좌당 3000원씩 300명을 모집했다"며 "청년들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 포교를 해 나가는 방식이다. 크게는 불교계 YMCA같은 어린이 청소년 불교문화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17일 이성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장수석 파장동장, 이호철 파장동자치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031)271-6778

후원계좌 221701-04-375508 국민은행(사단법인 i길벗)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7월 17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초등학교 앞에 개소한 길벗 지역아동센터 김춘길 i길벗 대표이사(앞줄 왼쪽서 세번째)와 박명애 센터장(맨앞줄 왼쪽서 두번째) 내빈들이 개소를 축하했다.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 춘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곡물 이용한 시장형사업 '인기'


천태종 복지재단 춘천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콩튀니사업단' 어르신들이 뻥튀기를 만들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춘천시니어클럽(관장 도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 노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춘천시니어클럽은 '쥐눈이 콩나물' '우리콩두부' '황금연못알뜰매장' 등 13종류의 시장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참기름사업단(우리방앗간)' '콩튀니사업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참기름사업단'은 직원 모두가 평균 연령 71세의 노년층인 30명으로 구성돼있다. 어르신들은 6개월간 주2일 5시간씩 매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참기름·들기름을 생산해 판매, 배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춧가루 및 깨 볶음 등 재료를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공인비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참기름사업단을 개업한 춘천시니어클럽은 △엄선된 원재료 사용 및 정기적인 참여자 위생교육 실시 △참여회원들의 친절과 제품의 높은 신뢰도 등을 사업성공요인으로 꼽는다. 특히 보건소 담당자를 섭외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먹을거리에 관한 신뢰를 확보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춘천시니어클럽은 "지역 내 방앗간은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정성과 먹을거리에 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주기까지의 노력 등이 소비자와 참여회원들의 만족도를 증가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콩튀니사업단'은 제4회 2010 생산품 경연대회에서 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춘천시니어클럽의 자랑거리다.

'콩튀니사업단'은 약콩이라 불리는 국산 100% 쥐눈이콩을 이용해 첨가물을 넣지 않고 볶아만든 웰빙 영양간식을 생산하고 있다.

평균연령 68세의 어르신 17명이 직원으로 있으며 이들은 생산, 판매, 홍보팀으로 나누어 콩튀니 외에 찰강냉이, 뻥튀기 생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 지역 어르신에게 인기
평균 70代 직접 참여·생산
일자리 경연대회 은상 수상

어르신들은 재래식 튀밥기를 사용해 옛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반 콩이 아닌 '쥐눈이콩'이라는 희소성이 강한 원재료를 이용해 기존 가공제품과 차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춘천시니어클럽은 "콩튀니사업단은 전국시니어클럽중 유일하게 본 기관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으로 생산품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소비자의 재구입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니어클럽의 최혜욱 실장은 "춘천시니어클럽은 지역 사회에 '노인들도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3)256-3005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다문화 나눔 캠프

29일 부산 미타선원서 가족법회도 열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찰음식 나눔캠프가 성황리에 끝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개최한 '한국 사찰음식 나눔캠프: 아름다운 인연'이 7월 14~15일 태화산 한국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캠프에는 2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한국 사찰음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유미죽과 더덕무침 등 한국 사찰음식 조리 실습과 다도 및 다식 만들기를 체험한 한 가족은 "평소 가족들이 다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초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200여 다문화가족은 1박2일동안 사찰음식,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했다.

다문화가족은 사찰음식 및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나누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 고국에 남아있는 그리운 가족들에게 부칠 편지를 쓰며 1박 2일의 여정을 마쳤다.

한편 복지재단은 7월 29일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에서 사찰가족법회를 개최한다. 황수경 교수(동국대 명상상담학과)가 '우리는 부처님 가족'이라는 주제로 가족간 차이를 서로 존중하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강의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복지단신

성북장애인복지관,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 실시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방역사업 및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새봄 성북 하온(夏溫) 하우스'를 실시한다.

복지관은 10월 31일까지 모기장 설치, 방역약품 살포, 배수로정비, 침수피해가정지원 등 자가 위생 관리 환경조성사업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주변 취약계층 및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에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2)915-9200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 후원 캠페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7월 21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후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성 걷기대회를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 100여 명은 직접 제작한 후원깃발을 들고 수원지역을 돌며 후원캠페인을 진행했다.(031)201-8382

속초노인복지관, 초복맞이 무료급식 진행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7월 18일 초복을 맞아 무료급식 나눔행사와 5개시군 어르신 친선탁구대회를 실시했다.

복지관은 500여 지역어르신에게 닭곰탕, 불고기 등을 제공했으며 속초 고성 양양 양구 인제 어르신 100여 명을 모시고 탁구대회를 열었다. 속초시노인복지관에서는 중복, 말복에도 이와 같은 무료급식 나눔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033)636-337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부교육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모래강 내성천 위기…작은 관심이 해결의 열쇠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

내성천은 낙동강 제1지류다. 발원지는 탄산 약수로 유명한 봉화군 물야면의 오전 약수. 내성천은 여기서부터 106.29㎞를 흐르며 봉화, 영주, 예천 지역에 1,814.71㎢의 유역평야를 형성한 뒤 삼강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산과 산 사이를 휘돌아 굽이치며 흐르는 내성천 하곡의 모래톱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경(祕境)이다. 내성천은 한국 하천의 자랑인 모래톱이 가장 발달한 하천이기에 '모래강' 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내성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영주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댐이 완공되면 내성천의 중상류가 수몰돼 사라진다. 또, 하류로 운반되는 물과 모래가 줄어든다.

2009년부터 4대강 공사로 인한 강의 변화를 답사해온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은 현재 내성천 강가에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 강의 아름다움과 영주댐 건설공사로 인한 변화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다.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 전나미 불교상담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는 7월 14일 경북 영주 내성천 영주댐 현장 근방서 지율 스님을 만나 최근 근황과 생명운동에 대해 들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지율 스님은 … 1957년 경상남도 지리산 기슭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1992년 양산시 통도사에서 은사였던 청하 스님과 함께 출가했으며 1997년 구족계를 받았다. 내원사 선방에서 통도사 말사 신분으로 수행에만 전념했고 산감 소임을 맡으면서 천성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받게 된다. 그러던 중 2001년 4월 천성산을 파헤치는 터널 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 받은 것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나서게 된다. 3년 전부터 4대강 공사로 인한 강의 변화를 조사해온 지율 스님은 1년 전부터 내성천 강가에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 보존문화유산을 시민 기금으로 확보해 온 내셔널 트러스트와 함께 내성천 땅 1평사기 운동을 전개했고, 내성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텐트학교를 진행중이다. 또한 조계사 경내 컨테이너 박스 전시실인 '공간 모래' 를 운영하는 등 내성천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문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http://www.naeseong.org/

옥복연 소장: 스님께서는 천성산부터 시작해 지금의 내성천까지 자연의 뭇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불보살이라고 칭송합니다. 자연의 생명 보호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신지요?

지율 스님: 처음 환경 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경남 양산 천성산 내원사에서 수행하던 중에 천성산 습지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 계기였구요.

지난 3년 동안 낙동강 공사 현장을 헤매고 다녔고 수천, 수만의 나무가 베어지는 현장에 서있었으며 그 무너짐들을 두 눈에, 렌즈에 또 가슴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게 "참, 독하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걸어 온 길이 덤풀속에 덮히지 않아야 돌아 갈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복연 소장: 스님은 2001년부터 단식 등 온몸을 던지면서까지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10월경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천성산 웅덩이에는 도롱뇽 알 천지"라며 스님을 비난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율 스님: 중앙일보는 인공 물구덩이를 천성산 늪이라고 보도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천성산에 대한 왜곡된 기사를 30회 이상 실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이 기사들의 이면에는 제주 구럼비, 원자력 사업, 새만금 등 삼성의 개발 사업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영주댐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삼성의 개발이익을 위한 현장이기에 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거죠.

다른 주요언론들은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고 정부기관 등에서는 정책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재생산 하는거죠.

'천성산 터널 반대로 모두 2조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고 주장한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했을때도 언론사에서는 단 한 번도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뷰도 하지 않고 '2조 5000억원 손실' 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 주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엄청 깊고 어둡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어둠 위에서 제가 살아왔다는 걸 배웠죠.

옥복연 소장: 4대강사업으로 수많은 강들이 파헤쳐졌는데, 특별히 내성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율 스님: 영주댐이 완공되면 내성천의 중상류가 수몰돼 사라집니다. 또 하류로 운반되는 물과 모래가 줄어들죠. 이는 그동안 낙동강의 정화를 담당했던 필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성천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도화지에 물이 번지듯 강 전체에 모래가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래의 높이가 6m 이상이라고 해요. 물이 흐르면서 모래알을 굴리고 그 모래가 다시 물의 자정작용을 하면서 맑은 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1급수의 내성천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다시 강물의 정화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댐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의 유입이 달라졌고 모래의 자정작용도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모래층은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인데 단 1년 만에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면 개발이라고 하는 작용이 정말 수질정화를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댐 수몰지역 거주 어르신을 보세요. 6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보상금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받고 13평 임대아파트로 간답니다. 그들의 삶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은 괜찮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남편) 묘지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합니다. 수몰지역에 사는 분들은 영주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지 못했어요. 영주댐사업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 설명회 없이 진행 됐습니다. 뚜렷한 것은 생태 파괴와 오염, 문화재 수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위기뿐입니다.

수년간 낙동강 공사현장 렌즈에 담아
대기업 개발사업 합리화 위해
언론사 왜곡 보도 수난 겪기도
낙동강의 필터 내성천 수몰 이대론 안돼

옥복연 소장: 자연과 뭇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자로서 해야할 일입니다. 내성천 모래강살리기운동에 불교계가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요?

지율 스님: 처음에 불교계에서도 4대강 반대운동을 했지만 결국 4대강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수 스님의 4대강 반대 소신공양만 남았습니다. 한 번은 부산의 한 광장에서 40일 동안 3000배 정진을 했어요. 근처의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이 지나가는데 저를 보면서 "저 스님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러더군요. "불교계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구나"로 평가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인식이 그래요. 우리 사찰 스님만 스님이고 다른 스님은 그냥 저 스님이고. 그러니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해도 잘 안되죠. 종단이나 불교단체에서 동참하기 보다는 개인의 참여가 더 많은 편입니다.

여성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특히 환경 문제 만큼은 여성불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바꾸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복연 소장: 인도에서 일어난 '칩코 운동' 같은 거군요. 인도 여성들이 숲의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나무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운동을 통해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고 숲을 살렸습니다.

지율 스님: 그래서 여성들이 생태와 자연을 살리는데 앞장 서야 합니다. 불자라면 더욱 그렇지 않나요. 연기적인 삶.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여성분들이 이해하고 앞장서야죠. 불교를 접하면서 다들 한 번 씩 환희지(번뇌를 끊고 마음속에 환희를 일으키는 경지)를 느끼게 되죠. 그 환희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자연입니다. 우리 삶이 촉박하니까 환희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전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요. 번뇌나 꿈도 별로 없구요. 삶 자체가 단순해서죠. 제가 놓인 그 곳에서 오는 인연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청와대 앞에서 천성산 터널로 단식할 때도 저는 제 추억을 만들어 갔어요. 청와대 주변 골목에 핀 나팔꽃이라든가 오래된 집 담쟁이 넝쿨 등을 사진으로 찍는 거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에너지를 현장에서 느끼려고 하죠. 촉박한 삶에서 눈을 돌려 자연을 보게 되면 주변의 무수한 생명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옥복연 소장: 여성불자들이 내성천살리기운동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율 스님: 하나가 바뀌면 그동안 풀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 열쇠는 불교의 자비, 사랑, 보살행일 것입니다. 또한 여성불자들이 동체대비 사상을 갖고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지속해 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직접 체험 해보는 것도 중요하구요. 말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직접 내성천을 찾아와 눈으로 봐야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지 느끼게 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공사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마음에 달렸거든요.

옥복연 소장: 자연 뿐만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거칠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불자들에게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율 스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늘 이야기 하지만 나눌 수 없을 때 불행한 것입니다. 여성은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나, 이웃에게나 늘 사랑을 베풀죠. 나누는 겁니다. 혼자사시는 옆집 할머니가 부침개 하나를 해도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그 마음. 그런 것이 여성들의 사랑 같아요. 삭막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러한 여성들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문화재 환수에 '관·민' 나섰다

7월 27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시행, 민간 환수재단 설립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불교계와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화된다.

국외소재 민간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7월 27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맞아 출범한다. 외교적 마찰 등의 우려로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일을 맡아서 할 기구로 이사진에는 김의정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현재 정관이 마련된 상태로 이사장 선임 등 임원진 구성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불법 반출된 것은 되찾아오고, 적법하게 빠져나간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민간 소장 국외문화재의 실태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가치있는 국외문화재는 사들이거나 기증을 받고, 적법하게 반출되어 환수 대상이 아닌 문화재는 현지에서 활용하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된 국외문화재는 20개국 14만 9,126점이다. 일본에 있는 것이 6만 6,295점으로 가장 많다. 이중 40% 가량이 불교문화재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위원장 김의정)도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외 문화재 찾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민위는 일본 궁내청,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실의궤, 지난 5월 가사이 아키라 일본 중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밝혀진 조선 제왕 투구(도쿄박물관 소장), 1920년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송파산대놀이 탈(일본 와세다대 소장),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있는 금은제 라마탑형 사리구 등의 환수에 나선다.

시민위는 먼저 오는 12월까지 외국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파악하고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국외반출 문화재 찾기 대장정-환국(還國)'을 제작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4회 이상의 국외 현지촬영을 진행하는 한편, 장소와 주제에 맞는 출연진과 강사도 섭외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국외반출 문화재 사진전,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특별 강연, 퍼포먼스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이달 시작되는 중고등학생 여름방학을 활용해 문화유산아카데미도 열기로 했다. 중학생 대상 강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달 23일, 30일, 8월 6일 열고 고등학생은 25일, 8월1일, 8월 6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독후감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는 기업의 협찬을 받아 국외 탐방 등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불교계에서는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은제라마탑형 사리구 환수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 오구라 호텔에 있는 이천 이천 오층석탑과 평양 율리사지 석탑, 중국 여순박물관에 있는 금강산 장안사 범종 등이 있다.

혜문 스님을 포함해 해외반출 환수를 위한 대표단은 2011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소재 문화재를 조사해 보스턴미술관 측과 사리구 반환을 논의했다. 당시 미국 방문에서는 회암사 '석가삼존도'도 뉴욕 버크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65년 문정왕후가 회암사에 시주한 불화 400점 중 6점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만 1점이 있다. 현재 일본에 4점, 미국 버크 컬렉션에 1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주 회암사 박물관측은 7월 27일 개관에 맞춰 미국 버크 컬렉션의 석가삼존도 임대 전시를 추진 중에 있다. 양주 회암사 박물관은 양주시가 127억원을 들여 준비중인 박물관으로 10월 경 정식 개관이다.


미국에서 지난해 최초 공개된 회암사 석가삼존도

문화재 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과연 가능할까 했던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의 환국이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현실이 된 것처럼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불자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즈베키스탄서 초기 불교사원 발견

국립문화재硏, 카라테파 유적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유적의 불교사원 흔적

인도 북쪽 중앙아시아 지역인 카라테파 유적에서 1~3세기 초기 불교사원유적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7월 19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 발굴조사 성과설명회'에서 카라테파 유적 조사에서 초기 불교사원이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부터 우즈베키스탄학술원 예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유적에서 진행한 것이다. 조사에서는 쿠샨시대(1~3세기)에 해당하는 석굴(예배당), 지상 건물지(승원), 탑으로 이루어진 초기 불교사원의 가람(사원 건물의 배치)이 확인됐다. 카라테파 유적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이번 발굴로 초기 불교사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라테파 유적은 우즈베키스탄 남동쪽 끝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계 지점인 테르메즈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쿠샨시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고대 도시유적과 초기 불교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적 복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번에 발굴된 탑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가장자리를 따라 꽃병과 물병으로 사용했던 양이부호(兩耳附壺: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가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알려진 스투파의 상징적 의미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양이부호 1점에서는 박트리아어를 카라테파 지역의 그리스 문자로 쓴 묵서(墨書)가 확인됐다. 묵서는 일반적으로 공양이나 봉헌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 깨진 조각에서 발견돼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전체 문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판독 결과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중복판 조사한다

문화재청 · 해인사, 동아대 석당학술원과 재조사, 추가 국보지정 가능

국보 제32호 재조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진위여부가 재조사 된다. 문화재청과 해인사, 동아대 석당학술원은 7월 16일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이번 조사 사업에서 석당학술원이 연구용역을 맡았다. 사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 발표회 및 학술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 사업은 문화재청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해인사 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사된 판 수가 1962년 조사를 통해 국보로 지정한 재조대장경 판수인 8만 1258판보다 108판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복된 판에는 1900년대 조석총독부가 16판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경판은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었다.

동아대는 중복판들에 대한 스캔 작업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진위여부를 판별한다. 중복 경판의 보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물론 중복 경판의 훼손 정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동아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팔만대장경 인경본 완질을 소장하고 있다.

또 오따니 대학에 소장된 재조대장경 인경본과 동아대학교 소장 인경본 등의 비교연구를 통해 중복판의 가치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보로 지정된 재조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경판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업에는 경판 관련 전문가인 역사?서지학자, 금속성분 및 제작기법을 분석할 보존과학자, 목판의 판각기법 및 목칠 등에 대한 수리복원 전문가 등 3개 영역에


동아대 석당학술원과 해인사는 16일 연구협약을 맺었다.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연구 책임자는 최영호 석당학술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이며, 공동연구자는 이관섭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수와 도춘호 순천향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팔만대장경으로도 불리는 재조대장경은 1236년(고려 고종 23)에 착수하여 1251년(고종 38)에 완성한 것이다. 총 1,501종 6,708권, 경판 수는 81,258 장이다. 강화도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보관하다가 1398년(태조 7)에 가야산 해인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제14회 진각논문 대상 시상식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7월 17일 총인원 내 교육원장실에서 제14회 진각논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자는 △진각종교학 혜담(이경택 의밀심인당 주교) 정사 △불교일반분야 서현희(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 안환기(서울대학교 종교학 박사과정 수료), 권순범(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배경아(일본 류코쿠대학교 불교학 박사), 양경인(동국대학교 인도철학 박사과정 수료) △밀교일반분야 조금자(위덕대학교 불교문화 박사과정 수료) 등 7명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각논문대상을 만든 목적은 불교발전과 밀교학자 및 불교학자들의 학문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불교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죽은 내시 남편 위해 만든 지장보살상 발견

최선일 박사, 속초 보광사 보살상 복장 분석

조선 후기 목조 불상에서 죽은 내시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부인의 조성기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최선일 박사는 '미술사학연구' 제274호에 기고한 '속초 보광사(普光寺)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彫刻僧) 초안(草安)' 논문에서 "환관을 위한 불상 조성 사례는 처음"이라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광사 아미타불 협시보살 중 하나인 지장보살상은 통나무 하나로 만든 일목식(一木式) 불상으로, 높이 46㎝에 무릎 너비 30.5㎝다.

최 박사는 "2010년 9월 조사한 지장보살상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중수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씨(韓氏)라는 여인이 죽은 남편 숭록대부 나업(羅業)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조각승 초안(草安)이라는 승려에게 만들게 했다. 이어 효종 5년(1654) 8월 29일 금강산 안양암(安養庵)에 안치했다"고 말했다.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상

지장보살상 복장에는 발원문과 중수문서 외 황초복자에 싼 후령통과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과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등이 발견됐다.

최 박사는 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인균(1615-1655) · 삼인(1628-1659) · 초안(1654-1659)으로 이어지는 임진왜란 직후 조선시대 조각승 계보를 재확인했으며, 임란 직후 사찰 중건과 더불어 지장전에 봉안하는 지장보살이 제작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연향이 머무는 곳(大/6절) 1,1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300원
• 규격 : 30.5㎝×31㎝



반야심경(小/12절) 8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퇴색되는 지역학교 인수…명문학교로

전남 나주 세지중학교 이사장 원일 스님

종립학교가 지역의 사립 명문학교로 알려지면서 인근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남 나주 세지면에 있는 세지중학교는 최근 학교 교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특성화 교육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지역 명문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변화는 지난 2006년 나주 미륵사 주지 원일 스님이 세지중학교를 인수해 종립학교인 벽상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세지중학교는 지역 최고의 학교로 자리매김 하게됐다.

가장 큰 변화는 체계적인 특성화 교육이다. 현재 세지중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 영어회화 공부와 방과 후 교육(세지학당) ▷지역 향교의 도움을 받아 다도와 예절교육 ▷지역의 명사들을 초청하는 초청강의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예능 교육 ▷야영수련, 승마, 염색체험 등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전문학교'로 지정돼 시설투자 등을 유치했으며, 인근 타 지역 학생들의 입학과 전학이 이뤄지고 있다.

원일 스님은 "불교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최고의 포교인 것 같다. 매년 수 백명의 학생, 학부모들과 만날 수 있고, 불교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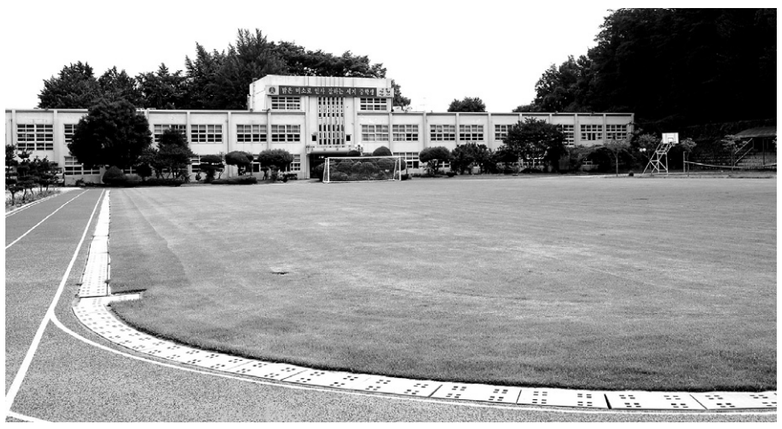

원일 스님

스님이 퇴색돼 가는 지역 학교를 인수해 명문학교로 만든 것은 '지역민들과 함께해야 불교가 산다'는 포교의 큰 염원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미륵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16년 동안 '미륵사 장학회'를 통해 장학 사업을 해왔다.

스님은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이 사찰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며 "우리아이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찰이 되면서, 도리어 많은 신도들의 방문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시골학교의 특성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시골학교일수록 조손가정이 많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현재 100~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 학교인근의 사유지를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학교운영 외에도 어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26일 나주 봉황면 백양실버타운(대표 원일)은 20여 평의 법당을 개원했다. 행사에는 지선 스님(前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용흥사 주지)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2008년에 개원한 백양실버타운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전문요양시설이다.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전문학교'로 지정된 세지중학교는 나주지역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교운영이 최고의 포교"
특성화 교육으로 전문학교 인정
인근 지역 전학 학생 몰려

이곳에는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50여 명의 어른들이 생활하며, 전문적인 치료와 웃음치료, 실버치료, 미술치료, 생신잔치, 발마사지 봉사, 목욕봉사와 같이 지역 불교단체의 자원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백양실버타운은 공개살림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위상이 높다.

스님은 "나주지역은 노인도 많지만 요양시설도 많다. 사회복지시설은 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해야한다"며 "현재 신도들의 자발적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원일 스님은 향후 "재가불자를 위한 요양시설과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1만 여 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구사, 7월 17일 삼존불 점안법회

9월 용궁제, 진신사리 봉안법회 등 예정



제천 용구사는 7월 17일 삼존불 점안식 및 금당법성 큰스님 설법대법회를 봉행했다.

월악산 제천 용구사(주지 지우)는 7월 17일 삼존불 점안식 및 해수관음상 조감도 커팅 법회를 봉행했다.

타고와 법패 의식에 이어 진행된 법문에서 용구사 회주 법성 스님은 "무엇을 바라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하다보면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중생들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정심을 갖고 매일 매일 기도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지 지우 스님은 "용구사는 천룡이 청풍호와 충주호를 휘감아 에워싸고 부처님께 승천해탈하는 기상을 갖고 있는 사찰"이라며 "이번 법당 개원을 통해 앞으로 1백일 기도를 신도들과 함께 하며 소원성취를 이루는 와불용궁기도 도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회장 김영규 거사도 "삼보님과 일체 중생에게 온갖 정성 바쳐 공양하고 받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모든 중생에게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했다.

또한 이날 법회에서는 그동안 법당 개원을 위해 힘쓴 노정한 대표(불교조각사), 성문 스님(서울 관음사 주지), 조서윤씨 등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됐다.

한편 용구사는 8월중으로 사찰 홈페이지를 오픈 할 예정이며, 9월에는 용궁제를 비롯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법회, 방생도량 전국 성지순례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천 용구사=김주일 기자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콩 산업 육성 나서

저절로 생협, 광주콩종합센터 위탁업체 선정 7월 18일 협약식



저절로 생협은 광주콩종합센터 위탁업체로 선정돼 7월 18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 부설 '저절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6월 26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 최영호)에서 광주콩종합센터 위탁업체로 선정돼 7월 18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광주콩종합센터는 남구청에서 콩(장류)산업을 육성하고 콩센터 한옥건물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광주콩종합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해 최종 선정됐다.

저절로생협은 향후 2년간 ▷콩(장류)산업의 육성 진흥 ▷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 ▷생산판매 및 창업지원 ▷요리 및 공예보급 ▷문화예술·교양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저절로생협 담당자는 "향후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체험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콩종합센터는 남구 압촌길 78 일원에 4329㎡ 부지에 한옥 3동, 콘테이너 1동 크기로 지난달에 준공됐다.

한편 저절로 생협은 지난 2011년 8월 지역 불교신도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된 불교생협이다. '저절로'는 '세상사 모두를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如自然·ever nature)'는 뜻으로, 자연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살자는 이 조합 설립정신이 담겨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불자 공무원 내장사 여름 수련회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남구청 소속 불자 공무원들이 7월 14~15일 1박2일 일정으로 정읍 내장사(주지 지선)에서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다.

대웅전서 입재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내장산 국립공원측의 생태숲 안내에 이어 숲길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발우공양, 참선, 생태숲길 명상, 촛불명상, 새벽예불, 운력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다음날 참가자들은 내장산 산내암자인 원적암, 벽련암을 순례하는 암자순례를 마지막 일정으로 회향했다.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수련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충전한 후 국민을 불보살같이 대하는 공무원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8산사 순례단 4년만에 선운사 방문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단이 7월 15일 4년만에 선운사를 방문해 참선, 108배, 사경 등을 실시했다.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단 (단장 혜자스님)은 7월 15일 4년 만에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를 찾았다. 장맛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600여 명의 불자들은 2008년에 이어 2번째로 선운사를 방문했다.

선운사 앞마당을 가득 메운 순례단은 참선, 나를 깨우는 108배, 사경 등을 마치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108산사 순례단은 선운사에서 운영하는 고창 종합복지시설 기금조성을 위한 지역 특산물 판매 행사에도 동참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순례단이 성지순례는 물론 우리 농촌사랑운동을 펼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혜자스님은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과 함께 방문기념으로 천왕문 옆에 백일홍나무를 심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1차 7월 25~27일
2차 8월 9~11일

경주서 청소년 꿈 영근다

불국사, 동대경주캠퍼스 제1회 템플스테이

경주하면 떠오르는 사찰,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경주 불국사가 최초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 스님)와 경주 동국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에서 제1회 템플스테이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 유산인 불국사는 첫 템플스테이 진행을 겸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연계한 청소년 심화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수학여행 등에서 관광으로만 느꼈던 신라불교문화와 민족전통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청소년 여름수련회는 크게 천년역사탐방, 템플스테이, 힐링 프로그램 체험으로 진행된다. 천년역사탐방은 불국사 석굴암, 문무대왕릉, 감은사, 분황사 등에서 전문해설사를 통해 불교문화와 민족전통을 느끼도록 구성됐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 금정생활관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전통 등 만들기, 108배, 탁본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최성애 HD마음뇌과학연구센터소장의 '감정코칭을 통한 관계 방식'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돼 청소년의

감정코칭 특강, 심신 치유
천년역사탐방·명상 등 진행

심신 치유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백로 서식지서 불국사 스님들의 지도하에 명상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수련 일정은 1차가 25~27일이며, 2차는 8월 9~11일까지다. 각각 2박 3일의 일정이며 8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불국사 첫 템플스테이에 대한 기대는 크다. 김영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염되지 않은 고도인 경주에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아름다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머무르는 동안 지친 심신을 복돋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선센터 청소년 템플스테이의 한 장면. 불국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코칭과 명상 등 다양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영희 불국사 템플스테이 팀장도 "미래 천년을 책임지는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찰 체험 뿐 아니라 힐링을 통한 자기성찰,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불국사는 이번 첫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템플스테이관 마련 등 불교문화 알리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불국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www.bulguksa.org)에서 볼 수 있다. (054)746-0983

손문철 대구지사장

故 동봉 이인희 거사 49재

7월 15일 운문사서, 300여 불자 극락왕생 발원

억수같이 퍼붓는 장마비 속에서 故동봉 이인희 거사〈사진〉의 49재가 7월 15일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서 봉행됐다.



지난 초파일 새벽, 89세로 유명을 달리한 故동봉 거사는 1972년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고, 부산불교학생회를 창립하여 청소년 포교와 불교신행단체에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당시 불모지였던 부산 불교계에 불심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운문사 승가대학 후원과 사리암 불사를 주도하여 학인스님들이 공부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동봉 거사 49재에서 〈무상게〉를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지수화풍의 사대가 헛되고 헛되니 아낄 것이 없다. 운문사의 대부이신 이인희 거사의 무주상 보시는 열반에 들고자 하는 무상함의 실천"이라고 추모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고법, 주지임명 사찰권한 판결

사찰이 종단에 등록한 뒤에도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다면 주지 임명권이 사찰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7월 5일 울산 용암사 이사회가 태고종을 상태로 낸 주지 임명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암사는 태고종에 등록한 뒤 건물과 토지 등 재산을 태고종에 출연하지 않고 독자적 재산권을 행사해 왔으므로 독립 사찰로 봐야 한다"며 "이사회 동의 없이 태고종이 한 주지 임명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태고종 정관에도 재산 출연 사찰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68년 창건된 용암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종단이 임명해왔다. 이사회에서 2006년 주지를 제명하기로 했으나 종단에서 재임명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구불교사암聯 제11대 회장 경희 스님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제11대 회장에 대구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대구사원연합회는 7월 17일 프린스 호텔에서 前동화사 주지 무공 스님과 前조계종 원로의원 원명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경희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듯이 이제 비구니 스님들도 비구 스님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연합회와 불교를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축하 화환과 축의금 대신 받은 20kg들이 쌀 200포대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인사 학인 스님 13명 자비행 펼쳐

해인사 학인 스님들이 무더운 여름 복지관을 찾아 자비행을 펼쳐 눈길을 끈다.

해인사에서 평소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던 학인 스님 13명은 7월 13일 '거창군삶의쉼터'를 찾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탁발로 모은 50만원으로 구입한 선풍기 8대를 전달했다. 또 이날 스님들은 거창 죽림정사(주지 일광) 신도들과 함께 13일 복지관을 찾은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점심 공양 및 환경미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현장에서는 '아싸음향'에서 제공하는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전문노래강사 지도 하에 '앗싸음향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노래교실'이 진행되기도 했다.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도영 스님은 "어려울 때 마다 잊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지역사회업체와 스님, 불자님들께 복지관 직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지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삶의쉼터'는 7월 25~27일 국립서울맹학교 안마봉사단 다손봉사회(회장 김남규)와 평소 안마혜택을 접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마서비스'를 실시한다.

경남 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현대불교신문사·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몸이 불편한 이를 제외하고는 사찰환경을 위해 경내에서 차량이용을 삼가해야 한다. 사진은 경남의 ㅅ사찰. 이 절 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들도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다.

절 마당이 주차장인가

절 입구에 '하마비' 세운뜻 알자
사찰 환경 해치는 '나만 편하자'

산사 가는 길 한쪽에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진 경우를 간혹 본다. 하마비는 말에서 내려야 함을 알리는 작은 석비(石碑)인데, 선암사나 송광사 가는 길에는 오래 전에 세워진 하마비가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절가는 길에 하마비가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말에서 내려서 걸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하마비는 주로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궁궐, 종묘, 왕릉 같은 왕실관련공간이나 서원이나 향교와 같은 유교공간의 초입에 세워져있다. 사찰에 세워진 하마비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삼보를 모신 사찰에 출입할 때는 예를 갖추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더불어 조선시대에는 불교에 대한 사대부들의 횡포를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옛날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도 사찰에 갈 때는 걸어 들어가야 했던 것이 상례였으니 이것은 삼보에 대한 절대적인 존숭의 일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어찌 성역에 들어가면서 감히 말위에 앉아 거들먹거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을 보면 이 작은 석비에 새겨진 하마비라는 세 글자는 그 위력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사는 세상이다. 차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니 이해함직도 하다. 예전 같으면 감히 차가 다닐 수 없는 깊은 산사에도 아스콘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차들이 거침없이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맑은 공기와 개울가득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가로이 걷고 싶어도 주저 없이 달리는 차 때문에 걷기가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차를 몰고 절 앞에까지 들어간다 해도 제대로 된 주차장이 있을 리 없다. 고찰에 어디 예전부터 주차장이 있었겠는가. 그러니 절 마당에까지 차를 세우는 무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안중에도 없다.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해야할 불자들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네 절집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마음부터 내야한다. 자기 편하기 위해 차를 몰고 산 깊은 곳에 있는 사찰에 가는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이들이 차를 두고 걸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찰은 맑고 밝은 환경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다. 녹색혁명은 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이성계가 '새나라' 꿈꾼 석굴암에 '金九' 친필이…

⑥ 북한산 사패능선길 그리고 회룡사, 석굴암



갈림길이다. 두 개의 이정표 사이에 섰다. 누군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했다. 아름다운 길을 남겨두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길을 가기로 했다. 아름답게 남은 길은 북한산 둘레길의 16구간 '보루길'이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길은 사패능선길이다.

숲 앞에 섰다. 모든 산들이 다자란 아이 같다. 신록을 기다리던 때가 얼마 안 되었는데, 언제 저렇게 숲이 되었을까. 생사(生死)가 산 아래 지붕 밑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보루길'과 '사패능선길'이 한 곳에서 시작된다. 의정부시 회룡탐방지원센터에서 200m 지난 곳에서 보루길이 시작된다. 보루길 시작점에서 사패능선길과 갈라진다. 회룡탐방지원센터까지는 전철 1호선 회령역에서 하차 후 3번 출구로 나와 호원동 한국개나리아파트까지 15정도 걸으면 된다.

두 개의 길을 놓고 망설인 이유는 회룡사 때문이다.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보루길이었다. 회룡사에 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 와보니 회룡사는 보루길에 가까이 있을 뿐 보루길로는 갈 수 없었다. 회룡사는 사패능선길에 있었다. 사패능선길은 회룡탐방지원센터에서 사패능선까지 약 2.5km 길이다. '둘레길'은 아니지만 절이 있는 길이다. 1km 정도 오르면 회룡사와 회룡사 암자인 석굴암이 있다.

가파른 길이다. 길옆으로는 계곡이다. 가뭄을 견딘 계곡엔 세찬 물줄기가 흘렀다. 물소리가 잦아들고 도량이 나타났다. 회룡사다.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다. 1977년 봉선사에서 발행한 〈봉선사본말사약지〉에는 681년(신라 신문왕 1) 의상(625~702) 스님이 창건했으며, 법성사라 불렀다고 창건에 대해 적고 있으나, 다른 기록에서는 그와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조선 초 창건설도 무시할 수 없다. 회룡사를 이야기할 때, 무학 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몇 가지 이야기 중 하나다. 1384년 이성계는 무학 대사와 함께 지금의 회룡사 자리에서 개국성취를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이성계는 옆 석굴암에서, 무학 대사는 지금의 회룡사 자리에서 각각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그 뒤 이성계가 동북면병마사라는 직책을 받고, 요동으로 출전하자 스님은 홀로 남아 절을 짓고 손수 만든 관세음보살상을 모시며 그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왕위에 오른 이성계가 돌아와 임금이 돌아왔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회룡사라 했다는 것이다. 1630년(인조 8) 예순

무학대사 손수 관음보살 모시고
개국염원하는 이성계 위해 기도
김구 머물던 석굴암엔 총성과 들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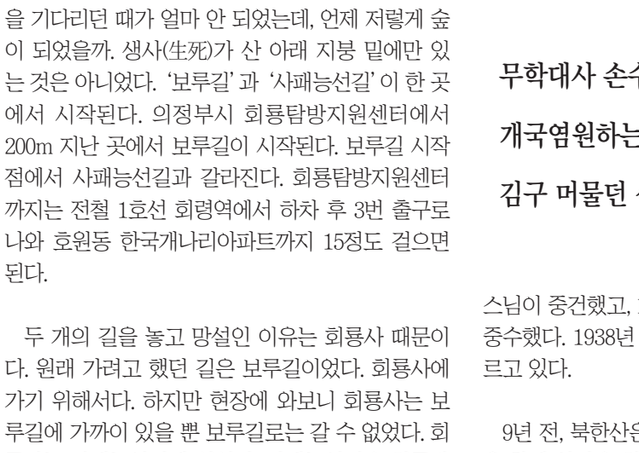
스님이 중건했고, 1881년(고종 18)에는 최성 스님이 중수했다. 1938년 순악 스님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9년 전, 북한산은 시끄러웠다. 최소한 60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회룡사도 편할 수 없었다. 회룡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망루가 하나 있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철마선원에 세워진 망루였다. 그 망루 꼭대기에는 'NO TUNNEL'이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산을 뚫어 터널을 내느냐 마느냐로 내겠다는 쪽과 내지 말라는 쪽이 대립하고 있을 때였다. 철마선원은 터널을 반대하는 스님들이 세운 선원이었다. 결국 망루는 스러지고 터널은 뚫렸다. '사패산터널', 그 터널은 지금 회룡사 옆을 지나간다. 세월만한 약도 없다. 북한산은 이제 시끄럽지 않다. 누구도 '북한산'을, '터널'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땅속 4km의 터널 속으로 쉴 새 없이 자동차들이 달릴 뿐이다. 마당 한 켠에서 관세음보살이 북한산을 내려다본다. 스님 두 분이 어딘가 다녀오는 길인 것 같다. 어딜 다녀오시는 걸까. 밀짚모자 위로 구름이 걷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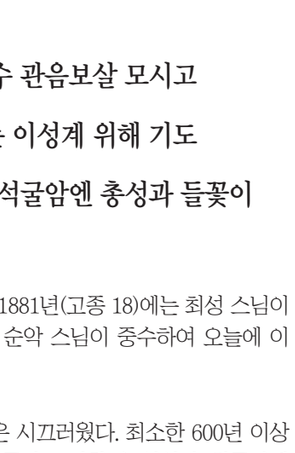
구름이 물러가고 뙤약볕이 쏟아진다. 회룡사 옆에는 산내 암자인 석굴암이 있다. 1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무슨 이유인지 회룡사와 석굴암 사이엔 길이 없다. 길 대신 작은 숲이 들어서 있다. 석굴암을 가려면 회룡사를 나와 왔던 길로 500m 정도 내려가서 왼쪽 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 길은 더 가파르다. 온갖 벌레들이 가파른 길에 매달려 울어댔다. 긴 잉태의 시간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그들은 이 여름의 며칠만을 울다가 이내 별처럼 사라진다.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볼 수 없다. 뙤약볕 속으로 증발하듯 그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석굴암이 보였다. 석굴암은 입구가 특이하다. 커다란 바위 두 개가 담장과 문을 이루고 있다. 바위 울타리 앞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깃발처럼 서있다. 깃발 위로 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멀리서 작은 새들도 날았다. 작은 새는 자주 날았고, 큰 새는 자주 날지 않았다. 그 때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왔다. 소나무에 한참을 앉아있던 수리가 날아갔다. 인근 군부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석굴암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 무학 대사와 함께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며, 백범 김구 선생이 상해로 망명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해방 후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어 돌아온 김구 선생은 석굴암에 자주 들렀다. 북한산의 자연 속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석굴암 법당을 이루는 바위에는 '石窟庵', '佛', '金九' 등 그때 남긴 김구 선생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 친필 '金九' 위로 다시 수십 발의 총성이 지나간다. 총성이 지나간 산기슭을 따라 꽃들이 돋아있다. 무겁고 차갑고 막연한 총성이 그토록 가까이서 매일 '金九' 위를 날았고, 숲은 무겁고 차갑고 막연한 그 총성의 궤적을 노란 들꽃으로 지우고 있었다.

허리 굽은 공양주가 절을 나선다. 내리막길을 이슬비처럼 내려간다. 안 걷는 듯 멀어져간다. 북한산 사패능선길에는 '새나라'를 꿈꿨던 두 사람의 도량이 있다. 한 사람은 나라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가지지 못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고 누군가 말했다.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박완서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중에서. 누구나, 가고 싶었지만 못가본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씩 있다. 길 하나를 남겨두고 산을 내려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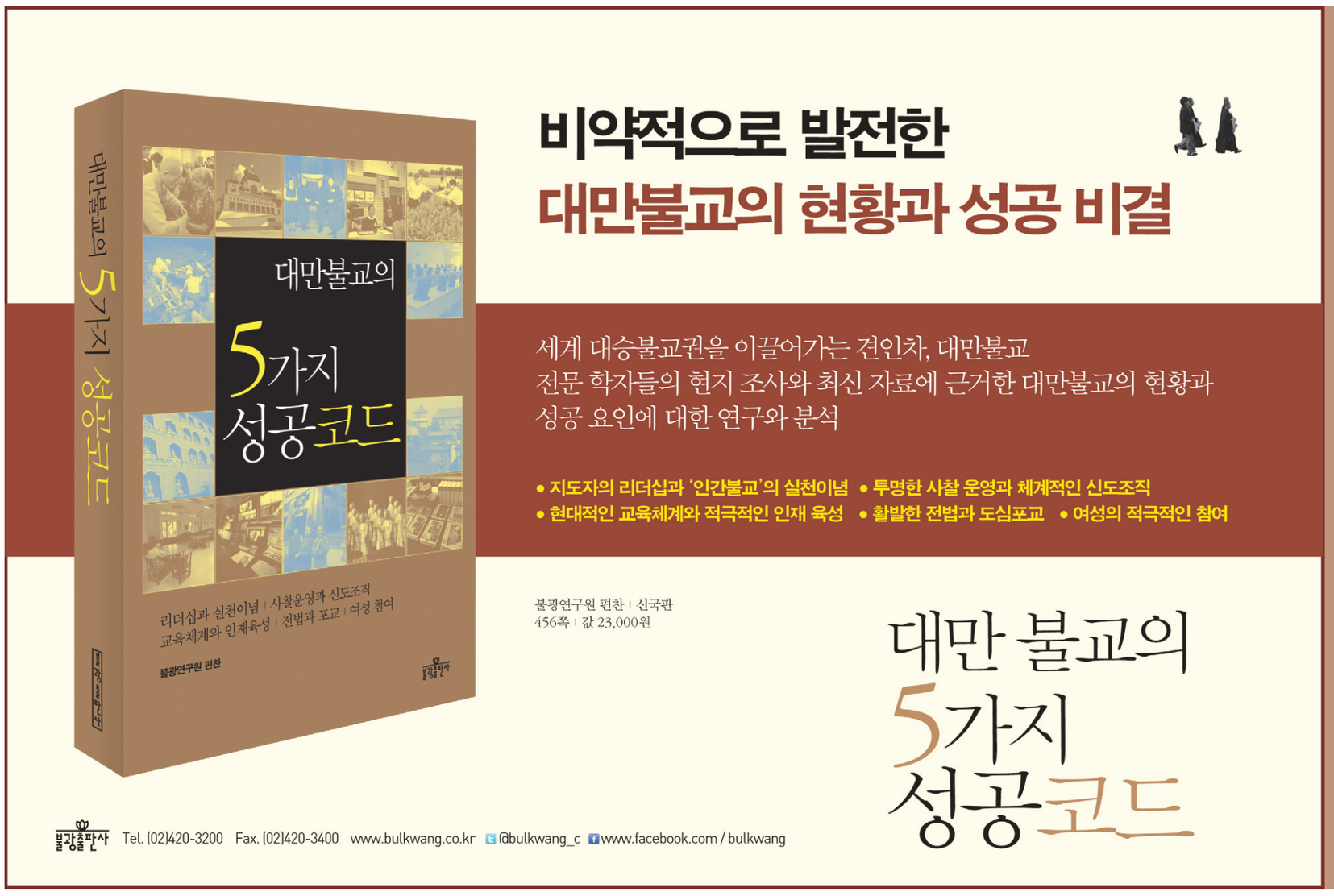
백범 김구 선생은 석굴암을 찾아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북한산 사패능선길



무학대사는 전장에 나간 이성계를 위해 기도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이성계는 절 이름 법성사를 회룡사라 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 비결

세계 대승불교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대만불교
전문 학자들의 현지 조사와 최신 자료에 근거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분석

•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간불교'의 실천이념 • 투명한 사찰 운영과 체계적인 신도조직
• 현대적인 교육체계와 적극적인 인재 육성 • 활발한 전법과 도심포교 •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불광연구원 편찬 | 신국판
456쪽 | 값 23,000원

대만 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세계 (상·하)



글 자현 스님

때론 오해가 빚어낸 역사가,
때론 가슴 절절한 신앙이 오롯이 담겨진
'사찰'에 대한 종합 안내서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종교부문
베스트셀러

언론이 주목한 바로 그 책!

엉뚱하게 알려진 상식은 바로잡고 사찰 곳곳의 은유와 상징들을 설명한다. - 동아일보

비교문화·종교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에 녹아있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들춰낸다. - 중앙일보

크고 작은 의문들이 자연스레 풀려간다. 330여 장의 컬러 사진과 다양한 그래픽도 이해를 돕는다. - 조선일보

"문화를 보는 눈은 종교를 보는 눈과 다르"며
"(절집을) 불교적 시각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만"
이라는 죽비소리, 시원하다. - 한겨레

상하 각 320쪽, 312쪽 | 올컬러
가격 각 22,000원

생태사회와 불교
연재를 시작하며

연기적 가르침으로 '녹색' 세상 다시 만들자


2005년 명동 한복판에서 진행된 에코붓다의 '빈 그릇 운동' 홍보행사. 불교계 환경운동에서 국민운동으로 발전한 '빈 그릇 운동'은 연기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성장사회의 이분법적 사고 지구위기 초래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생태주의와 일치
'일즉다 다즉일' '그물망 관계' 세상이 주목
6월 20~22일 '리우+20'… 선진국 절약 강조

환경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간은 경제성장을 발전의 척도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산업혁명이후 불과 100여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전 수 천년 보다 몇 배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회로 급성장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가장 앞선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미국을 몇 십년 노력하면 도달할 것이라는 유토피안적인 미래를 꿈꾸며 노력해왔다. 그러나 1990년을 경과하면서 이러한 미래가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꿈이 아니며 이대로 가면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라 오히려 파국 (Dystopia)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정하게 됐다. 성장 사회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이며, 이는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던 우리들에게 닥친 이 놀랍고 엄청난 위기의 원인을 복기해보기 시작했다. 위기는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연환경의 파괴로 시작됐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환경 문제를 그저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깊이 알고 보니 우리의 잘못된 정치, 경제, 민주주의 등의 제도, 아니 그 보다 더 깊이 우리의 가치관, 사상, 생활 양식등으로 인해 우리들 삶속에 보이지 않게 겹겹이 문제로 축적됐고 그것이 약한고리인 환경의 파괴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환경문제는 환경문제로만 인식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위기를 초래한 생각, 가치, 사상은 무엇인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본래 나눌 수 없는 것을 쪼개고, 가르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모든 자연을 기본적으로 기계라고 생각하여 자연과 인간 모두 기계 부속품의 조립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돌고 도는 순환의 시간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선형적 진보의 관념, 이에 더해 수직상승만이 살길이라는 성장관, 태초부터 종말로 향해간다는 기독교적 직선적 세계관이 바로 오늘날 환경위기를 초래한 세계관이라 말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일은 단순히 물과 대기, 온난화만의 문제로 풀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절감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기에 환경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생태적 사고'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생태적 사고란 쪼개고, 가르고, 나눠 분절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긴밀히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이다. 모든 것은 각자 촘촘히 그물망처럼 관계돼 있다는 생각,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안에 하나가 있다는 사고이다. 그러한 세계관과 사상에 입각해서 다시 세계를 바라보니 모두가 달라 보인다. 어제의 것이 어제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다. 맞다. 바로 부처님 연기법 (緣起法)이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등, 우리 불자들에겐 너무도 익숙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처님이 말씀해 오신 연기적 가르침이다. 바로 불교의 근본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를 걱정하는 눈맑은 사람들은 생태적 세계관인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으로 돌아가 세상을 그 시각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사상과 실천이 불교와 불교 전통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불교를 주목하는 이유다.

생태적사고는 곧 연기적사고, 관계망적 사고

생태주의, 생태라는 말은 바로 관계적 사고, 그물망적 사고이다. 공해 (Pollution)이나 '환경 (Environment)'이라는 말로는 근본적 가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생태', '생태주의(Ecology)'라는 더 깊은 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한 사회정치를 '녹색(Green)'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쓴다. 녹색은 당연히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녹색'의 안에는 환경과 생태주의를 포함하며, 여기에 더해 분권화, 비폭력, 사회적 책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 수많은 생명에 대한 연민과 그들을 위한 '돌봄'이라는 의미가 녹아서 통칭 '녹색'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또한 녹색은, '청색'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적색'으로 표현되는 사회주의가 하나같이 물질적 풍요만이 진보라고 생각했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생산력주의 사회를 만들어 오늘과 같은 위기와 절멸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청색과 적색이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 이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의 '녹색'이다.

녹색이나 생태적 깨달음의 강을 건넌 뒤 바라보는 시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복지'를 바라보는 안목도, '통일, 경제, 심리, 문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른 것이 보인다. 일종의 생태적 의식화라고 할까? 이런 생태적 각성이 없는 사람을 '생태맹'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태적 재의식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돈의 관점, 인간중심의 관점, 유물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와 자연을 왜곡해 보게 된 것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불교가 말하는 연기적 세계관, 부처의 눈으로 본 시각과 일치한다. 어쩌면 과거에는 부처님이나 예수님 등 소수의 사람만이 터득했던 깨달음을, 환경위기를 앞두고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6월 20일~22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199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언했던 유엔환경회의가 있은 지 20년을 기념해 '리우+20'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20년간의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각 국가들이 역시 자국중심의 경제 우선정책이었고, 환경이나 생태문제는 언제나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잘사는 나라를 향해 '가난한 나라가 써야할 자원을 모두 독점하고 미래세대가 써야할 자원까지 빼앗아 현재의 풍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 잘사는 나라들은 '생태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빚을 가난한 나라에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잘사는 나라들의 소비를 줄이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 소박한 삶이 이제 불자들 개인의 삶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강제되는 규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흐름속에, 불교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공해', '환경' 정도의 인식만으로 멈춰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깊이 풍부한 '생태와 녹색, 생명'의 세계관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해볼까 한다. 생태주의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 연기적 관점으로 본 대안사회의 얼개를 찾아보고 모색하며, 매주 이를 소개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려 한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연구소 연구원

불교사상 기반한 생태운동 20년

본명은 유길용, 법호는 법운(法雲)이다. 1960년생으로 79년 국민대 건축과를 다니던 중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수배를 받다가 85년 우연히 절에 들어가 기도 하게 된 것을 인연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불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공부 하게 되었고 1년간 구속된 뒤 감옥에서 나와 86년부터 인연이 된 법륜스님을 비롯한 도반들과 불교사회 활동을 했다. 이후 88년 정토회서 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불교사회교육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일했다. 그러다 91년 이를 '한국불교환경교육원'으로 개칭해 불교내 최초의 환경운동단체로 활동했다. 2000년 다시 '에코붓다'로 명칭을 바꾸고, 사무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대표로 맡아오면서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생태주의운동을 20여년간 펼쳤다.

에코붓다는 사회환경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생태주의, 생명운동과 녹색운동의 사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실천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2000년들어 불교의 전통을 기반으로 생태친화적 대안적 생활양식을 전개하는 단체로 위상을 바꾸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60만명이 넘는 '빈그릇운동'등 친생태적 생활양식의 실천을 대사회적 캠페인으로 성공리에 이끌어 왔다.

86년부터 법륜 스님 등과 불교사회운동
에코붓다 대표 맡아 녹색운동 전개

2001년 9.11테러 이후 전쟁이 끝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구호활동과 마을개발협력활동을 카불과 칸다하르, 바미안 등지에서 만 4년간 활동 했다. 이때 경험한 난민지원, 마을개발, 긴급구호활동을 통해 가난한 나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개발협력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과 NGO활동 등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아프간 사업을 철수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정토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평화재단' 기획실장을 맡아 재단 초기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일을 했다. 평화재단은 남북화해와 통일문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등을 50여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개발을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식을 계몽하고 여론을 만들며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동북아의 실질적인 평화공동체가 남북문제 해법에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2010년 12월부터 1년간 일본 중앙학술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일본의 환경단체, 평화단체, 지역운동과 불교단체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했다.

또한 현재는 에코붓다 이사, 평화재단 기획위원으로 생명 생태, 녹색운동의 대안적 비전과 연대를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산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정책분과, 지속가능분과 위원이나 총무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귀농운동본부 부본부장, 이사, 서울 한 살림지도위원, 모심과 살림연구소 이사, 등 역임하며 '생명운동과 생태' '국제개발협력' '남북화해와 통일' '동북아평화네트워크 구축' '불교의 사회화운동과 대안운동' 등을 중심 키워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모전명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 공모전	불교문화유산답사기 공모전
목 적	불교문화와 IT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IT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플래시 제작)를 제공함으로써, IT 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함.	중·고교생, 대학생 및 일반인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일정	- 접수기한 : 2012년 8월 20일(월) - 1차 심사 및 선발 : 2012년 8월 22일(수) - 사전 제작지도회의 : 2012년 8월 30일(목) - 제작 기간 및 제출기한 : 2012년 8월 31일 ~ 10월 19일 - 수상작 발표 : 2012년 10월 25일(목) - 시상 : 2012년 11월 7일(수)	- 접수기한 : 2012년 8월 20일(월) - 1차 심사 및 선발 : 2012년 8월 22일(수) - 답사기 준비 및 제출 기한 : 2012년 8월 23일 ~ 10월 19일 - 수상작 발표 : 2012년 10월 25일(목) - 시상 : 2012년 11월 7일(수)
출품과제 및 선발팀 수	- 지정과제 : 3팀 - 일반과제 : 10팀 ※ 지정과제 및 일반과제 중복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불교문화유산 답사기: 50개 팀 ※ 개인지원 가능하며 팀 구성 시 지도교사와 학생으로 팀 구성이 가능함
참가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중·고교 교사 및 학생 단일 구성 팀	- 대전·충청권 중·고교 및 대학생(휴학생 포함)
	※ 최근 3년(2009. 7. 1 ~ 2012. 6. 31)내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유사 콘텐츠 공모전에 공모 당선된 작품은 제외	
제작지원경비	- 지정과제 : 3팀(각 팀별 300만원) - 일반과제 : 10팀(각 팀별 100만원)	- 1인팀 : 10만원 - 2인 이상팀 : 30만원
시상내용	⊙ 대상(1팀) : 500만원 ⊙ 우수상(2팀) : 300만원 X 2팀 =600만원 ⊙ 장려상(3팀) : 100만원 X 3팀 =300만원	⊙ 대상(1팀) : 300만원 ⊙ 특별상(1팀) : 200만원 X 1팀= 200만원 ⊙ 우수상(3팀) : 100만원 X 3팀= 300만원 ⊙ 장려상(12팀) : 30만원 X 12팀 = 36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www.ggu.ac.kr) 참조



출가 7일만에 오온 관찰…일체 고뇌 벗어나

② 신통제일 목건련目犍連

〈상〉귀의

사리불과 함께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목건련 이야기다. 신통제일로 불렸던 그는 평생지기인 사리불과 함께 교단을 살피고 제자들을 이끌었다. 특히 교단 초기, 외도들로부터의 시기와 저항에서 교단을 구하는데 공이 컸으며, 십대제자 중 제일 먼저 열반에 들었다. 그 열반은 순교였다.

최상의 진리를 만나다

꼴리따(목건련의 귀의 전 이름)는 우빠띳사(사리불의 귀의 전 이름)와 함께 산자야 문하에 있었다. 어느 날, 우빠띳사와 함께 생사의 덧없음을 느낀 그는 생사의 덧없음에서 벗어나게 해줄 스승과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날도 꼴리따는 산자야의 수도원에 있었다.

"꼴리따!" 멀리서 우빠띳사가 달려온다. "무슨 일인가? 자네 얼굴이 뭔가 좋은 일이 있어 보이네." 우빠띳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꼴리따에게 말했다. "드디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어. 그 가르침과 스승을 찾았다구!" 우빠띳사는 앗사지로부터 들은 게송을 꼴리따에게 들려준다.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 여래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

꼴리따 역시 게송을 듣는 순간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목건련의 귀의는 사리불의 귀의와 이야기를 같이 한다. 꼴리따는 스승 산자야의 만류를 뿌리치고 우빠띳사를 따라 부처님이 계시는 죽림정사로 향한다. "길을 열어주어라" 부처님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거두시어 세존의 문하에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구족계를 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라 비구들이여, 불법은 참으로 잘 설해졌도다. 고를 멸하기 위해 청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

부처님이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 있던 비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상수(上首)다." 부처님이 꼴리다와 우빠띳사 머리를 손수 잘라 주시고 불명(佛名)과 가사를 내린다. 목건련과 사리불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겠으나, 두 사람의 불연은 지금의 불교가 있게 한 가장 큰 인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에서 출가를 결심한다. 그리고 고행 끝에 모든 고통의 원인과 결과와 해결의 길을 관찰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와 자비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른바 저것이 생기므로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며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 또한 멸하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느니라. 곧 무명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생겨나며 무명이 사라지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사성제로 고통의 사슬을 끊고 중생을 제도할 신통을 얻게 된다. "이제 어둠의 세계는 타파되었다. 내 이제 다시는 고통의 수레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리. 내 이제 광명의 법바퀴를 굴리러 바라나시로 가노라. 맹목과 미혹의 어둠 속에 헤매는 중생을 위해 진리의 북소리를 울리고 감로의 문을 열리라"

1250 대중의 '완성'

이제 부처님은 중생 제도의 길에 나선다. 그리고 교화 과정 45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자 목건련과 사리불을 만나게 된 것이다.

목건련의 귀의로 부처님의 교단은 이제 야사와 그의 친구들, 가섭 3형제와 1000명의 비구 대중, 사리불과 목건련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귀의한 250명의 제자를 합해 1250여 명의 비구대중을 형성한다. 〈금강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 첫머리에 '이때 부처님께서는 1250여 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계셨다' 라는 서술이 나오는데 그 1250명은 바로 이때 형성된 것이다.

앗사지의 게송을 듣고 불법 만나
부처님 대신 설법, 교단문제 수습
부처님 왼편서 승단 골격 세워
"욕망 벗어나 열반 성취한 수행자"



그림 · 김홍인

이들은 모두 수행력이 깊었으며 그동안 자신들이 가장 숭앙했던 부처님께 귀의했기에 돈독한 신앙심으로 승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목건련과 사리불은 부처님의 왼편과 오른편을 각각 지켰다고 할 만큼 승단 질서를 바로잡고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한다.

목건련의 신통력은 천상의 천인들과 대화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엄지발가락으로 제석천이 사는 궁전을 흔들어대기도 하고, 동원정사 건축의 감독을 맡아 9개월 만에 완성시키기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또 신통력으로 여러 세계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교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악처에 떨어진다고 설해 수많은 이교도 신도를 교화시키는 등 수많은 활약을 하게 된다.

목건련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에 따라 신통력을 갖추는 장면 또한 흥미롭다. 그는 몸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지수화풍 4대와 몸과 마음의 다섯 가지 모임인 5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깊이 관찰한다. 이를 통해 삼매를 체험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해 일체의 고뇌로부터 벗어나 신통력을 갖추었다. 출가한지 7일 만의 일이었다.

아라한과 증득 천인들과 대화

그는 이 과정에서 혼침(昏沈)에 빠져 비몽사몽의 상태가 되었다. 그때 마침 지나던 부처님께서 혼침에서 벗어나는 8단계의 법을 설한다. "첫째, 어떤 인식이 일어났을 때 혼침이 생겨 계속 거기에 머물면 집중하며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해라. 둘째, 법을 사유하고 고찰해 스스로를 자극시켜라. 셋째, 배운법을 자세하게 독송하라. 넷째 두 귓볼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문질러 몸을 자극해라. 이를 통해 마음의 반응을 관찰해보아라."

이렇게 해도 혼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음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라고 충고한다. " 다섯째, 물로 눈을 씻어내고 사방을 둘러보며 먼 곳을 쳐다보아라. 여섯째, 마음속에 광명을 생각하며 마음을 집중하라. 일곱째 감각 기능을 안으로 돌이켜 내면을 관찰해보아라. 여덟째 정지정념의 상태에서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 보아라"

목건련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관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배운다. 마음이 의기소침하면 들뜨고 단속하지 못하고 삼매로부터 멀어짐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해, 혼자 앉기에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마음을 집중해 탐욕과 집착 갈등을 소멸하여 스스로 온전한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7일간의 짧은 수행을 통해 목건련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거듭난다. 목건련에 대한 부처님의 신임은 〈법구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때 몇몇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목건련은 아직도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으며, 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목건련은 세상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는 니르바나를 성취한 수행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셨다.

그는 욕망을 구함이 없고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아 의심이 없으며
니르바나를 성취하여 죽음을 초월하였으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이처럼 부처님의 목건련에 대한 믿음은 각별한 것이었다. 부처님은 목건련에게 당신 대신 설법을 맡기기도 하셨고 교단 안의 문제도 수습하도록 했다. 특히, 그의 신통력으로 전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중생들을 교화시키는데 공헌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목건련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목건련 목련존자 혹은 목갈라나라고 부른다. 마가다국 왕사성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꼴리따의 바라문 가문에서 출생했으며,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기 전에는 마을 이름을 따서 '꼴리따' 로 불렸다. 죽마고우였던 사리불과 출가해 산자야의 제자가 되지만 늘 그의 사상에 부족함을 느낀다. 이후 앗사지가 전해준 인연게를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고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후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된다. 목건련은 효심이 지극하기로도 유명하다. 그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통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부처님께 도움을 청한다. 이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게 되는데 이는 우란분재의 효시가 된다. 이후 이교도의 공격으로 죽음을 맞을 때까지 목건련은 초기 불교 교단에 큰 공헌을 했다.

(그림은 조향숙 화백의 석굴암 목건련 판화)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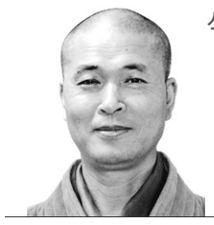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무엇으로 도를 알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학인은 특별한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도 특별한 대답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괴짜군."

問 學人不別問 請師不別答 師云 奇怪

절에 오면 다들 특별한 무엇을 찾는다. 그런데 와서 보면 특별함이란 없다. 남들처럼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곳, 사람이 그저 살아가는 곳이 절이다. 이렇게 평범한 곳이지만 거기서 도(道)와 참 진리, 높은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선사의 말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평범한 말들일 뿐이다. 다만 평범한 말에 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평범한 말이 특별한 말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조주 스님의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이나, '사람 잡는 칼 따위는 쓰지 않는다', '나는 고봉의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다', '뜰 앞의 잣나무' 등의 말은 모두 평범한 말이다. 그 의미를 해득하고 보면 더욱 평범하다는 것에 실감이 갈 것이다.
그런데 특별함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 항상 이분법으로 나누어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 남과 여,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등의 상대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본 〈조주록〉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양변을 떠나서 읽으면 〈조주록〉이나 기타 선사들의 선문답은 그저 아이들이 장남 삼아 떠들어내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삼승교(三乘教)를 떠나서 어떻게 사람을 교화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 세계가 존재한 이래 해와 달이 바뀐 적이 없었어."

問 三乘教外如何接人 師云 有此世界來 日月不曾換

석존이 중생의 근기를 3가지로 나눈 것이 삼승이다. 삼승 중에서 성문과 연각을 합하여 2승이라고도 부르고, 보살승만 따로 떼어서 일승(一乘)이라고도 한다.
일승(一乘)은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평등주의이다.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다 붓다라 칭한다. 보살 이상이 1승이다. 이승(二乘)은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다. 성문은 색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법(法)에 연연해하지 않는 경지이고, 성인 초입에 들어간 사람이다. 연각(緣覺)은 낮은 근기의 수행자로서 겨우 인과법을 듣고 깨달은 자이다.
부처님 말씀에 3승이 있지만 이것은 중생의 근기가 각기 달라 방편으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붓다의 뜻은 오직 일승(一乘)을 전하려고 했을 뿐이라 했다.
조주 선사는 해와 달이 바뀐 적이 없듯이 선사들이 아무리 독창적인 가르침을 편다해도 결국 삼승을 떠나서 따로 가르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선불교가 중국에서 발달한 불교이나 선불교에도 부득이 초급과 고급자들의 가르침이 각기 다르다는 말이다. 애석하지만 선불교 안에도 근기의 차별은 있다. 그대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학승이 물었다. "삼처(三處)로는 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식(識)을 벗어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식(識)이 곧 분 밖의 일이다."

問 三處不通如何離識 師云 識是分外

삼처는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을 말한다. 육근은 눈 · 귀 · 코 · 혀 · 몸 · 뜻의 사람의 여섯 가지 기관을 말하고, 육진은 물질 · 소리 · 향기 · 냄새 · 맛 · 촉감 · 법인데 육근에 닿는 6가지 대상이다. 육식은 안계 · 이계 · 비계 · 설계 · 신계 · 의식계인데 육근에 육진이 닿자마자 향기가 난다, 맛있다 등을 판단하는 작용을 한다.
눈은 색깔을 보고 본 것에 의하여 식(識)이 빨간 색인지 파란 색인지 구분을 한다. 이 구별하는 의식을 식(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보거나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도를 통하지 못한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적 의식으로도 도를 짐작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識)을 벗어나 도를 통할 수 있을까?
조주 선사는 역설적으로 식(識) 자체가 이미 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잘 생각해보아라. 식으로는 도저히 도에 근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식이 없으면 무엇으로 도를 알 것인가.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23〉

여섯 감각기관 육근과 그 인식대상 육경

삼과 – ②십이처(十二處)

십이처(十二處)의 처(處)는 입(入) 또는 입처(入處)라고도 한다. 이는 '처'의 산스크리트어 아야따나(āyatana)에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야따나는 어원학적으로 ā-yat-[들어오는] ana[곳, 것]로 분석되며 '들어오는 장소', '들어오는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들어오는 장소'란 안근(眼根) · 이근(耳根) · 비근(鼻根) · 설근(舌根) · 신근(身根) · 의근(意根)의 육근(六根)을 말한다. 여기서 근(根)은 산스크리트어 인드리야(indriya)를 번역한 말로 '능력'을 의미한다. 즉 안근(眼根)이라는 말은 눈이 가지고 있는 시각 능력을 나타내며, 현대 의학에서 시각기관의 시신경과 같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이근은 청각능력, 비근은 후각능력, 설근은 미각능력, 의근은 지각(知覺)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이 육근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시력을 통해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물이 인간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장소, 즉 통로가 바로 눈이고, 이를 가리킬 때는 안처(眼處)라고 부른다.
안근과 안처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시각능력 자체를 가리킬 때는 안근으로, 안근을 통해 사물이 눈에 들어오는 작용을 가리킬 때는 안처라고 말한다. 나머지 이근 · 비근 · 설근 · 신근 · 의근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하며 이를 합쳐 육내처(六內處)라고 부른다.
그 다음은 육내처의 대상으로 색경(色境) · 성경(聲境) · 향경(香境) · 미경(味境) · 촉경(觸境) · 법경(法境)의 육경(六境)이 있다. 즉 육근 하나하나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눈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소리를 듣는 능력은 없다. 눈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귀가 사물을 구분할 수 없듯이 육근은 각각의 기능에 맞게 대응하는 각각의 대상을 지니고 있다. 경(境)은 산스크리트어 비샤야(viṣaya)의 번역어로 '영역, 범위' 등을 의미하며, 육경의 첫 번째인 색경은 '물질의 범위'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육경은 '들어오는 것'에 해당하며 육외처(六外處)라고 부른다.
이렇게 물질은 눈을 통해 들어오고, 소리는 귀를 통해 들어오듯이 육근과 육경을 짝을 지어 나열하면, 안근과 색경, 이근과 성경, 비근과 향경, 설근과 미경, 신근과 촉경, 의근과 법경이 각각 대응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모두 합쳐 '십이처'라고 한다.
이 십이처에 대해서 각각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처(眼處)는 시각 기관이다. (2) 이처(耳處)는 청각 기관이다. (3) 비처(鼻處)는 후각 기관이다. (4) 설처(舌處)는 미각 기관이다. (5) 신처(身處)는 몸으로 추위나 더위 또는 통증 등을 느끼는 촉각 능력이며 촉각 기관이다. (6) 의처(意處)는 앞에 설명한 다섯 항목이 감각기관 혹은 감각능력인 것과 달리 지각기관이며 지각능력을 말한다. 의근은 지각작용을 관장하는 마음[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7) 색처(色處)는 시각의 대상이 되는 형태와 색깔을 지닌 사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물질 전체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로 한정된다. (8) 성처(聲處)는 청각의 대상이 되는 소리이다. (9) 향처(香處)는 후각의 대상이 되는 냄새나 향기이다. (10) 미처(味處)는 미각의 대상이 되는 맛이다. (11) 촉처(觸處)는 피부에 닿아 어떤 느낌을 일으키는 촉각의 대상이다. 경전에서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요소를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의 4대 요소라고 설하고 있는데, 이 4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촉처가 된다. (12) 법처(法處)는 의근,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 가능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존재와 비존재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처럼 십이처는 인간의 감각과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을 열 두 항목으로 나눠 세계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㉗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쌍윳타 니카야〉

참, 신기한 일이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데, 작은 미풍에도 하늘하늘 춤을 추는데 부러지지는 않는다. 그 어디에,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전형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이다. 물론 그가 겉으로 강인함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더 이상의 고뇌는 없다고,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최고의 높이까지 이르렀다고 선언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옳다, 나에게는 결코 추호의 허물이 없다.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몫이겠지"라고, 무류(無謬)를 주장하면 자신만만해 하지는 않으셨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있어 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카리스마가 넘친다"라고 말하는데 ---. 마치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나 되는 듯이 말이다.
카리스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타자(他者)와 대립하게 된다. 스스로의 신념과 강인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절대적 진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가열찬 투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자칫 돌아오는 것은 탄압과 박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카리스마로 넘치는 지도자가 쉽사리 항복할 리는 없다. 고스란히, 온몸으로, 고난의 칼날 위에 선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엎어진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불굴의 의지에, 불퇴의 신념에 환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우리의 그분은 결코 그런 일로 존경을 구하지 않으셨다. 많은 길벗들과 함께 모일 때면, 그저 한번 씩 물어보셨을 뿐, 그 스로를 한없이 낮추어서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대들에게 청하건대,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일아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308쪽.)
명색 지도자라는 분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니 ---.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다니 ---. 어째서일까? "오직 어진 이만이 큰 것으로써 작은 것을 섬길 수 있다"고 했던, 맹자의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맹자처럼 정치외교적 고려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분에게는 구도의 진지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다만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었던 것이다.
그 앞에 모여든 500명의 제자들이 제자로 보이지 않았다. 정말로 그 역시, 저 신란(親鸞, 1173-1262)스님처럼, "나는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을까? 제자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었을 뿐이었던가? 제자들을 스승으로 삼으셨던 것일까? 이제 더 이상 미혹은 없다, 고 선언하셨던 분이라면 "더 이상 나의 말과 행동에는 허물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셨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말과 행동에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묻고 계신다.



그림 · 박구원

깨친 자에게는 더 이상의 수행은 필요없다는 신화(神話)가 무색할 만큼, 그분은 깨침 이후에도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서 허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영원한 닦음의 화신(化身)이셨다.
우린 무슨 복이 그리 많은가. 다행히, 너무나 고맙게도, 우린 그런 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부처님이시다. 고타마 붓다!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부처님이 좋다.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부처님을, 나는 한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 학생들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의 어떤 것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나 역시 한없이 낮아지고 싶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특 강 안 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하계 철야정진법회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제77회 하계 철야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는 것이 거사풍의 공부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 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2년 7월 27일 (금) 오후 8시부터
2012년 8월 1일 (수) 오후 10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 면담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방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나와 200미터 커핀그룬나루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10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02)3452-3033
■ 준 비 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 림 선 원 서 울 선 원 장 합장



■ **임제선원장 현봉 법현(玄峯 法玄) 선사는…**

- 1952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
- 1987년 장성 백양사로 출가
- 서옹대종사 문하의 시몽화상을 은사로 득도
- 사미계를 받은 후 서옹대종사 시봉
- 1992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 서옹대종사께서 정법을 부촉하신 장실(丈室) 법제자 제산종성(濟山宗成) 선사의 법을 이음
- 경북 상주 임제선원에 주석
- 법문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지난 6월 4일은 불교의 수행 전통인 하안거(夏安居)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안거는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스님들이 선방에서 외부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한국 불교에만 있는 독특한 수행제도다. 국내 최대 불교 종단 조계종에서는 매년 안거 때마다 전국의 100여개 선원에서 2천200여 스님들이 수행에 매진한다.

불조 정전의 법맥을 계승하여 밝히는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은 평소 화두공부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종일 밥이야기만 해야 배가 부르지 않듯이 마음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알음알이로 불법(佛法)을 말하고 배워도 알음알이가 끊어진 참자기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궁극적 목적인 참 자기를 밝히는 최상승 참선공부의 시작과 끝은 조사의 화두(話頭)를 올바로 들어 확철히 깨닫는데 있다" 고 역설한다.

임제회의 참선불자들을 이끄시는 스님은 말세의 눈먼 무리들이 저마다 조사의 격외화두(格外話頭)를 알음알이로 떠드는 모습이 군맹무상(群盲撫象) 격이라 이를 시정코자 본지풍광(本地風光)과 불조(佛祖)의 전기대용(全機大用)을 밝힌 스님의 하안거 결제 상단 격외법문과 제창을 지상(紙上)에 게재하는 것임을 밝혔다. 독자들도 불조의 정법을 배워 궁극적으로 진실한 자기를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佛紀 2556年 夏安居 結制法門

聖 諦 廓 然
성 제 확 연

垂示云
수 시 운

大丈夫秉慧劍하니 如擊石火閃電光이라
대 장 부 병 혜 검 여 격 석 화 섬 전 광

指鹿便能成駿馬하니 叢林分別 莫思量하라
지 록 편 능 성 준 마 총 림 분 별 막 사 량

直指人心別傳旨여 黑似漆兮明如日이라
직 지 인 심 별 전 지 흑 사 칠 혜 명 여 일

許老胡知不許會하니 九九元來八十一이로다
허 로 호 지 불 허 회 구 구 원 래 팔 십 일

擧達磨大師 因梁武帝問하되 如何是聖諦第一義닛고한데 曰廓然無聖이라하고 帝云 對朕者誰오 祖曰 不識이라하니 帝不契어늘 祖遂渡
거 달 마 대 사 인 양 무 제 문 여 하 시 성 제 제 일 의 왈 확 연 무 성 제 운 대 짐 자 수 조 왈 불 식 제 불 계 조 수 도

江至魏하다 武帝擧問誌公하니 誌公이 云하되 陛下還識此人不아 帝云不識이라하니 誌公이 云하되 此是觀音大師라 傳佛心印이니다하니
강 지 위 무 제 거 문 지 공 지 공 운 폐 하 환 식 차 인 부 제 운 불 식 지 공 운 차 시 관 음 대 사 전 불 심 인

帝悔하여 當遣使詔之어늘 誌公云하되 莫道陛下詔하라 闔國人去라도 他亦不廻니다하다
제 회 당 견 사 조 지 지 공 운 막 도 폐 하 조 합 국 인 거 타 역 불 회

拙이 云하되 廓然無聖이여 家貧에 思賢妻하고 國難에 思良相이로다
졸 운 확 연 무 성 가 빈 사 현 처 국 난 사 량 상

對朕者不識이여 東行 不見西行利로다
대 짐 자 불 식 동 행 불 견 서 행 리

雪竇顯이 頌云하되 聖諦廓然 何當辨的고 對朕者誰오하니 還云不識이로다 因玆暗渡江하니 豈免生深棘이리오 闔國人追라도 不再來여
설 두 현 송 운 성 제 확 연 하 당 변 적 대 짐 자 수 환 운 불 식 인 자 암 도 강 기 면 생 심 극 합 국 인 추 불 재 래

千古萬古 空相憶이로다 休相憶하라 淸風匝地有何極고하고 師顧視左右云 者裏還有 祖師麽하고 自云하되 有인댄 喚來與老僧洗脚하라
천 고 만 고 공 상 억 휴 상 억 청 풍 잡 지 유 하 극 사 고 시 좌 우 운 자 리 환 유 조 사 마 자 운 유 환 래 여 노 승 세 각

하니 拙이 云하되 以熱治熱하고 以楔拔楔이로다
졸 운 이 열 치 열 이 설 발 설

佛鑑勤이 頌云하되 始聞樓閣一聲鍾하니 日煖蒼龍睡正濃이로다. 再擊鳳凰臺上鼓하니 夜半祥鸞未飛舞로다 帝基永固如盤石이라 胡僧
불 감 근 송 운 시 문 누 각 일 성 종 일 난 창 룡 수 정 농 재 격 봉 황 대 상 고 야 반 상 란 미 비 무 제 기 영 고 여 반 석 호 승

費盡平生力이로다 遙指小林歸去來하니 春風一經花狼藉로다하니 拙이 云하되 鷄寒上樹하고 鴨寒下水로라
비 진 평 생 력 요 지 소 림 귀 거 래 춘 풍 일 경 화 랑 자 졸 운 계 한 상 수 압 한 하 수

又拙頌云하되
우 졸 송 운

廓然無聖又不識이여 羅浮打鼓蘇州舞로다
확 연 무 성 우 불 식 라 부 타 고 소 주 무

藥因救病出金甁하니 同門出入是讎仵로다
약 인 구 병 출 금 병 동 문 출 입 시 수 오

喝一喝
할 일 할

크게 비어서 성스러움 없다

수시하여 이르되

대장부가 지혜보검을 잡으니
돌을 치자 불이 튀고 번개 치자 번쩍하도다.
사슴을 가리켜 문득 준마가 되니
총림은 분별로 사량치 말지니라.
곧게 사람 마음을 가리켜 특별히 전한 뜻은
검기로는 옻칠 같고 밝기로는 해와 같도다.
노호가 了知(요지)함은 허락하고 頷會(합회)함은 허락지 않으니
구구는 원래로 팔십일이니라.

거하되 달마대사에게 양무제가 묻되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뜻입니까?"
말하되
"크게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다."
무제가 이르되
"짐을 대한 자는 누구입니까?"
조사 말하되
"모른다."
하니 무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조사가 마침내 강을 건너 위나라에 이르니라.

무제가 이 일을 지공대사에게 물으니 지공이 말하길
"폐하 이 사람을 알아보셨습니까?"
무제가 이르되
"몰랐습니다."
지공이 이르되
"이 분은 관음대사이니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십니다."
무제가 뉘우치고 칙사를 보내어 모셔오도록 하니 지공이 말하되
"폐하께서 조서를 내려 말하지 마소서. 온 나라 사람이 가더라도 그 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졸납이 이 법문에 이르되
"비어서 성스러움이 없음이여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하도다. 짐을 대한 자가 모른다 하니 동쪽 가게는 서쪽 가게의 이익을 보지 못하도다."

설두현이 송하여 이르되
"성스런 진리가 크게 비었음을 어떻게 분명히 알꼬? 짐을 대한 자 누구요? 하니 도리어 모른다 하도다."

이로 인해 가만히 강을 건너가니 어찌 우거진 가시밭 삶을 면할 수 있으리오. 온 나라 사람이 쫓아가도 다시 오지 않음이여. 천고만고에 부질없이 서로 생각하도다. 서로 생각함을 쉬거라. 맑은 바람이 대지를 휩쓰니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설두 선사께서 좌우를 돌아보시고 이르되 "이 속에 도리어 조사가 있느냐?" 스스로 이르되
"있다면 불러다가 노승의 발을 씻도록 하거라." 하니
여기에 졸납이 이르되
"뜨거운 열로써 열을 없애고 기둥으로써 기둥을 뽑는도다."

불감근 선사가 송하되
"누각의 한 종소리가 처음 들리니
따뜻한 날 푸른 용은 잠이 깊이 들었도다.
다시 봉황대에서 북을 치니
밤이 깊어 난새는 날아서 춤추지 않도다.
무제의 기반이 길이 견고하여 반석과 같은지라
오랑캐 중이 평생의 힘을 다 써버렸도다.
멀리 저쪽 소림굴로 돌아가 버리니
봄바람 한 번 지나자 꽃잎이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도다."
하니, 이 법문에 졸납이 말하되

"닭은 차면 나무에 오르고
오리는 차면 물로 내리도다."
또 졸납이 송하여 말하되
"크게 비어 성스러움 없고 또 모른다함이여
나부에서 북을 치니 소주에서 춤을 추네
약은 병을 구하려 금병에서 나오나니
같은 문으로 출입하나 서로 원수지간이로다.

일할을 할하다.

인 명 약 주

達磨(달마) 대사는?
?~495, ?~436, 346~495, ?~528의 여러 설이 있음. 菩提達磨(보리달마)의 약칭 중국 선종의 초조. 남인도 또는 波斯國(파사국) 셋째 왕자로 태어나 般若多羅(반야다라)의 법을 잇고 중국 남북조시대 광주서 양무제를 만났으나 계합하지 못함. 그 후 소림사서 면벽 9년 후 2조 혜가에게 법을 전함. 전하는 어록은 二入四行論(이입사행론) 血脈論(혈맥론)

誌公(지공) 스님은?
418~514 金陵寶誌(금릉보지)로서 위진남북조시대 스님

雪竇(설두) 스님은?
980~1052 송대 운문종 스님. 이름은 重顯(중현) 지문광조의 법을 이음. 경덕전등록을 중심으로 고칙 100여칙을 뽑아 頌古(송고)를 지어 이를 雪竇頌古(설두송고)라함.

제 창 提 唱

碧巖錄(벽암록)에 의하면 佛祖傳燈(불조전등) 28조이신 達磨大師(달마대사)는 남인도국 셋째 왕자로 태어나 般若多羅尊者(반야다라존자)의 법을 잇고 중국 남북조시대(普通元年(보통원년) A.D 520년)에 건너와서 처음 양무제를 만나서 이상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서 양무제와 機緣(기연)이 맞지 않자 몰래 양나라를 떠나서 위나라(효명제 때) 小林窟(소림굴)로 들어가 면벽 9년 후에 2조 慧可(혜가)를 만났으니 그 지방에선 壁觀波羅門(벽관바라문)이라 불렀습니다.

양무제는 그 후 誌公和尚(지공화상)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지공은 "폐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제는 "모릅니다." 하니 지공이 문득 말하기를

"이 분은 관음대사로서 부처님의 心印(심인)을 전하십니다."

이에 무제가 뉘우치고서

"사신을 보내어 달마를 모셔 오겠다."

고 했으나 지공은 만류하면서

"온 나라 사람이 다 간다 해도 그 분은 오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후위(後魏北魏(후위북위)) 때 光通律師(광통율사)와 菩提流支三藏(보제유지삼장)이 달마대사와 더불어 도를 논했다.

그런데 달마는 모양 있는 것을 배척하고 마음만을 가리키니 국이 좁은 생각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자 광통율사와 보리유지삼장 둘이서 다투어 해칠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번 독약을 먹였으나 여섯 번째 이르러서는 교화의 인연을 다 마치시고 법을 전하실 사람을 얻었는지라, 마침내 단정히 앉아 돌아가시니 웅이산 정림사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뒤에 위나라 宋雲(송운)이 사신으로서 총령서 대사를 만나니 손에 짚신 한 짝만 들고서 인도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제가 추억하여 스스로 비문을 지어 이르되

"슬프도다 (양무제가)보고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으며 (송운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으니 옛적이나 지금이나 원통하고 한스럽도다."

다시 찬탄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있으면 광겁토록 범부에 걸려 있고 마음이 없으면 찰나에 묘각에 오르도다."하였습니다.

時後魏 光通律師 菩提流支三藏 與師論議 師斥相指心 而編局之量
시 후 위 광 통 율 사 보 제 류 지 삼 장 여 사 논 의 사 척 상 지 심 이 변 국 지 량

自不堪任 競起害心 數加毒藥 至第六度 化緣已畢 傳法得人 遂不復救
자 불 감 임 경 기 해 심 수 가 독 약 지 제 육 도 화 연 이 필 전 법 득 인 수 불 부 구

端居而逝 葬於熊耳山 定林寺 後魏宋雲 奉使於蔥嶺遇師 手帤隻履而往
단 거 이 서 장 어 웅 이 산 정 림 사 후 위 송 운 봉 사 어 총 령 우 사 수 휴 척 리 이 왕

武帝追憶 自撰碑文云 嗟夫 見之不見 逢之不逢 遇之不遇 今之古之
무 제 추 억 자 찬 비 문 운 차 부 견 지 불 견 봉 지 불 봉 우 지 불 우 금 지 고 지

怨之恨之 復讚云心有也 曠劫而滯凡夫 心無也 剎那而登妙覺
원 지 한 지 부 찬 운 심 유 야 광 겁 이 체 범 부 심 무 야 찰 나 이 등 묘 각

하늘에서 꽃비 내려도 廓然無聖의 뜻 모르나니, 뭣고?

확 연 무 성

이와 같이 달마대사는 동토에 대승근기가 있음을 멀리서 관찰하시고 바다를 건너 일부러 오셔서 心印(심인)만을 오직 전하여 미혹한 중생에게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자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도록 열어보였으니 만약 이와 같이 보아 얻으면 문득 자기에게 일체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굴려서 벗어난 마음의 체가 나타나 이룸이 있는 것임을 圓悟禪師(원오선사)는 평창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안 종사께서 이와 같이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총림에서 是非得失(시비득실)의 분별심을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서 洒洒落落(쇄쇄낙낙)(티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짝이 없이 높은 모양)한 자기 본래 마음을 본 사람이 그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허다히 눈먼 납자들은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제일가는 뜻입니까?","크게 비어서 성스런 진리도 없다."는 달마대사의 말에 걸려서 제일의제니 제이의제니 혹은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는 분별심을 놓아버릴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말로 알고서 분별생각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권하는 뜻으로 달마의 廓然無聖(확연무성)을 장황하게 풀이하고 있으며, 또한 無分別(무분별)의 입장에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달마가 不識(불식)(모른다)이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견해는 조사의 뜻과는 천지현격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教(교)와 禪(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分別情識(분별정식)으로 格外話頭(격외화두)를 思量卜卓 安排(사량복탁 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評唱(평창)에 이르되

"五祖先師(오조선사)가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廓然無聖(확연무성)을 어떤 사람이 뚫어서 얻으면 자기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으리라. 하나 같이 언어문자를 사용했으나 무제의 칠통을 타파해준 것은 그중에 특별히 달마가 기특하다고 해도 무방하리라.

"한 마디 참구해 뚫어 얻으면
천 마디를 일시에 뚫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분별심 끊어진 데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붙잡으리라"

그리하여 말하기를 이 한 마디를 참구하여 뚫어 얻으면 천 마디 만 마디를 일시에 뚫을 것이니 자연스럽게 분별심이 끊어진 곳에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붙잡으리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뼈를 갈고 몸을 부수어도 족히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 이 한 마디가 백억 법문을 초월해버렸도다."하였습니다.

五祖先師嘗說 只這廓然無聖 若人透得 歸家穩
오조선사상설 지자확연무성 약인투득 귀가온
坐 一等是打葛藤 不妨與他 打破漆桶 達磨就中
좌 일등시타갈등 불방여타 타파칠통 달마취중
奇特 所以道 參得一句透 千句萬句一時透 自然
기특 소이도 참득일구투 천구만구일시투 자연
坐得斷把得定 古人道粉骨碎身未足酬 一句了然
좌득단파득정 고인도분골쇄신미족수 일구요연
超百億
초백억

이것은 일찍이 양무제에게 教家(교가)의 極妙窮玄處(극묘궁현처)인 眞俗不二(진속불이)의 聖諦第一義(성제제일의)를 說(설)한 婁約法師(누약법사)와 傅大士(부대사)와 昭明太子(소명태자)등의 法門(법문)이 있다.

그렇지만 달마 대사가 "비어서 성스러운 진리가 없다(廓然無聖확연무성)"는 법문은 저 教家(교가)의 어떤 분별심으로 조작된 말 한 마디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自家(자가)의 本分事 當處(본분사 당처)를 둘어낸 것이기 때문에 무제의 칠통을 타파해 준 법문으로는 달마의 이 법문이 그 중에 특별히 기특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여 저 教家(교가)의 법문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이야기를 해준 격이요.

달마는 배고픈 사람에게 실제로 떡을 손에 쥐어준 격이니 이 때 만약 달마가 준 떡을 무제가 먹을 줄만 알았던들 영원히 주림을 면했을 것이니 배고픈 마음을 끊고 앉은 채로 〈坐得斷(좌득단)〉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본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把得定(파득정)〉이니 이는 배고픈 사람이 주린 배만 채우면 본래 원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 永嘉大師(영가대사)는 이르시되

"그 은혜는 뼈를 가루내고 몸을 부수어도 갚을 수 없으니 한 말씀이 밝게 백억 법문을 초월했도다〈粉骨碎身未足酬(분골쇄신미족수) 一句了然超百億(일구요연초백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이러한 기특한 자비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 人我見(인아견)을 내어 다시 묻기를

"짐을 대한 자는 누굽니까?〈對朕者誰(대짐자수)〉"하자 달마는 "모른다〈不識(불식)〉"하고 배고픈 무제에게 떡 하나를 다시 쥐어준 뜻을 모르고서 〈不知落處(부지낙처)〉 눈을 굳이 다른 곳으로 움직여 찾으니〈直得武帝眼目定動(직득무제안목정동)〉 여기서는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없다 해도 맞지 않고 무분별의 입장에서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조사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하겠습니다.

達磨劈頭與他一拶 多少漏逗了也 帝不省 卻以
달마벽두여타일찰 다소루두요야 제불성 각이
人我見故再問 對朕者誰 達磨慈悲忒殺 又向道
인아견고재문 대짐자수 달마자비특살 우향도
不識 直得武帝 眼目定動 不知落處 是何言說 到
불식 직득무제 안목정동 부지낙처 시하언설 도
這裏有事 無事拈來即不堪
자리유사 무사염래즉불감



삽화 · 박구원

그러므로 白雲守端和尚(백운수단화상)이 이 법문에 송하시되

一箭尋常落一鵰하고
일전심상낙일조
更加一箭已相饒로다
갱가일전이상요
直歸少室峰前坐하니
직귀소실봉전좌
梁主休言更去招하라
양주휴언갱거초

화살 하나로 거뜬히 수리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다시 화살 하나로 넉넉히 떨어뜨리고서
바로 소실봉 앞에 돌아가 앉았으니
양주여 다시 가서 부르겠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배고픈 임금에게 수리를 두 번이나 잡아 주었으면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배를 채우면 될 것이지 먹을 줄은 모르고서 어떤 멍청한 놈이 달마대사를 또 부르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端和尚有頌云(단화상유송운)…復云 誰欲招(부운 수욕초)〉

이상의 백운단 선사의 송을 바로 알면 달마대사의 廓然無聖法門(확연무성법문)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며 저 雪竇頌(설두송)과 佛鑑勤頌(불감근송)과 拙衲(졸납)의 頌(송)도 모두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양무제는 일찍이 가사를 입고서 스스로 「放光般若經」(방광반야경)을 강설하였으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황금으로 변하는 감응을 얻었는지라 도를 밝혀 부처님을 받들고 천하에 절을 짓고 스님을 배출하도록 조서를 내렸으며 부처님의 교법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니 사람들이 불심천자라 했습니다.

武帝嘗披袈裟 自講放光般若經 感得天花亂墮
무제상피가사 자강방광반야경 감득천화난타
地變黃金 辨道奉佛 誥詔天下 起寺度僧 依教修
지변황금 변도봉불 고조천하 기사도승 의교수
行 人謂之佛心天子
행 인위지불심천자

이와 같이 佛法(불법)에 대한 훌륭한 신심과 이해와 공덕을 갖춘 佛心天子(불심천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발아래를 살펴볼 줄 모르고서 달마스님을 처음 만나서 묻기를

"짐이 절을 일으키고 스님들을 출가시켰으니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 대사가 이르되

"공덕이 없다."고 친절하고도 친절하게 일러 주었지만 무제는 알아듣지 못하고 달마대사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無功德(무공덕)(공덕이 없다)이라는 화두를 흔히 말하기를

"무제가 有漏功德(유루공덕)에 걸려있기 때문에 달마가 無漏功德(무루공덕)을 알려준 것이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教家(교가)의 分別妄識(분별망식)이지 조사의 뜻과는 또한 천지현격이라 하겠습니다.

佛法(불법)의 生命(생명)은 종일 떡 이야기만 하는 언어문자에 있지 않고 직접 떡을 먹어 주림을 면하는 자기 마음을 바로 아는데 있습니다.

이 자기 마음을 바로 알면 저 달마대사의 無功德(무공덕),廓然無聖(확연무성),不識(불식)이라 말씀하신 뜻을 바로 알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직접 떡을 쥐어 준 조사의 자비가 비로소 얼마나 친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죠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ow:1856~1950)는 문학자로서 일생에 노벨상 수상의 영광과 향년 95세의 장수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남긴 짤막한 墓碑銘(묘비명)(epitaph)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저기 엄벙덤벙 실컷 허송세월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와 같이 누구나 태어나서 일생 마음속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갈망하며 노력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죽기 마련이지만 그 소원을 버나드쇼처럼 성취한 사람은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은 마음이 없이 찰라찰라 마음 밖의 저러한 가치와 좋고 나쁜 경계를 좇아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결국엔 허망하고 후회스러운 한탄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뒷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무서운 경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과 부와 명예를 성취한 소수의 사람이나 성취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이나 건강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기 근본 마음을 모르고 사는 데 인생의 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백년 미만이요, 富(부)도 백년미만이요, 명예도 백년미만이지만 자기의 참마음은 영원한 것이니, 이 참마음을 알면 얻고 잃음에 물들거나 걸리지 않고 항상 光明(광명)이 寂照(적조)하여 法界(법계)에 두루합니다.

이 자기의 참마음을 찾아 밝히는데 가장 수승하고 빠른 방법이 마음속에 화두를 가지고 놓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 건강과 부와 명예를 포기하거나 떠나서 자기 마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바로 그 근본이 자기 마음인 줄 알면 화두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버나드쇼의 인생에 비하면 물러서지 않는 이러한 신심으로 부지런히 화두를 들어 영원히 변함없는 자기의 참마음을 밝히고자 서원하신 임제선원 참선 불자님들이야말로 참으로 자기와 세상의 지혜로운 등불인 것입니다. 모쪼록 눈코를 쥐어 뜯고 분초를 허송 말고 참구합시다.

조사의 頌(송)에 이르시되

莫妄想兮好叅詳
막망상혜호참상
不知終日爲誰忙
부지종일위수망
若知忙裡眞消息
약지망리진소식
一朵紅蓮出沸湯
일타홍련출비탕

마음속에 쓸 데 없는 생각말고 화두 참구 하거라.
종일토록 누구 위해 바쁜 줄을 모르도다,
만약 바쁜 속에 자기의 참소식을 안다면
한 송이 붉은 연꽃이 끓는 물속에서 나오리라.

끝으로 달마조사께서 모양 있는 것을 배척하고 단적으로 전하신 마음의 대지혜를 위하여 졸납이 몇 수의 송으로 밝혀보겠습니다.

爲大智頌 위대지송 대지혜를 위한 송

濁流入海無蹤跡
탁류입해무종적
不見大海見濁流
불견대해견탁류
痴者如是謗大道
치자여시방대도
井蛙焉知滄溟悠
정와언지창명유

흐린 물이 바다에 드니 아무 종적이 없는데
푼 바다는 보지 못하고 흐린 물만 보도다
어리석은 자 이와 같이 대도를 비방하니
우물 속 개구리가 어찌 저 푸른 바다의 아득함을 알리요.

外道聰明無智慧
외도총명무지혜
顚倒常離波求水
전도상리파구수
一智能滅萬年愚
일지능멸만년우
水不離波波是水
수불리파파시수

외도들은 총명하게 분별하나 근원을 보는
지혜가 없으니
미혹하여 항상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니
하나의 지혜가 능히 만년 어리석음을 멸해버리니
물은 파도를 떠나 있지 않고 파도가 바로 물이다.

理氣分別五百年
이기분별오백년
波波浪走虛過人
파파랑주허과인
心眼不明總是病
심안불명총시병
不識自家法王身
불식자가법왕신

이와 기로 분별하길 오백년이었으니
파도마다 부질없이 달리며 헛되이 보낸 사람이네
마음눈이 밝지 못하면 모두 병인 것이니
자기가 일체만법의 왕임을 알지 못하도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물들지 않듯
분별 속에서
참자기는 오염이 없다"

夫子說破一貫道
부자설파일관도
佛言萬法唯一心
불언만법유일심
悟即見煙便知火
오즉견연편지화
迷即求火煙外尋
미즉구화연외심

공부자는 하나로 꿰뚫는 도를 설하시고
부처님은 일체만법이 오직 하나의 마음임을
말씀하시니
깨달은 즉 검은 연기를 보고서 문득 밝은 불 알고
미혹한 즉 불을 구하러 연기 없는 밖으로 찾도다.

四端善兮七情惡
사단선혜칠정악
能善能惡甚麼心
능선능악심마심
如鏡當臺胡漢現
여경당대호한현
無着無碍恒古今
무착무애항고금

사단은 착하고 칠정은 악하다니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은 무슨 마음이던가?
마치 대에 걸린 거울에 검고 붉은 색이 나타나니
집착함도 걸림도 없이 고금에 변함없음 같도다.

不思善兮不思惡
불사선혜불사악
爲君祖師示直指
위군조사시직지
善惡本來無一心
선악본래무일심
泥中蓮花不着水
니중연화불착수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그대를 위해 조사께서 곧장 가리켜 주시도다.
선과 악 본래 없는 한 마음이여!
진흙 속의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음이로다.

別,是甚麼오
별시심마
頭長三尺只是誰오
두장삼척지시수
對面無言獨足立이로다.
대면무언독족립

별, 이 무엇인고?
머리가 길어서 삼척이니 이 누구인가?
얼굴을 대하여 말없이 외발로 서있노라.

법문제공=임제선원 임제회

해외스타들 "매일 불교 명상하세요"

크리스 에반스 '나는 불자' 밝혀
믹재거…정기적으로 라오스 여행
마일리 사이러스…명상게임 개발

할리웃스타와 해외 유명뮤지션, 그리고 유명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화려한 인기와 시선집중을 한 몸에 받는다. 때문에 그들의 삶 이면에는 개인적 고독과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한 가정 문제 등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기활동에 필요한 집중력 등을 얻기 위해 종교 활동에서 위안을 찾는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구지역에서 명상수행을 비롯한 불교 및 동양철학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대기업



① 명상 옹호론자로 나선 믹 재거(오른쪽에서 두번째) ② 자신을 주인공으로 온라인 명상게임을 만든 마일리 사이러스 ③ '어벤저스'의 크리스 에반스

CEO나 정치인들도 가세하고 있어 명상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화 '어벤저스(2012)'의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 에반스(31)는 불교신자다. 그는 2005~2006년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인도 북부 리시케시(Rishikesh)에서 3주간 머무른적이 있다. 또한 미국 LA에서 불교강좌를 듣는 등 열성적인 불교신자다. 크리스 에반스는 16~17세 무렵부터 철학서를 탐독할 정도로 철학적인 소년이었다. 그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철학책을 읽으면서 모든 철학과 종교를 아우르는 하나의 종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때 '나는 내가 불교신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전설적인 록밴드 롤링스톤즈의 멤버 믹 재거(68)는 종종 홀로 라오스로 영적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대중지 더 선(The Sun)은 "믹 재거는 라오스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며 "그는 라오스 사원에서 스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염불을 같이 한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 수행을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세계최대 불교전문 출판사인 샴발라 선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믹재거가 롤링스톤즈 멤버들과 '매일 명상하세요! (Meditate every day!)'라는 쪽지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믹 재거가 명상 옹호론자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디즈니 어린이 채널을 통해 스타가 된 미국 '국민 여동생' 마일리 사이러스(19)는 자신의 팬들을 위해 온라인 명상 게임을 만들기도 한다.

사이러스는 "명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하세요"라면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온라인 명상게임을 통해 소녀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영화 '플래툰' '7월 4일생'의 감독 올리버스톤(66)도 불교신자다. 그는 1994년 美 UC 버클리 개강 연설에서 "불교는 이 나라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단지 구식적이면서 고풍스러운 것 중 하나로 여겨질 뿐"이라며 "그러나 불교는 매우 활성화된 종교로 현대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역시 30년 가까이 하루에 두 번 90분씩 명상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는 "의식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 밖에 불심이 깊은 스타로는 재즈피아니스트 허비 행콕, 가수 티나 터너, 제니퍼 로페즈, 마이클 조던, 데이비드 베컴, 앨라니스 모리셋 등이 있다.

이처럼 벽안(碧眼)의 서양 스타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비트 운동(Beat Movement)'과 무관하지 않다. 알렌 긴스버그 등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비트 운동의 근간에는 선불교 등을 통해 개인적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한다. 기독교 국가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백인 중심의 획일화된 사회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일부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도 불교 확산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서구의 대표적 중국불교 연구자

세계의 불교학자(25)

로버트 샤프
美 UC버클리대 불교학 석좌교수



로버트 샤프(Robert Sharf · UC버클리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불교학) 석좌교수는 서구에서 대표적인 중국불교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중국 불교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설정해 다뤄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주된 연구로 삼는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 샤프 교수는 토론토대 종교학과에서 중국학을 동시에 전공했다. 198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불교학의 대가 루이즈 고메즈(Luis Gomez) 밑에서 논문을 준비했다.

〈보장론의 번역 및 분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낸 샤프 교수는 이를 2002년에 〈중국불교와 합의를 본다(Coming to Terms with Chinese Buddhism)〉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인도 불교' 또는 '중국 문화'라는 화석화된 사상을 전제한 기존 연구를 비판하면서, '구마라집 이전 성립된 불교를 인도 불교의 오해 아니면 곡해라고 생각해왔는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그는 또 경전이나 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순수 체험을 중심으로 한 불교, 즉 '인도불교'가 중국에서 의식화 및 종교화 됐다는 의견을 반박한다. 그의 이런 생각은 의식과 체계화된 종교를 멸시하는 경향이 높은 신교도 문화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샤프 교수는 이후 1989년 캐나다의 멕메스터대에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후 미시간대에서 재직하다 버클리대에서 불교학과를 재편성할 때 스카웃 돼 현재 버클리대 불교학과 학장 및 불교학센터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샤프 교수의 여러 논문 가운데 각광을 받는 논문은 〈종교체험 수사법(修辭法)-Rhetoric of religious experience〉과 〈일본 국수주의와 선(Zen and Japanese Nationalism)〉 등이다. 여기서 그는 "선불교와 종교체험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스즈끼 다이세츠가 미국의 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책 〈다양한 종교체험(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nce)〉을 읽고 제임스의 '순수 체험(pure experience)'이라는 생각을 빌려 선(禪)의 체험을 구사한 것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정신사학적인 측면에서 '체험'이라는 말이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학이 본격적으로 학계에 대두한 20세기 전반이었다"며 "종교학이 역사학 · 사회학 · 인류학 · 심리학과는 다른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종교 특유의 주제를 종교체험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즈끼가 '순수체험이 역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수사법(修辭法)을 벗어난 선(禪)과 종교를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스즈끼로부터 '제임스의 순수경험'이라는 사상을 배운 니시다 키타로와 같은 일본 국수주의 학자들 덕택에 선(禪)체험이 일본인들 고유의 정신적 · 신령적 특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일-중일 전쟁의 성과가 이 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토론토大서 종교학 · 중국학 전공
중국불교역사 중점 연구
간화선 세미나서 '공안' 주제 발표

샤프 교수는 2010년 동국대에서 열린 국제간화선 세미나에 참석해 "학자들은 선 공안을 해석의 형태로는 전혀 다루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 공안,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샤프 교수는 "서구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불교에 관한 인기 서적들은 공안을 비논리적인 역설 또는 수수께끼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은 지적 능력을 방해하고 단절시켜 사고를 억누르고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최근 몇몇 학자들은 선 공안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선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이 역사적, 민족지학적 기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샤프 교수는 "학자들의 그러한 태도는 잘못 형성됐으며 일부 공안들은 교리적 취지를 복원함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공안들은 철학적으로 섬세하고 해석학적으로는 기교적이기 때문이며, 저자들이 모호한 암시나 기지에 찬 익살, 그리고 능숙한 재담을 즐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한국계 미국인 10명 중 0.6명 불교도"

퓨리서치 조사… 개신교 61%, 무교 23%, 가톨릭 10%

한국계 미국인 10명 가운데 0.6명이 불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1~3월 전국 아시아계 미국인 3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종교성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응답자 504명 가운데 6%가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종교는 개신교(Protestant)로 61%를 차지했으며, 무교(unaffiliated)와 천주교 신자(Catholic)는 각각 23%와 10%로 집계됐다.

한국계 미국인의 크리스천(개신교 · 천주교 신자) 비율은 71%로, 필리핀계 미국인(89%)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일본계는 38%였으며, 베트남계(36%)와 중국계(31%), 인도계(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의 58%는 '어릴 때 종교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응답해 인도계(82%), 베트남계(77%) 필리핀계(73%)보다는 낮았으나 일본(52%)과 중국(54%)보다는 높았다.

보고서는 "최근 수십년간 아시아 출신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인구의 5.6%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국민 가운데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의 비율은 2%로, 유대교도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교포 청소년 "한국문화, 원더풀!"

조계종 美동부특별교구, 한국불교문화 체험 진행

7월 9~16일 조계사, 골굴사 등


조계종 미국 동부 교구 청소년문화체험단은 7월 9~16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미국 동부 교포 청소년들이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미동부 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연수단'은 7월 9~16일 7박 8일 간 서울 조계사, 경주 골굴사 등을 방문하고 한국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인천 용화사에서 참선 체험을 했으며, 오후에는 조계사 참배,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관람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경주 불국사 참배, 원효대사 유적지 관람, 골굴사 선무도 체험, 해인사 야외참선, 여수 엑스포 참가 등의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이번 연수단을 인솔한 뉴욕불교신도회 고병희 부회장은 "참가 청소년들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이사진 및 정회원 수시모집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칼라지붕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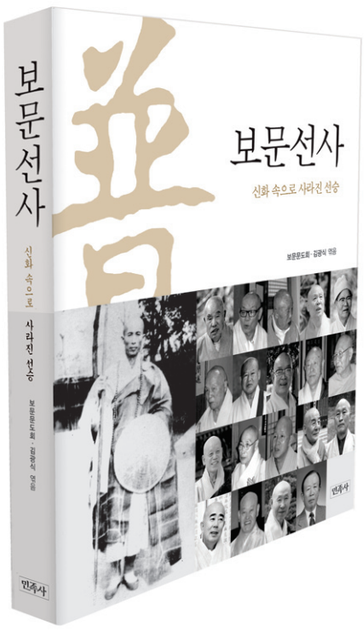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보문스님이 오래 사셨다면 종정도 하셨고,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초우큰스님)

갈빗대를 잘라내는 대수술에도 화두만을 붙들었던 스님, 보문스님의 전설이 밝혀진다





진정한 간화선승!
성철스님과 봉암사결사를 이끈 주인공!!
선방의 수좌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큰스님, 보문선사

"성철스님은 큰스님이기는 해도 아직 견지가 똑 떨어진 사람이 아니여. 내가 보기엔 보문스님이 진짜 선승이지. 그런 스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스님은 말을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스님이에요."
성수큰스님(전 해인사 주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보문선사
신화 속으로 사라진 선승

보문문도회 · 김광식 엮음 | 376쪽 | 정가 28,000원 | 양장(175×225mm)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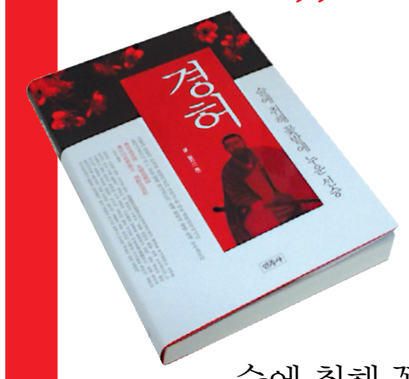
---

www.minjoksa.org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바로 경허선사이시다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만공월면

善惡過虎佛　是鏡虛禪師
遷化向甚麼處去　酒醉花面臥
"



경허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글 · 일지 | 352쪽 | 13,000원
소프트양장(150×208mm)

민족사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3-13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진정한 보물은 내 마음 속에 있다"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소견


동화사 대웅전

1921년에 찍힌 동화사 대웅전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동국진체(東國眞體)로 쓰여진 대웅전 정면 현판은 그대로였지만, 주련은 지금의 주련이 아니었다. 지금의 주련은 '天上天下無如佛(천상천하무여불), 十方世界亦無比(시방세계역무비), 世間所有我盡見(세간소유아진견), 一切無有如佛者(일체무유여불자)'라는 장엄염불의 한 편이다.

그러나 예전 주련은 흰 바탕에 대자로 쓰여진,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거룩하고 위대하신 법왕이여!, 무단역무장(無短亦無長) 짧지도 또한 길지도 않으며, 본래비조백(本來非?白) 본래 검지도 희지도 않지만, 수처현청황(隨處現靑黃) 인연 따라 붉고 푸르게 나타나네'이다.

역사 깊은 지역 전통 사찰
40억원 금괴 사건 '화제'
민족의 보물 손상 우려

이 주련의 내용은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이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을 중국 당대의 다섯 분의 큰스님들이 주해한 논장이다. 읽을수록 깨달음의 본바탕인 이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깊어지는 구절들이다.

현재의 대웅전은 1732년(영조 8년)에 중창불사한 것이다. 초창(初創)연대는 알 수 없고, 대웅전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좌정(坐定)하고 계시다. 동화사라는 꽃이름을 가진 사찰답게 대웅전의 문들은 전부 정교하게 조각된 꽃살문들이다.

동화사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이다. 신라 소지왕 15년(493년)에 극달(極達) 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하였고 그 뒤 832년(흥덕왕 7년) 심지(心地)왕사가 중창하였는데, 그 때가 겨울철임에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이 만발해서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진표(眞表)율사로부터 영심(永深)스님에게 전하였던 불간자(佛簡子)를 심지가 다시 받은 뒤, 이 팔공산에 와서 불간자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이룩하니 곧 동화사 참당(籤堂) 북쪽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신라 제41대 흥덕왕의 셋째아들로 태어난 심지는 중악(中岳 : 팔공산)에서 수도하던 중, 속리산 길상사(吉祥寺)에서 영심이 그의 스승 진표로부터 계법(戒法)을 전해받고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그러나 때가 늦어 당(堂)에 올라가서 참례할 수 없었으므로 땅에 엎드려서 참례하였다. 법회 7일 만에 진눈깨비가 심하게 내렸는데 심지의 둘레 10자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으므로 모두들 신기하게 여겨 당으로 안내하였다 한다.

그건 그렇고, 얼마 전부터 이상한 친구 하나가 북한에서 내려와 동화사 대웅전을 국민적인 관심사로 만들어 놓았다. 대웅전 뒤편에 묻혀있을 수도 있는 40억원에 상당하는 금괴를 찾기 위해 언론을 들쑤셔 놓고,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금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대구 동화사 뒤뜰 굴착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김모씨가 금괴의 굴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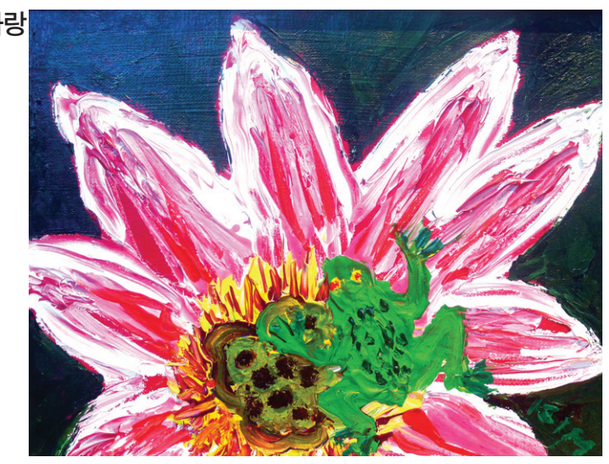
진정한 보물은 사실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을 한 번 보아 세세생생(世世生生) 묵은 빚을 갚고 나면 무진장(無盡藏)한 보배를 마음대로 쓰고 온갖 중생에게 나누어 주어도 화수분처럼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다.

금괴를 찾으러 탈북했다는 김씨가 금괴만 찾아 헤멜 것이 아니라 절에 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마음밭을 갈아 진정한 보물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행여 민족의 보물인 대웅전이 금괴 찾기 공사로 인해서 손상이 가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자연 벗 삼아 한 폭 한 폭 父情 펼쳐내

김종학 화백 다정전…부산 조현 화랑



김종학 화백의 다정전이 8월 26일까지 부산 조현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비롯해 연꽃 등 자연 소재의 작품, 작가의 소장 골동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작품 왼쪽은 '꽃과 개구리' 오른쪽은 '도라지꽃'

1987년 한 작가는 자신이 평소 모아오던 동자승 업경대 등 불교유물과 목기 등의 전통 공예품 3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보시행을 실천한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작가의 상설 전시관이 생겨나 전통 미학을 대중들에게 선사한다. '설악산의 화가' 김종학 화백의 이야기다.

김 화백의 작품이 부산을 찾았다. 8월 26일까지 부산 조현 화랑에서 열리는 김종학의 '다정'展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비롯해 자연 소재의 작품, 작가의 소장 골동품 등을 만날 수 있다.

김 화백은 예술세계의 에너지원이 곧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혼 후 25년 동안 자식들과 헤어져 있는 동안 작가가 손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자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아버지로서 갖는 염려와 걱정, 칭찬과 조언 등이 따뜻하게 담겨있다. 김종학 작가 자신이 그림 작업을 제외하고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아들과 딸에게 편지 쓰는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에게 있어 편지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도구였던 것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등의 글 담아
자녀들에게 격려 편지 전해
연꽃 주제 작품도 선보여

고려말 때 큰 스님 나옹의 시다. 내 마음에 꼭 들어 외우고 있단다. 나도 그렇게 살다가 가련다. 사랑하는 현주 귀엽고 어여쁜 현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을 진심으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버리고 다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학 화백의 편지 中에서-

이처럼 이번에 공개되는 편지에서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물론 작가 본인의 내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짐작할 수 없는 무명작가의 괴로움에서부터 유명 작가가 되었을 때의 그 갑갑함까지 작가의 인생을 속속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편지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김종학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소재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작품 세계가 한층 더 추상화 단순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연꽃을 소재로 한 '꽃과 개구리'를 비롯 '도라지 꽃' '바다, 돌산' 등을 만날 수 있다.

작가 소장의 골동품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설악산에 거주하는 작가가 서울에 와서 가장 즐겨하는 일이 골동품 가게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동안 작가가 모아온 반닫이 사방탁자 등이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한편, 김종학 화백은 평북 신의주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미대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79년 추상회화 열풍 속에서 빠져나와 설악산에 칩거하며 30년 동안 묵묵히 구상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꽃과 풀, 산과 달, 바람과 물 등 자연을 통해 원초적 생명력을 표현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라 유물 찾아 상상 여행 떠나자

공주박물관 '타임캡슐…' 특별 전시
8월 26일까지 희망과 염원 담아


창녕 말흘리 절터에서 발견된 '손잡이 향로'

왜 작은 쇠솥에 부처님의 물건을 넣었을까? 우물에 어린아이와 동물을 넣었던 이유는 뭘까? 신라 말기 사람들이 우물과 쇠솥에 담아두었던 유물들이 1,200년 만에 공개된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8월 26일까지 '타임캡슐을 열다 -색다른 고대 탐험' 특별전시를 열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신라의 우물과 말흘리 절터 유적지의 쇠솥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삶과 종교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부는 신라 우물에 담긴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2개의 우물에서 발견된 어린아이뼈와 약 30여 종 2,300여 점의 동물뼈, 530여 점의 토기와 금속제품, 목제품 등이 전시된다. 신라 왕궁으로 추정되는 경주 월성 주변에서 확인되는 우물들은 일반 우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관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기우제 등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부는 신라 당시 절터로 추정되는 창녕 말흘리 유적의 작은 쇠솥에 관한 이야기다. 쇠솥에는 풍탁, 향로, 부처님이 새겨진 화려한 금동장식판 그리고 갖가지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발견 당시 이 쇠솥은 금동으로 된 불교 공예품 500 점을 보잘것 없는 쇠 조각들로 가려 놓았다. 당시 보물을 감추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참된 세상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두지는 않았을까?

기나긴 세월동안 땅 속에 감추어졌던 1,2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당신의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질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보자.

정혜숙 기자

조계종, 부처님글읽기 캠페인

충남 윤정사에 불서 1천권 기증

'부처님글사랑, 윤정사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이 7월 19일 충남아산 윤정사에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스님)가 주관하고 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1천여 권의 불서와 '부처님글사랑' 현판 및 기증서가 윤정사에 전달됐다. 윤정사는 효전문 교육도량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은 불서(佛書) 문화 확산과 불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진행돼 온 행사다.

조계종은 책을 통한 마음치유와 포교를 목표로 2009년부터 지금껏 군부대와 지역사찰에 12,000여권의 불서를 보급해 왔다.

또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과 해외 저개발 불교국가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정혜숙 기자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제10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 (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입재 : 양력 7월 29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2년 7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6월 11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7월 29일 (음, 6월 11일)
● 3 재 : 양력 8월 12일 (음, 6월 25일)
● 5 재 : 양력 8월 26일 (음, 7월 9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9월 9일 (음, 7월 23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여름 산사 추억

만월 달맞이꽃, 목탁새 그리고 비구니 스님



한 승 원
작가

수덕사 견성암에서의 하룻밤

나는 비구니 스님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려 하는 임권택 감독을 따라서 비구니들이 수도하는 여름 산사의 체험에 나섰다. 임 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그리고 나는 그들의 용맹정진의 모습과 비구니 스님들의 신비롭고 향기로운 모습을 살피고 싶었다. 주지 스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다.

비구니 산사 특유의 분위기와 향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단히 각오를 했다. 여름 결제중인 그들의 삶은 어떤 모양새일까. 밤인데 그들은 희미한 형광 불빛 아래서 가부좌를 튼 채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다.

산에 사는 사나운 모기를 피하기 위하여 널찍한 선방 안에는 거대한 모기장을 늘어뜨려 놓았다. 나는 모기장 밖 마룻장 위에서 반가부좌를 하고 그들처럼 용맹정진을 해보기로 했다. 감독과 촬영기사는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 용맹정진을 경험하려고 들었다. 모기장 안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가소로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성실하게 그들의 흉내를 내보려고 들었다.

물론 나는 내가 구상하고 있는 나의 주인공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나는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에 들어갈 때 늘 나의 주인공들하고 삶을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눈으로, 그 감각으로 세상을 살핀다. 심지어는 달과 별과 꽃과 흐르는 물과 벌레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기장 안의 대중들 속에서 내 주인공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모기장 바깥에서 모기의 공격을 받았지만 나의 학습이 즐거웠다. 무엇보다 나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들의 치열한 선수행이 신비롭고 경이로웠다. 성스러운 외포도 느꼈다.

나는 한 30분쯤 모기의 공격을 받으며 반가부좌를 틀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밖은 달이 중천에 떠 있었다. 달이 그렇게 신비로운 것을 처음 느꼈다. 수덕사 뒷산은 진한 수묵으로 칠해 놓은 듯했는데, 그 산 속에서 크렁크렁하고 목탁새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웅한 산골짜기에서 메아리를 일으켰다. 그것이 내 영혼을 흔들었다. 물론 나는 내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나의 주인공들하고 함께 그 소리를 들었다. 나는 모기에 물린 자리를 긁었다. 목과 손등과 팔뚝과 얼굴과 귀가 한없이 가려웠다.

낮에 스님들이 포행을 하던 마당을 밟으며 가장자리로 갔다. 황소만한 바위가 몇 개 있고, 그 아래로는 절벽이었다. 실바람이 절벽 밑의 산골짜기에서 올라왔다. 산골짜기에는 묽은 이내가 끼어 있었다. 실바람을 맞으며 만월을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심호흡을 하면서 절 입구로 걸어갔다. 암자에서 선원으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길 가장자리에 달맞이꽃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샛노란 꽃들이 활짝 피어 그야말로 달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물론 나는 그 꽃들을 내 주인공들의 눈으로 보았다. 주지가 마련해준 객실에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쉬 잠이 오지 않았다. 내 귀에는 계속 목탁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은 그 목탁새가 전생에 득도하지 못하고 죽은 한스러운 스님의 넋이 된 전설적인 새라고 했다.

대학시절에 나는 서울의 신흥사 위쪽에 있던 적조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의 모퉁이 방에서 많은 밤을 지새웠었다. 24세의 올깎이인 도안스님과 나는 서라벌예대 문창과를 함께 다녔던 것인데, 자취를 하던 나는 쌀과 반찬이 떨어지면 염치불고하고 적조암으로 가서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신세를 지곤 했다.

그 스님은 미국에서 전법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입적했다. 나로 하여금 불제자가 되게 한 것은 도안 스님이었다. 적조암에서는 예불하는 모습과 목탁소리와 풍경소리를 들었을 뿐 스님들이 선수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었다.

그런데 수덕사 견성암 선원에서의 하룻밤 체험은 나를 황홀한 흥분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는 내 소설의 분위기와 비구니 스님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의 역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삼스럽게 불경을 공부하고, 취재를 하면서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라는 결과물을 이룩했다.

> 수덕사 견성암 선원에서의 하룻밤 체험은 나를 황홀한 흥분 속으로 밀어 넣었다.
>
> 서울로 돌아온 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라는 결과물을 이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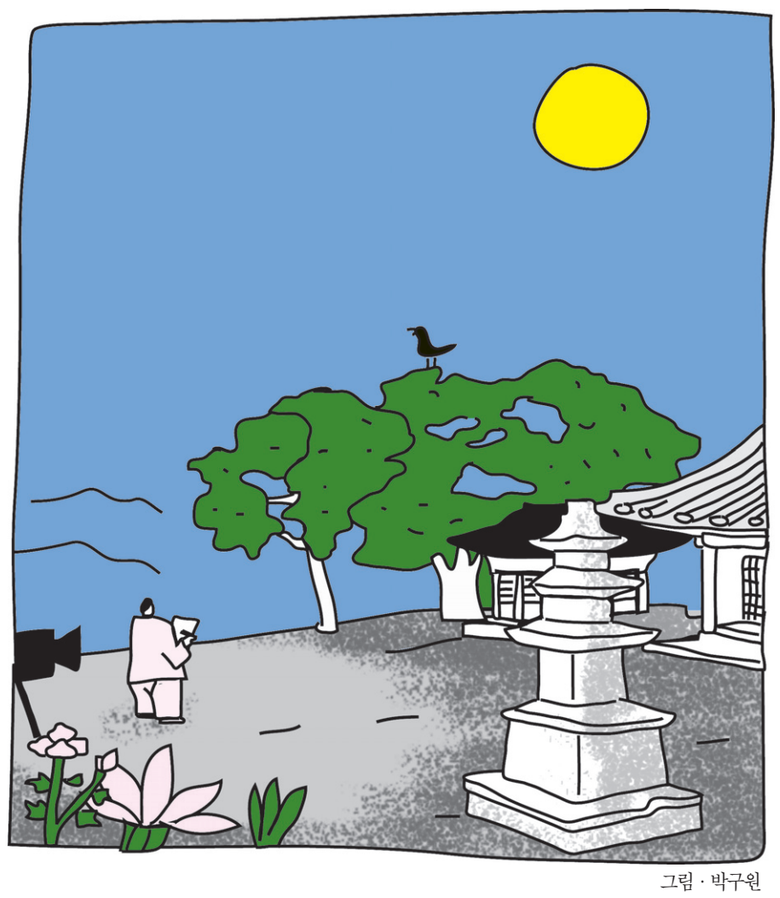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만해축전 8월 11~14일…인제 만해마을서

만해 대상 및 유심상 시상
학술심포지엄 · 문예행사 '풍성'



만해축전이 8월 11일~14일 강원도 인제 만해 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전에는 심포지엄, 문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난해 하늘내린센터서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 모습

만해 스님의 실천정신과 문학사상을 되새기는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전에는 만해대상 시상식은 물론 학술포럼 문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눈길을 끈다.

제16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하늘내린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평화 대상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캄보디아 평화운동가 아키 라(Aki Ra) ▷만해실천대상에는 프랑스 주교 르네 뒤퐁(Rene Dupont), 인도 우타라칸드 주정부 소수위원회 위원(불교부장관) 오타니 몬슈 고신(Otani, Monshu Koshin),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시장(변호사) 쿠트 그리블(Dr.kurt Gribl) ▷만해문예대상에는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Souad MohammedAl Sabah), 문학평론가 겸 前 경희대 국문과 김재홍 교수 등이 각각 수상한다.

같은날 제10회 유심작품상 시상식도 열린다. 만해마을 님의 침묵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에는 ▷시부문: 이홍섭(시인, 강릉원주대 강사) ▷시조부문 : 이종문(시조시인, 계명대 교수) ▷학술부문: 김광식(동국대 연구교수)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는다.

학술심포지엄 문예행사 대동제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학술심포지엄으로 8월 11일 ▷제51회 한국문학심포지엄-공감 ▷우리 현대시대의 획일성 극복을 위하여 ▷아방가르드는 없다, 8월 12일에는 ▷시조 형식의 효용성 ▷시와 생명 ▷한국문학과 아시아문학의 공감적 상생 등이 열린다.

문예행사로는 ▷제14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 백일장 및 시상 ▷제10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 및 입상작 전시 ▷권영민의 문학콘서트 ▷만해시인학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전 대동제 등이 펼쳐진다. (033)462-230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용산 기록' 불교계도 '공감'

4만명 돌파 다큐 '두개의 문'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7월 24일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두개의 문' (감독 김일란 · 홍지유)을 관람했다. 현재, '두개의 문' 은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4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국 38개 상영관에 상영중이다. '용산 다큐멘터리'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영화는 2009년 1월 20일, 경찰 특공대원 1명,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단순히 용산참사의 사건 경위나 철거민의 투쟁과정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경찰 특공대원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2010년 8월부터 진행된 법정 재판 과정도 충실히 담아냈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용산참사를 바라보게 한다.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두개의 문' 포스터

한편, 조계종은 용산참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월과 5월에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봉축법요식에 유가족을 특별초청하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영화감독 장선우의 '나는 이렇게 들었다'



따타가따 여래
장선우 지음
물고기북스 펴냄
2만2천원

"따타가따는 붓다를 뜻하는 열 가지 명호 가운데 하나다. 따타가따는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빠알리어로 오고감이 없다는 뜻이며, 여래(如來)로 한역되어 왔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칭하실 때 이 명호를 쓰셨다."고 시작하는 책은 진리를 찾아 헤매던 영화감독 장선우〈사진〉가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가르침에 환희를 느껴서 쓴 부처님이야기다.

장선우는 영화 〈화엄경〉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알프레드바우어상을 수상했으며, 금강경 사구게를 모티브로 한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제작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역시 불교를 소재로 한 이번 작품은 아직은 영화가 아닌 책(시나리오)이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모든 경전의 시작인 이 말의 주인공은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이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며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다. "스물다섯 해 동안 나는 부드럽고 성실한 몸으로 스승의 곁에서 시봉하였다. 그림자가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듯. 스물다섯 해 동안 나는 부드럽고 성실한 말로 스승의 곁에서 시봉하였다. 그림자가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듯. 스물다섯 해 동안 나는 부드럽고 성실한 마음으로 스승의 곁에서 시봉하였다. 그림자가 육신에서 떨어지지 않듯.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며, 한창 배우고 있는 사람이며, 아직 지혜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던 스승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이다."-〈장로게〉 아난다 편. 그렇다. 이야기는 오랜 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졌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해 번민했던 제자 아난다를 통해서 본 부처님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아난다의 이야기다. 구성은 1부 닙바나(열반)를 찾아서, 2부 까벨라의 노을 또는 출리(出離), 3부 가버린 자 까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 고향인 까삘라성을 찾을 때부터 꾸시나가라 사라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40여 년의 시간을 그렸다. 부처님의 제자들과 당시 마가다국과 꼬살라국이라는 강력한 두 국가의 왕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깨달음에 다가갔는지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부처님 시대의 원음인 빠알리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 그리고 수행체계로서의 사띠빠타나(사념처 수행)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는 영화화를 우선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읽는 시나리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체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라고 그분은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 영화화 되더라도 내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적당한 누군가 멉답게 잘하길 바랄 뿐입니다." 2005년, 영화 '천개의 고원'이 중단되자



아난다를 통해 본 부처님
시나리오지만 영화 안 만들어도 괜찮아

장선우 감독은 제주도란 '먼 곳'으로 스스로를 보낸다. 남들은 '시련'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불연은 태어나기 전부터였을 거라고 말하는 그는 사춘기 때, 헤세의 〈싯다르타〉에서 처음 부처님을 만났다고 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5년 쯤 되었을 때였다. 제주도에서 만난 그는 "진정한 스승을 만났고 방황은 이제 없을 거다."고 했었다. 아마도 그 때가 부처님에 푹 빠져있을 때였던 것 같다. 남들이 말했던 시련이 그를 더욱 부처님 가까이 가게 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을 다룬 작가나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도 부처님을 다룬 대부분의 예술작품들이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고행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데 치우쳐 있다면, 이 책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이후부터 열반에 이를 때까지의 여정을 담으면서 인간과 신들의 스승으로 살다간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170여개에 달하는 주석은 이 책이 얼마나 당대 묘사의 정확성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는지도 말해준다. 뛰어난 사실성과 문학적 감동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을 알게 된다.

어둠속에서 메인타이틀이 떠오른다. "따타가타 1부-닙바나를 찾아서" 기원정사, 어둠 속에서 누군가 경전을 읽는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아난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아직도 닦아야 할 게 많은데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누가 가르쳐주시는가? 나는 내일부터 누구에게 세숫물을 올려야 하나? 누구의 발을 씻어야 하나? 내일부터 누구의 침상을 정리해야 하나? 목 놓아 운다. 다가오는 비구하나. 세존께서 찾으신다고 전한다. 아난다, 아이처럼 눈물을 훔치며 간다." 장선우 감독의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시작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치유와 위안의 시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김재진 지음 | 시와 펴냄 | 9천8백원



시 한 편 읽고 가자.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시인은 없다 · 1997〉의 시인 김재진의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는 80편의 시가 실려 있다. 시인은 말한다. "아픔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좌절감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외로움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것이 휘두르는 칼날에 더 깊숙이 베이며 상처 날대로 상처 나 마침내 흠집투성이 모과처럼 향기가 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읽었을 때 감동하고, 삶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말해온 그는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에서 세상 모든 다친 이들을 위로와 치유의 시편으로 보듬어 안는다. 자물쇠 하나 채우지 않은 방 안에서 문 열지 못한 채 마음의 감옥에 갇힌 이들과 조금 더 위로가 필요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시는 눈과 귀와 마음으로 토닥인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 혼자 있어도 괜찮다. / 혼자 있어도 괜찮다. /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 '토닥토닥' 전문.

책장 곳곳에는 QR코드가 있다. 코드를 휴대폰으로 읽으면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낭송하는 시와 힐링 뮤지션 자닌토의 몽환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소설로 보는 성철 스님

우리 옆에 왔던 부처

이청 지음 | 문화문고 펴냄 | 1만2천원



"영주야, 천렵 가자." 성철 큰스님의 전기 소설이다. 큰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입적하신 해(1993년)에 출간됐던 동명 소설에 큰스님의 60년대 이후,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행장을 덧붙인 증보판이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어낸 큰스님의 발자취를 소설을 통해 다시 한 번 따라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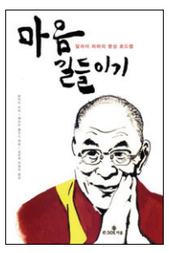
스승이 없다고도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옆에 왔다간 스승의 이야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저자는 "성철 스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고 말한다. 또한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 받아들으면 여전히 우리 옆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며 증보의 이유를 말한다. "불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 보다 나은 진리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버릴 것이다."고 말씀하시던 성철 스님의 생애다. 불교에 귀의한 이후의 행적이 주를 이루되, 그밖에 불교에 귀의하기까지의 갈등과 극복 과정, 살아가면서 만난 귀인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긴 여름의 오후였다. 마을 아이들 넷이 밤나무 숲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큰 밤나무 숲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큰 밤나무 아래 평상을 펴 놓고 누워 책을 보고 있던 영주(성철 스님의 속명)는 비스듬히 일어나 앉았다. "무신 책이고." 첫 장에서 스님의 육성이 들려온다. 바로 앞에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만큼 사투리가 심했던 스님의 육성을 듣는다. 아니 읽는다. 읽는 다는 것만으로도 스님은 곁에 와 있는 듯하다. '왜 죽는가?'로부터 시작된 의문. '영원히 살 수 없는가?'로 이어진 구도. '길'이라고 하는 동서의 그 많은 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의 답을 찾아 그 옛날 왕자처럼 집을 나섰던 스님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이 세상에 오신지가 100년이 되었다. 스승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스님의 생애를 읽으며 우리 옆에 왔다간 부처를 기억해 낸다. **박재완 기자**

괴로움 벗게 해주는 달라이라마의 명상법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라마 지음 | 제프리 홉킨스 엮음 | 김은희, 주영아 옮김 | 이솔 펴냄 | 1만2천원



티베트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명상 수행법이다. 무지에서 벗어나는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명상 수행법을 제시한다. 명상 수행을 통해 '나'라는 것이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를 계발하게 되면,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해로운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바르게 알고 나면 제2장에서는 왜곡된 인식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의문을 던지는 불교적 명상이며,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실제 존재하는 것 위에 우리가 덧붙여 놓은 환상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인 맥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수행법을 알려준다. 제3장에서는 자신의 궁극적인 본성에 깊이 몰입하기 위해 집중과 통찰지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만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만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지, 즉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 바를 구성하는지를 알게 한다. 그의 목표는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못된 개념 없이 정확히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파괴적인 마음과 괴로움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자비심을 키워나가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책은 그자체로 티베트가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며,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조국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1~7/1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청춘출가	김제원 외	솜리
8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예담
9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10	해탈장엄론	감뽀빠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저자 성범 스님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껴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량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행상품
미얀마 성지순례
일 정 : 양곤 / 짜익티오 / 바간 / 헤호 7일 220만원
출발일 : 8월 20일, 9월 7일, 9월 15일 확정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35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다산 주변인물 소설적 구성으로 엮어



다산의 사랑
정찬주 지음
봄아필 펴냄
1만3천원

올해는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탄생한지 250주년이 된 해이다.

유네스코 지정 올해의 기념 인물로 루소,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다산이 오르면서 "정약용은 매우 중요한 한국 철학자로 그의 업적과 사상은 한국 사회와 농업, 정치 구조의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을 얻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산학 연구자들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다산학 학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그의 유배 생활과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정약용의 '사랑'을 그린 정찬주 장편소설 〈다산의 사랑〉은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그렇다고 단순한 한 인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다. 정약용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하나의 '연구'다. 정약용의 주변 인물들, 홍임 모녀나 읍중제자와 초당제자, 홍씨 부인 등이 다산과 어떤 인간관계였는지 작가 특유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소설을 이끌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소설적 상상 요소를 더욱 가미해 인간 정약용의 삶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다.

18년의 유배생활. 그 기간에는 다산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다. 유배지를 찾아오며 다산을 모신 초당의 제자들은 학문의 의지를 품고 다산에게 시를 지어 올리며 출세를 꿈꾼다. 다산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각자 다른 길을 안내한다. 제자들은 서로를 시샘하기도 하고 속세를 떠나 승려들과 마음 편히 어울려 있는 삶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한다. 주막에 모여 다산을 둘러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은 인간 다산의 면모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깊은 교우를 나눈 혜장 스님과 훗날 조선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사로 성장하는 젊은 승려 초의. 그들은 다산의 외로움과 고독을 위무한다. 봄나들이를 떠나는 중 우연히 혜장을 만난 다산은 주막에 앉아 주고받은 몇 마디 말에서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느낀다. 혜장 역시 비범함을 알아보기는 마찬가지다. 혜장은 다산을 백련사로 데려와 차를 대접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차, 속세, 유배, 스승 연담 등 둘의 이야기는 밤새 끝도 없는 공중전으로 이어진다. 이십 대 중반의 풋풋한 승려 초의는 혜장의 소개로 다산을 만난다. 초의의 첫인상은 "몸가짐이 진중했다. 말투가 느리고 행동이 굼뜨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다산이 가르친 제자들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제법 번득이는" 초의 승려의 시를 알아본 다산은 초의에게 시를 가르쳤고 학문에 대한 의욕이 식지 않기를 바랐다. 초의 역시 다산의 가르침을 얻은 제자가 된다.



다산 정약용 영정

다산… 혜장, 초의선사와 교분
다산의 인간적 고뇌, 슬픔 묘사

이런 다산에게는 적적함을 채워준 여인이 있었다. 제자 이청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며칠 머문 학림마을의 '남당네'였다. 남편이 죽고 친정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따라 술청 일을 돕던 미모의 그녀는 정약용의 눈에 들었다. '남당네'는 어린 나이로 예는 아직 몰랐으나 그 모습이 참하였고, 딱한 사정마저 다산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산과 '남당네' 사이에서 딸 '홍임'이 태어났다. 홍임이는 다산의 눈을 쏙 빼닮았다. 게다가 영특하기까지 하여 다산이 집으로 들어갈 때 데려가 공부를 꼭 시키기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부인 홍씨는 홍임이와 홍임 모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다. 다산은 이를 안쓰럽게 여겨 형님 집에 마련된 별채에서 둘을 머물게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남당네는 정약용에게 헌신적이었고 특히 차(茶)를 잘 끓였다. 혜장에게 배운 차 달이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차 종류에 따라 찻물의 온도와 따르는 양을 달리하여 "달빛이 드리운" 것 같은 차를 내놓았다.

다산의 나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떠나갔다. 다산의 세월은 아름답기도 했으나 외로움이 늘 따라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인간 정약용의 '사랑'이 있다. 소설은 정약용이라는 인간과 주변 인물들의 굴곡진 삶을 선연하게 그리고 있다. 어떤 이는 필연적으로 다산을 찾아왔으며 다른 이들은 우연히 다산을 만났다. 또 다른 이들은 다산 곁에 오래 머물고 싶었으나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인물들의 사연은 서로 실타래처럼 얽혔다가 다시 풀어지기도 하였으며, 소설은 이를 통해 가슴에 고인 슬픔을 정처 없이 흘려보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을 연구한 학문과는 다른 소설만의 강점이다.

아름다운 풍경의 강진, 그 속에 녹아든 구수한 남도 사투리. 다산이 살았던 유배지들의 묘사를 바라보면 다산의 고독과 슬픔, 더 나아가 우리들의 고뇌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다산을 연구한 수많은 학문들과 차별화된 소설은 다산의 생을 가장 선연하게 나타낸 연구이자 논문이다. **김주일 기자**

사회의제 불교로 바라본 시론집

김성철 교수의 불교하는 사람은…

김성철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3500원





지난 1년동안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부 · 사진)는 〈불교신문〉을 통해 매주 한 번씩 '실천불교'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했다. 이 글들이 불교를 신행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지침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그렇게 총 48편의 글이 모여져 이번에 출간됐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물학, 사회철학, 뇌과학, 논리학, 윤리학, 역사, 유교, 심리상담, 정책결정, 정보통신문명, 생명윤리, 종교의례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불교를 해석했다. 고정 지면의 연재물로 분량 제한이 있었기에 각 주제에 비해 글들이 압축적이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의제들에 대해서 김성철 교수가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담아 쓴 불교시론집이다. 김성철 교수는 이 책에서 불교를 '믿는 불교', '하는 불교'에 대한 고민과 불교를 응용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즉 보시와 지계, 그리고 수계와 생명윤리, 수행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많은 점들을 서로 알고 논의하고자 했다.

또한 불교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조그마한 부분서부터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논의돼야 할 것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시대의 불교의 역할,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해 불교인으로서 말하고 있다. 끝으로 지식으로서의 교학체계가 아니라 삶의 좌표로서의 연구 자세를 대담형식으로 진지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필자가 각종 지면에 기고한 글들 가운데 불교의 실천과 관계있는 열다섯 편을 추려서 '불교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또한 일부 잘못된 권력자들의 종교편향에 항거하며 2008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던 범불교도대회 즈음에 기고했던 글들과 우리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글 몇 편을 '파사현정의 길'이라는 주제로 모았다. 끝머리에는 〈참여불교〉에 실렸던 '대담' 기사를 싣는 등 다양한 구성이 돋보인다.

김주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이웃 종교 가르침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천성산 터널이나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의 경우 비불자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전통과 현대의 갈등, 남북통일의 문제,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문제, 생명공학과 윤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서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다' 중에서**

-세속의 사회에서는 권력과 금력의 우열에 따라 사람의 서열을 매기지만 승가사회에서는 세속과 상반된 가치체계로 그 구성원의 서열이 정해진다. 가장 선량하고, 검소하고, 자비롭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수행자를 최정상에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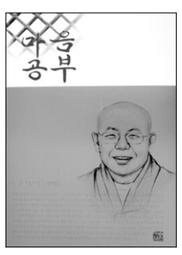
세속의 권력과 금력에 대한 복종은 겉모습뿐이다. 그러나 지계청정한 스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심은 속이든 겉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결같다. 그런 삶을 사시는 모습만 보고도 세파에 지친 이들은 너무나 큰 위안을 받기 때문이다. 각박한 신자유주의의 가치관에 대해서 불교는 해독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중화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불교의 본분이다. 부처님 당시에 그랬듯이, 승가가 세속과 상반된 삶의 모습을 시현할 때 불교는 가장 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교가 흥하려면' 중에서

도정 스님의 40년 마음공부법

마음공부

도정 스님 지음 | 마음살림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진실한 참 깨달음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불자들을 위해 낸 도정스님의 수행법문이다. 최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구인사 상월원각대조사님 문하로 출가해 40여년 수행해 온 도정스님의 치열한 수행 모습이 책 속에 녹아있다. 마음을 주제로 한 도정스님의 생활법문을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제에 접근하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만나는 고민과 수행의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 불자들의 시선을 잡아 둔다. 고요하지만 깊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속처럼, 자신의 고민과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인 불자들의 시각에서 만나는 고민들을 한 올 한 올 마음공부로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솔직하게 불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를 내려놓는 수행의 길을 걷는 진솔한 그 모습이 불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더욱 깊은 불교의 세계로 인도한다. 저자는 도란 끝이 없는 것이라며 수행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을 던지고 있다. 또 두텁게 쌓여 있는 어리석음과 욕심을 잠재우기가 어렵다고 쉽지 않은 고민을 고백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저자의 모습에 독자들은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음공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통을 찾고, 고통을 찾아가는 마음을 개발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인간성을 찾는다.

김주일 기자

계절에 맞는 사찰 숲길 24곳 소개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9천원



걷기 열풍이 거세다. 그 열풍은 다양한 길트기로 이어지고 있다. '올레길' '둘레길' 등등 예전에 없던 길들이 속속 생겼다. 걷기 열풍을 말할 때 베르나르 올리비에를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 퇴직 언론인 출신인 그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마르코 폴로가 말을 타고 갔던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1만2000㎞ 비단길을 오로지 걸어서 건넜다.

〈천년사찰 천년숲길〉은 20년 동안 불교 전문기자로 활동한 저자의 걷기명상 에세이집이다.

취재차, 또는 개인적으로 줄곧 사찰을 다니면서 걸었던 숲 길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천 년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그 숲길을 걸었을 수많은 선지식들의 수런거리는 소리를 듣고, 겹겹의 세월 속에 담긴 그 사연들을 우물에 마중물을 부어 끌어올리듯 퍼 올려 모았다.

송광사 징검다리길을 건널때 저자는 원오스님의 '조고각하'를 떠올렸다. 때론 사람의 그리움도 길 속에 묻어났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는 서울 수국사서 짧은 생을 마감한 일지 스님과의 이야기들이 저자의 뇌리를 스쳤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계절에 따라 걸을만한 사찰 숲길 24곳을 소개했다. 봄에 걷는 동백숲길과 꽃길 그리고 대숲길, 여름에는 그 푸르름이 한창인 전나무 숲길, 가을에는 울긋불긋 비단을 수놓은 듯한 단풍길과 금강송길, 겨울에 걷는 눈 쌓인 백담사 돌탑길과 실상사 장승길 등이 그것들이다. **김주일 기자**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www.gounsa.net
고운사 여름수련회 (어린이. 중·고생. 일반)
천년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청정도량 고운사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나는 여름 고운사로 가자
어린이 수련회

● 일 시 : 2012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 참가비 : 오만원
● 대 상 : 초등학생 누구나

what is the Buddha?
중 · 고생 영어수련회

● 일 시 : 2012년 8월 3일~5일 (2박 3일)
● 참가비 : 칠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여벌 옷, 운동화 및 개인용품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일반 여름 수련회

● 일 시 : 1차 수련회 (8월 6일~ 8일)
2차 수련회 (8월 9일 ~11일)
3차 수련회 (8월 12일~14일)
● 참가비 : 일십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개인용품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참가신청 : 고운사 홈페이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 참가문의 : 고운사 종무소 054)833-6933. 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정서치유를 위한 승마훈련과 禪무드라 명상 테라피'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41회 (21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승마 정서치유와 호연지기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 언 제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8월 25일 (5주간)
※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 - 49만원 / 2주 - 90만원 / 3주 - 110만원 / 4주 - 13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모자 · 개인 컵 등(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정서치유 : 명상테라피,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테라피, 무용테라피, 전통음악테라피(판소리,전통악기),생태체험치유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4만명(외국인 템플스테이 6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의상이 원교일승의 철학을 주장한 까닭은?

화엄에 관음·정토 융섭…서민과 만나다

1. 실천적 화엄의 전교

『삼국유사』「의해」의 '의상전교'라는 조목 이름처럼 의상(625~702)은 화엄원교의 구법과 전법으로 평생을 보냈다. 비록 그의 구법은 지엄 화엄에 원류를 대고 있지만 신라 귀국 이후 의상은 원교의 전교를 통해 해동화엄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리하여 그의 화엄사상은 신라 중대 이후 한국불교사상의 줄기를 형성했다. 의상 화엄의 특징은 하나인 근본을 강조하여 그 속에 연기된 모든 법상(法相)이 융섭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법성 원융의 본제(本際)에 돌아가는 것이 구래부동불이므로 구래불의 세계나 해인삼매가 곧 여래성의 현현인 성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체(理體)와 사상(事相)은 상즉상입하는 불이의 관계이므로 원융무애한 우주관이 일승법계이므로 의상의 사상은 성기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상은 융회적인 중도관의 전개를 통해 중도실제상을 건립하고 있다. 중도실제는 성기관을 특성으로 구축되며 구래부동의 설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원리적인 하나를 중시하여 그것의 앵글로서 전체를 미루어 파악하려 하였다. 의상의 『법계도』 중의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의 중문(中門)과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의 즉문(卽門)에 대한 균여 등 고려 승려들의 주석에 의하면 "하나 속에 일체가 융섭되며 융섭된 일체의 하나 하나에도 또한 일체의 만상이 융섭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상의 근본적인 '하나'로 일체의 '만상'을 융섭해 보려는 관점은 여래성의 현현인 횡진법계적 관점이자 성기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융회적 중도관 전개, 충도실제상 건립
'하나'로 일체 '만상'을 융섭
의상의 화엄은 한국불교사상의 줄기

의상의 화엄사상은 그 안에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융섭하고 있어 실천성을 띄고 있다. 귀국 이후 그는 낙산사에다 구고구난(救苦救難) 신앙으로서 관음신앙을 담아내었다. 동시에 부석사에다 미타신앙으로서 정토신앙을 담아내었다. 그는 관음 독존의 습속에서 벗어나 정토신앙을 흡수함으로써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융섭하고 있으며, 다시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을 융회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확장하였다. 의상의 관음신앙은 『화엄경』「입법계품」에 근거하고 있다.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몸과 마음의 본체인 법계에 들어가 52(53)명의 선지식들에게 진리에 대해 묻는 역정을 담고 있다. 그 과정은 자기와의 싸움이자 보살행의 과정이었다. 그가 「백화도량발원문」과 「일승발원문」을 지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우주의 원리와 세계의 법칙을 해명하는 화엄철학을 논구하는 한편 정토신앙을 통해 서민대중과 서민대중과 하층민을 향해 현신왕생(現身往生) 신앙을 제시했다. 그가 『입법계품초기』를 저술한 것과 관음신앙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이 저술을 통해 선재동자의 끊임없는 정진과 원력을 깊이 체득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보현보살의 원행으로 이어지는 화엄의 실천적 사상은 서민 대중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정토신앙을 포용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 실린 의상의 제자 진정(眞定)의 '효선쌍미'(孝善雙美) 즉 효행과 선행을 겸수하는 신앙은 당시 출가와 부모의 봉양 문제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한 불교계의 답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횡진법계관

화엄사상의 원리는 법계의 연기(緣起)와 여래의 성기(性起)의 구도로 해명된다. 여기서 연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를 해명하는 원리이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은 모두 비실체성(공성)의 덩어리일 뿐이다. 그런데 이 공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물은 연기에 의해 '둘'이 되고, 다시 연기에 의해 '넷'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연기는 사물[事]과 사물[事]의 관계에 대한 원리이다. 반면 성기는 연기의 구극, 즉 연기가 이루어진 일승법계의 극치를 가리킨다. 여기서 "'기'(起)는 대해(大解)와 대행(大行)의 분별을 떠난 보리심 안에 있음을 가리킨한다. 이것은 연기성으로 말미암아 '기'라고 하지만 '기'는 곧 '불기'(不起)이며, 불기는 곧 성기(性起)이다." 때문에 연기는 '연'을 떠나서는 성립되지 않지만, 성기는 연을 떠나서도 줄어들거나 무너지지[損壞] 않기 때문에 성기가 더 상위 개념이다.

이것은 유위세계의 원리인 연기, 즉 삼승의 입장과 무위세계의 원리인 성기, 즉 일승의 입장에서 변별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연기와 성기를 바라보면 성기는 곧 연기의 구극, 즉 법계연기의 극치임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성기는 연 없이도 성립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는 연이 모이거나 흩어짐에 의존하는 삼승연기에 대해 이것을 초월하는 일승연기의 입장이 성기인 것이다. 의상의 스승인 지엄은 성기의 성을 순리(純理)의 행성(行性), 즉 진실 그 자체의 실천의 본성으로 규정한다. 때문에 보현행이 성기에 속함을 「보현행원품」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여래출현을 상징하는 성기의 모습을 연기의 구극적 입장이라 파악했기에 가능한 표현인 것이다.

의상은 십지(十地)의 비유를 통해 횡진법계관을 밝히고 있다. 그는 '십지 중의 십지'를 '일왕십지(一往十地)의 비유' 또는 '십층십탑[橫盡]의 비유'를 '십층 일탑[竪盡]의 비유'로 바꾸어 설명하기도 한다. "만일 십지론에 의거하여 초지에서 십지로 감을 세워서 말하면, 첫 환희지를 부를 때 나머지 구지가 모두 덩달아 '나도 환희지', '나도 환희지'라 일컬으면 이것은 의상의 주장이다. 첫 환희지를 부를 때 나머지 구지가 '나는 이구지', '나는 발광지' 내지 '나는 법운지'라고 하면 이것은 법장(法藏, 643~712)의 주장이다. 만일 십층 일탑을 세워 달리 비유하면 첫째 층을 부를 때 뒤의 아홉 층이 일컫기를 '나도 첫째 층', '나도 첫째 층'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상의 주장이다. 첫째 층을 부르는데 뒤의 아홉 층이 말하기를 '나는 둘째층' 내지 나는 '나는 열째 층'이라고 하는 것은 법장의 주장이다."

의상의 횡진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지'이며 나머지 구지 역시 초지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초지를 환희지라고 부를 때 나머지 구지들도 각기 덩달아 환희지라고 일컫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때문에 횡진법계를 설명하는 십층 십탑의 비유는 결국 수진법계를 설명하는 십층 일탑의 비유로도 전이된다. 왜냐하면 십층 십탑의 비유는 첫 탑의 각 층에 나머지 아홉 탑의 각층이 속하게 되므로 곧 십층 일탑의 비유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횡진법계는 시방세계의 무진연기와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십층 십탑'의 각 층이 첫째 탑의 첫째 층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상이 「법성게」에서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 한 것은 한 티끌 안에는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하나 안에는 전체가 들어있다는 언표이다. 이것은 횡진법계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상은 초지인 환희지를 통해서 십지를 말하듯 일즉다의 전개(확산)을 중심으로 다즉일의 통합(응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 중도실제상

불교는 보이는 세계[相]인 색(色)과 보이지 않는 세계[性]인 공(空)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화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성(性)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인 상(相)의 세계에 대해 조화와 균형의 논리를 보여준다. 즉 보이는 세계[有]와 보이지 않는 세계[無]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공관(空觀) 혹은 정관(正觀) 혹은 중관(中觀)이라고 한다. 의상 역시 공관 또는 중관 혹은 정관의 관점 위에서 제법을 상(相)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진 인연으로 돌이켜 도리(道理)로 파악하려 하였다. 해서 연기된 제법은 연이 다하면 사라지므로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또 그것이 만들어진 인연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두 융회되어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연기된 제법인 색(色)으로서의 상(相) 보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연(緣)으로서의 성(性)에 집중하였다.

의상은 "연기된 제법의 본성[法性]은 원융하여 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제법의 본성인 법성은 유와 무, 일과 일체 등의 두 가지 대대(待對)를 융섭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보았다. 그리고 의상은 법성은 진공(眞空)이며 진공은 '텅 빈 것'도 아니고 '꽉 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 실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는 성과 상, 공과 색의 두 변견을 융섭했기에 중도이며, 지극히 미묘하므로 중도이며, 두 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융섭은 인(人)과 법(法)과 교(敎)를 포함해서 제법의 모습이 모두 같아져 하나로 합쳐지므로 중도인 것이다. 그런데 중도는 성과 상으로 대비되는 이변(二邊)의 융합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모든 존재[諸法] 즉 제변(諸邊)에 모두 시설되어 있다. 때문에 법계 연기의 현상이 원융하고 무애하다는 인식은 중도사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공과 가' '성과 상' 차별없는 중도로 봐
해인으로 삼라만상의 근원 자리 설명
구래부동불 '해인삼매'… 잠든 부처에 비유

의상은 공과 가, 즉 성과 상을 차별이 없이 중도적 입장으로 보고 있다. 그는 연기론적 입장이 아니라 성기론적 입장을 취하며, 가관적 입장이 아니라 공관적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공과 가, 즉 성과 상을 같이 보면서도 공 안에 가를 담으려 하고, 성 안에 상을 담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성인 '하나' 속에 '전체'를 담으려는 의상의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법계연기의 무진(無盡)한 제법을 중도 논리로 이해하였고 연기된 제법의 통합을 위해 중도를 시설하였다. 의상은 중도의 설정을 통해 법계연기를 설명하고 법계도 작성을 통해 근본인(印)을 세웠다. 그는 일체만상의 본성인 진여본각(眞如本覺)을 해인(海印)으로 설명하고, 해인으로부터 삼라만상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화엄경』에서 설한 법계의 연기현상이 모두 해인정(海印定)에서 일어났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연기된 제법의 본성에는 고유한 성품이 없으며[無性] 그 때문에 그것에 의한 법성은 머루름도 없다[無住]. 그러므로 비록 무한한 연성(緣成)을 갖지만 무진한 연기법 자체가 고유한 성품이 없으므로 참다운 성품이 된다. 그리고 제법 속에 상대하여 존재하는 본성과 가상은 결국 무성하고 무주하므로 서로 분별이 없고 걸림이 없어져서 혼연된 일체를 이루게 된다. 제법은 무한한 연성을 가지면서 변모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연성은 바로 진성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제법의 본성은 공하기 때문에 무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법의 공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연기법이 분별이 없어져 실성(實性)을 이룬다. 그러므로 의상은 '본래 고요한 것'이자 본성인 '공'을 '구래'(舊來)로 설정하고 제법의 본성인 공을 '부동'(不動)으로 파악하여 '구래부동불'을 중도의 상(床)에 실제(實際)가 앉아 있는 것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구래부동불(舊來不動佛)을 자리에 앉아 잠든 자기불로 비유하였다.



의상 스님의 진영. 의상은 법계도 작성으로 근본인을 세웠다.

참고문헌

의상, 『화엄일승법계도』(『한불전』 제1책).
의상, 『백화도량발원문』(『한불전』 제1책).
의상, 『일승발원문』(『한불전』 제1책).
전해주, 『의상화엄사상사연구』(민족사, 1989).
김두진, 『의상,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민음사, 1995).
고영섭, 『한국불학사: 신라시대편』(연기사, 2005).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TIP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TIP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글게 이은 지붕에 빗물이 쉽게 스며들 듯 잘 닦지 않은 마음에
욕심이 쉽게 스며드네. 잘 이은 지붕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듯
잘 닦은 마음에 욕심이 스며들지 못하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무상1년, 유상10년 A/S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31)965-2807
010-4727-0311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불교 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계룡산 천황사 기도도량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공양주 보살 구함
(50세 후반 ~ 60대 중반)
가족 두 내외분
같이 오길 원함
(대전)
010-5209-7420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육임은 神視입니다. 신을
잘못 받아서 헤매이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십시오.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출가 1,2년차 비구니 및 행자(비구니 모집)
사찰에서 실시하는 소정 기초
교육 이수 후 출가자로써
열심히 기도정진할 수 있는
학력과 나이에 관계 없으며
사찰을 관리할 있는 자.
010-2669-1800
(안동) 영남산 지장사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강사
010-2418-6222

배 우 자 구 함
남 59세. 농장 운영 겸 회사원
텃밭 가꾸며 외로움과
노후를 함께 할 홀로 되신
진실한 여성 인연 바랍니다
(평일만 19시 이후 통화 됨)
010-4074-307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주)
017-206-0113

기 적 의 물
■ 만병치유의 자화육각수, 지상수,
암반수가 나오는 각 지역 사찰
한 곳만 지정하여 최저비용으로
설치가능
■ 국내최초, 자장황토 '氣'토굴 쑥뜸방 설치)
010-4191-0455
무아스님 합장

심 와 기 도
• 전생과 이승의 업을 동시에 소멸시키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전
스님
모십니다
(개원사)
010-2515-0664

(급) 공양주 보살님
(50대) 모심.
(급) 처사님(60대) 모심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서울 산속 조그마한 암자
02)954-984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3450-1147

전통 범음범패 (바라 ·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사물, 불교의식, 기초교리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6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연 락 처 : 051)442- 1818. fax 051-442-1817
010-9467-0340 (교육상담 성각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40세 미만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010-9468-1714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비구니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가야공원 내 사찰)
051)891-1051
051)891-7255

배우자 구함 (男 56세)
공인중개사 운영
도심 속에서 벗어나
시골 생활을 찾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여성 인연바람
011-717-53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대는 40이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님
월급 관련은 면접 후 결정
월 4회 휴무.근무 6개월때
월급의 100% 보너스
사성암 종무소
061-781-4544
010-4709-434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건봉사
• 주 지 : 眞現(박진성)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
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
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고 (古) 건 물 수 리 전 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불자정보 26 | 898호 | 전면광고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6평
- 요사 : 190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부산
- 법당 : 44평
- 요사
- 부지 :17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북
- 법당 : 35평(5포7포)
- 요사 : 60평
- 삼성각 : 5(목조)
- 부지 : 220평
- 가액 : 20억(조정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좋은 토굴 터 (완도)

- 부지 : 600평
- 즉시 건축 가능
- 바닷가 500m 바다 전망 최고
- 포장도로 접, 소나무 뒷산
- 총금액 : 4200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소재
- 부지 : 12,000평(대지 5,000평)
- 법당: 30평 • 요사: 2동 150평(신축)
- 가액: 16억 5천만원
- 특징 : 토목 공사 및 신축건물 공사비만 15억이상 투입된 대가람으로 복지관이나 대작불사에 뜻이 있는 분의 연락 기다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소재
- 부지 : 600평(종교용지)실사용평수 2500평
- 법당: 30평 • 요사:2동 60평
- 기타: 산신각, 석탑등,
- 가액: 3억 7천만원
- 특징 : 계곡과 산을 끼고 있는 기가 막힌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010-5848-0455/ 서울010-5828-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 대지 : 70평
- 2층 총 60평 건물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사찰주변공원 경관수려
- 공원주차장 사용가능
- 지역에 잘 알려진 사찰
- 가액: 2억 7천만원

010-4534-669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포교당 75평
- 대명5동 58-7 [지하철 30m]
- 8차선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 건물에 3층
- 보 1000만 월세 75만=관리비 수도세포함
- 5존불 법당만 45평
- 시설비 1700만 조정가

053)657-0151
010-2273-7631

포교원안내

- 위치:목포시산정동 (사거리 코너 건물)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 칸막이 사무실1칸, 작은방, 화장실2
- 집기일체 양도 • 4층의 3층, 43평
- 길건너편 아파트 1400세대 공사 착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근교
- 서울1시간 거리의 60여년 창건역력
- 삼성각, 종각, 대법당
- 2층 종무실, 요사채2동
- 건평 총 146평
- 종교용지 364평, 임야 1,690평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010-9669-1358

사찰 및 수익사업 최적지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호선 인천지하철 W역세권)
- 대지 143평(상업지역)
- 3층건물(연 건평 200평) (주택 30평 별도)
- 사찰운영 및 별도, 수익사업 최적지임
- 평당 1천1백만원

010-3408-0003
010-2262-0001

사찰부지안내

- 경남 창원골프장 반대편 산등성이
- 전 4000여평중 무작위로 골라서 1300평, 분할도 가능
- 평당 110만원(70평 이축권포함)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짱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 인구 110만명의 통합 창원시 도심 주변 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부지안내

- 통영시 棉花山 9부능선(해발 100m)
- 비력계곡, 계획관리지역
- 전 600, 800평, 평당 25만원
- 자연의 고요함과 짙은 숲속 내음 사철 흐르는 물소리
- 산세가 목화꽃 같다는 棉花山큰 자궁터
- 안정국가공단 뒤산 이순신 장군의 대승첩지 고성군 당항포만이 바로 발밑에(세계공룡엑스포개최지)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 평수 40평(사찰등록)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별도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700만원(비품일체)

055)252-31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
- 전답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건 물 안 내

- 부산 지하철 1호선 역세권
- 포교원 하면 정말 좋습니다
- 대지 110평, 건물 800평
- 임대료 보증액 3억 월세 1400만원
- 융자 8억 • 가액: 27억

010-8676-227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 주차용이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5억 3천만원 (대출1억4천포함)
- 현지 답사 후 조절 가능
- 미분양납골320기, 1기분양가 250만원

010-5262-554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진군 북면
- 대지: 800평, 하천부지 200평
- 대웅전 23평, 산신각 4평, 요사채 방2개, 부엌1
- 화장실 남녀 1칸씩, 주차장완비
- 채소밭 70평, 각종 과일나무 및 꽃나무 많음
- 비닐하우스 2동
- 산 깊고 물 좋은 곳, 기도발 잘 받는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54)782-0659
010-4847-06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청강리
- 평수: 65평, 3층의 2층
- 천수천안, 후불, 신중
- 방3, 주방, 탈의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48-261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천강리
- 50평, 단독주택
- 법당, 방3, 화장실 3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협의

010-9320-546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 방1, 법당1, 주방1, 화장실1
- 보증금 2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없음

010-4558-38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 평수 226평, 법당 1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9천 5백만원

010-4536-817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1-9725-319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영해면 초등학교 부근
- 자그마한 토굴
- 가액: 7500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 주세요

010-7700-9771

포교원안내

큰절 소임 관계로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 위치: 부산시
- 5층 건물 -4,5층 170평
- 엘리베이터 있음
- 시설완비, 즉시법회 운영가능
- 보증금 1억 월 150만원
- 시설비 약간

051)973-0340

주택(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양읍에서 차로 5분거리
- 마을 끝 한적한 주택 3동
- 건물 36평
- 대지 98평 도로 계곡 접합
- 암자 시설 가능 2900만원
- 주인직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 단독 2층 중 1층 전부 50평
- 법당, 방4, 공양간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700만원

010-7382-030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 5층 건물 -4,5층 170평
- 엘리베이터 있음
- 시설완비, 즉시법회 운영가능
- 보증금 1억 월 150만원
- 시설비 약간

051)973-0340

사찰(급)안내

- 위치: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
- 가액: 2억 9천 5백만원
-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팔공산 한티재 부근
- 대지 200평,법당, 요사채 60평
- 삼존불, 노상 지장보살님
- 집기일체 양도
- 주변 경관수려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016-849-88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 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조정가능)

010-4781-8658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 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사 찰 안 내

- 지리산 중산리 천왕봉아래 주변 경관 수려함(계곡, 좌우, 전방전망시원함)
- 부지: 1000평, 법당 30평, 설법전 80평, 요사 60평
- (공통건축시공 : 전통목조기와, 황토시공)
- 도로포장, 차량진입, 풍수적으로 완벽한 도량
- 가액: 4억 8천만원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이마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011-809-7434주인직접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 2,3층 사용 (각 8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답사후 절충)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50평, 방2, 법당, 공양간, 최고시설
- 화장실2, 창고1,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상담 후 재절충 가능

010-6481-4567

포교원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부천 지원 옆
- 5층건물 중 4층 45평
- 엘리베이터 있음
- 시설A급, 방2, 거실,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674-1356

포교원(급)안내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소재
- 대형 3층 상가 內, 2층 43평
- 삼존불 및 법당시설 완벽
- 상가內 포교당 양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세보다 저렴)

010-4668-655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시메인사찰
- 부지 : 3000평
- 법당 : 40평(목조기와)
- 전각 : 6개
- 가액 : 33억5천
- 위치 : 경기화성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목조기와집)
- 요사 : 25평
- 가액 : 5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큰절터안내

스님과 불자님께만 해당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참 괜찮은 땅1300평, 경남 창녕 길곡면
남향 뒤쪽과 옆쪽은 솔밭
마을 뒷편 포장도접 건축용형질변경
허가 받았던 길지, 큰스님 절터
감정받은 명당지, 전기가설완료료
작은 계곡 접 평당 17만원(부동산 사절)

中山 합장 010-3872-0354

별장식 암자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대지 290평
- 별장, 요사채 45평, • 법당, 조립식 17평
- 산자락 위치, 남향
- 조경 최상, 교통편리, 자동문 차고
- 가액: 3억 5천만원
-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500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 답사후 결정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9342-8110

도심암자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삼랑진읍
- 삼랑진 기차역에서 20분거리의 도심암자
- 평수:대지 : 63평
- 법당:11평, 요사채: 25평 현대식
- 30대이상 주차장시설 완벽
- 가액: 8,500만원 (스님,법사,영철학자,보살님 참 좋음)

010-2055-3366(스님 직접)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 60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약 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 등
- 가액: 20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 내부관리 상태 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 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아담한 토굴안내

- 강릉시 사천해수욕장 뒤 아담한 토굴
- 큰 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 대지 텃밭 합 약 250평 (1년도지 20만원 야채는 자급자족)
- 법당 외 방 4개, 목욕탕 1개 화장실 2개, 종1, 집기일체
- 양도 가액 3,970만원(절충불가) 공동불사도 가능

010-2461-3014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도다 - 별역잡아함경 -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 병석 명상법 -

〈4〉 깨달음에 이르는 길

'내가 안다' 꼬리표 붙지 않아야 진정한 앎

꼬리표에 끄달리지 않으면 이분법 멈춰

이처럼 알음알이 놀음을 놓아버리는 앎에는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따위의 꼬리표가 붙어있질 않습니다. 이런 앎은 꽤나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빈틈없이 지켜보아야 하지요. 이와 같은 빈틈없는 지켜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당신의 지혜는 그처럼 매우 숙달된 빈틈없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혜가 빈틈없고 숙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적 차원에서든 외적 차원에서든 사물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당신의 지혜는 그다지 분명한 것이 못되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겨우 초보단계의 빔(空)에 눌러앉아 꼬리표나 달면서 끄달리고 있다 보면 오온만 잔뜩 쌓게 되과 말 것입니다.이런 초보단계의 빔은, 순수하고 단순한 의식 단계에서 바로 앎을 놓아 보내는 그 앎의 빔, 즉 진정한 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빔에서의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십시오. 한순간이라도 놓쳤으면 바로 되찾도록 하십시오. 꼬리표나 의미에 끄달리지만 않으면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곧바로 멈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빈 것으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사물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사물을 틀지우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빔입니다.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비어있는 마음을 제대로 한번 알아차리면 그때부터 당신은 어떤 것에도 더이상 끄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빔을 그저 어설프게나 알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런 저런 망상에 끌려 비우는 공부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비우는 공부는 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당신이 더 깊은 차원으로 수관하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빔의 주변을 겉돌고 있을 뿐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빔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당신 앞에 지금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그 현상에서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철저히 밝혀낼 때까지 정신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관해야 합니다. 마음이 이 단계에 이르면 의미나 꼬리표 따위에 끄달리기는 커녕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차원의 빔을 바로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라는 신체적 정신ㅈ거 현상들의 쌓임[正蘊]에는 더이상 문제될 일도, 꼬리표를 달 것도 없게 됩니다. 그것들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질 때가 되었다 해서 새삼 흥분할 것도 심란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본성대로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아픔을 겪는 것뿐이지요.

법은 바로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다해도 잘못 보기 때문에 그것에 끄달리면서 고통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챙김[正念]과 알아차리는 통찰[正知]의 눈으로 사물을 관하게 되면 우리를 괴롭힐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통이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사 그것을 두려워한들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체적 · 정신적 현상을 움켜잡지 마세요

신체적 정신적 현상은 제 나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무상한 채, 제 나름대로 긴장한 채, 제 나름대로 우리의 제어범위 밖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자꾸만 손을 뻗쳐 움켜잡으려 들며, 그것들의 고통과 긴장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긴장이라고 우기려 드는 것입니까. 현상의 움켜쥠이 우리를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것임을 매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바로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놓아버리는 일뿐이며 한 가지 더 있다면 고통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양을 지켜보는 일일 것입니다.

사물의 본성에 대한 지혜는
깊숙히 숨어 있으므로
날카로운 눈으로 빈틈없이
지켜보아야 '알아차림' 숙달

빈마음 제대로 알아차리면
더이상 끄달리지 않지만
어설프게 알면 망상에 끌려
비우는 공부 혼란에 빠진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세요
사물이 완전히 해체되면
재생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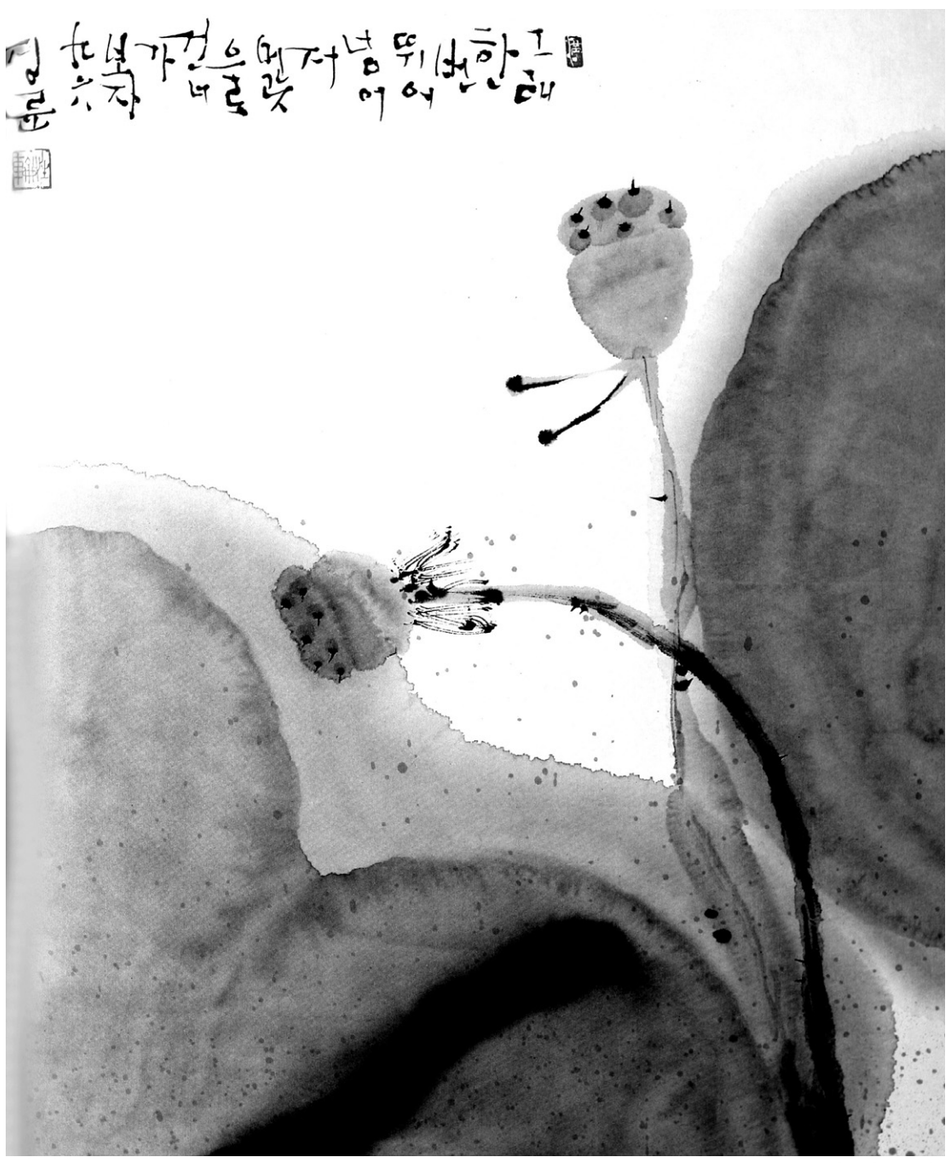


그림 · 성륜스님

그러니 지금까지 말한 대로,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계속 관하도록 하십시오. 거기에다 '마음' 이라거나 그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 짓은 하지마십시오. 그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연의 순연한 상태대로 놓아두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무엇에도 의미부여나 꼬리표 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고통은 끝이 날 것입니다. 사물이 완전히 해체된다는 것은, 더이상 그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싹도 붙어있지 않은, 바로 식계(識界)라는 원점에서부터 해체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더이상 어떤 류의 재생도 죽음도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수행은 당신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물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마음챙김과 통찰력이 발전한다면 그것은 날이 잘 선 도구를 수중에 지닌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리하게 닦는다면, 번뇌도 갈애도 집착도 계속 뿌리뽑혀나가 결국엔 깨끗이 청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해온 공부만큼 벌써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어느 것에도 연루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러고는 마음이 그 자체를 놓아버릴 때까지 계속 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찌 법의 위대한 가치를 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집착을 비우고 일체의 '나' 의식도 비워서 마음이 분명하게 당신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그래서 마음이 곧 법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바로 법이 되도록, 그래서 매순간 순간마다 그 본연의 모습이 당신 앞에 소소영영(昭昭瑩瑩)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법이 되도록 비우세요

마음이 일단 기본 수준의 빔(空)에 도달한 다음에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활력 강장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플 때는 고통이 우리를 넘보며 마음을 어지럽히려 들지만 법문에 귀 기울이고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고통은 마음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단순한 육체적 사안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법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음의 사실을 관해 보십시오. '마음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보니 고통 그까짓 것이야 어찌되건 놓아버렸구나, 그랬더니 마음이 비게 되는 구나…….' 하고 말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마음은 집착을 놓아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껏 한 번도 그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이에 대해 숙달된 방법으로 성찰해 본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단 진리를 보게만 된다면 마음은 언제라도 환히 밝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앎은 마음을 즉각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니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아직 지혜가 무르익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최소한 기본 수준에서라도 중정함[中正性]과 빔[空性]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노라면 육체의 고통도 문젯거리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집착하여 매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에 대한 알아차림을 육신의 단순한 감각 차원, 바로 거기에 묶어두십시오. 고통이 육신의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조차 고통에 휘말려들게 하지는 마십시오. 마음까지 고통에 휘말려든다면 번뇌가 켜켜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마음을 단속하고 번뇌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눈을 돌려 지각의 가장 깊숙한, 가장 내밀한 부분을 찾아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깥의 고통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1901~1978 태국여성법사)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잎 시리즈 중 32편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의 내용입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현우경' 이야기 (30)

999명의 사람을 죽인 무뇌

어머니만 죽이면 손가락 천개를…

어느 나라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자의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아들을 무뇌라 이름 지었다. 무뇌는 다름 사람보다 힘이 무척 셌다. 그는 장성하자 혼자서 천명을 대적할 정도로 장사가 됐다.

그는 머리도 총명해 세상의 많은 학문을 알고 싶어 했다. 무뇌의 아버지는 한 선비를 찾아가 무뇌를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무뇌는 그 이후 선비네 집에 드나들며 학문을 익혔다.

그때 스승의 아내는 무뇌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스승은 중요한 일로 집을 며칠 비워야 했다. 선비는 혼자있을 아내가 걱정돼 말했다.

"내가 집을 며칠 비우는 동안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겠소?"

"제가 그리 걱정되신다면 힘이 센 사람에게 집을 돌봐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무뇌에게 집안일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출타하고 무뇌와 집에 단둘이 있을 생각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녀는 꽃단장을 하고 무뇌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래 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숨을 끊을지언정, 스승님의 아내를 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뇌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매우 화가 났다. 그녀는 남편이 출타했다 돌아올 때가 되자, 계략을 꾸몄다. 자신의 옷을 모두 찢고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냈다. 그리고 초췌한 얼굴로 방에 누워 있었다. 집에 돌아온 스승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 몰골이 이렇단 말이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 무뇌가 저를 겁탈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반항하자 저를 때리고 헤치려 했습니다."



삽화 · 강병호

스승은 몹시 화를 냈다. 얼마 후 스승은 무뇌를 불렀다.

"내 대신 집안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내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내 말을 따르면 너는 훗날 범천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 입니까 스승님."

"천명의 사람 머리를 베고, 그 사람들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면 범천왕이 내려와 너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찌 살생을 하고 하늘에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지금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나에게 배움을 구하지 말거라."

스승은 이렇게 말한 뒤, 몰래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무뇌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생겼다. 무뇌는 스승이 준 칼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간 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그는 999개의 손가락을 얻게 됐다.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뇌의 어머니 역시 소문을 듣고 무뇌를 걱정했다. 어머니는 무뇌를 타이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때 무뇌는 어머니를 발견하자 바로 달려들어 죽이려 했다.

"어머니만 죽이면 손가락 천 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부처님이 무뇌 앞에 나타나 말했다.

"너는 지금 삿된 가르침 탓에 끝없는 죄를 짓고 있구나. 지금 당장 칼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 말을 들은 무뇌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정신을 차렸다. 무뇌는 자신이 벌인 일에 깜짝 놀라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리곤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했다. 무뇌는 출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하지만 나라에는 이미 무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산부와 동물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때 한 코끼리가 숲 속에서 새끼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저 코끼리에게 가서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고 말하거라." "저는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너는 새로운 법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무뇌가 코끼리에게 다가가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고 말하자, 코끼리는 그 자리에서 새끼를 낳았다. 이후 나라에는 많은 아이와 짐승들이 태어났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 3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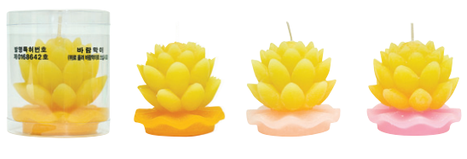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 34cm



육각초 7.0ø × 34



연화 大 9.5ø × 11cm, 연화 中 9ø × 10cm, 연화 小 7ø × 6.5cm



밀납연화 小 7ø × 6.5cm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대행 스님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게 오는 이치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덥든 춥든 간에 그것도 마음이겠죠. 하여튼 마음이란 그놈이 바로 부처라고 불리죠. 참 어떤 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요. 정히 덥다 싶으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또 정히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나무 밑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몸뚱이가 어찌 더움이 가셔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러시겠죠? 거짓말이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 모두가 마음으로써 빚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몸뚱이도 마음으로써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땀방울이 하나 나오면 둘 셋이 따라 나오죠. 그런데 둘 셋 나오는 땀방울을 하나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이 법이랍니다. 제일 첫째로, '이 모든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몸덩어리 하나의 개체에 내 불국토를 건설할 수가 있어야 바깥의 불국토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학술적인 것이라든가 팔만대장경에 관련한 법문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문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의 이름을 찾으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되풀이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면 나를 나오게 해 준 그 자체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따로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만 법의 부모를 육의 부모와 동시에 같이 믿는다,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비록 작고 소박하더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육의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법의 부모는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바로 자기 조상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 자체가 바로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박한 마음과 이 나의 조상, 즉 말하자면 주인공이 동시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같다 이거죠. 따로따로 떼어 놓고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깨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마음이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지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만 얘기하다가 말았죠.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렇게 해서 이 몸속에 다섯 가지가 주둔하면서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뚱이 속에 그냥 세계가 살고 있어요. 세계가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길은 한 길이지만 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거하고,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 보고 들어서 그냥 생각이 나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랍니다. 때로는 욕구불만도 나오고 때로는 욕망, 어떤 때는 욕심,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한번 굴려서 놓고 침착하게 대치를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을 말하는데 인과성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과를 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균성을 많이 맺어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다거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소굴에서 뱀들을 때려잡는다거나 이랬다면, 임신을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그게 그냥 착 와서, '내 자식들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좀 돼 봐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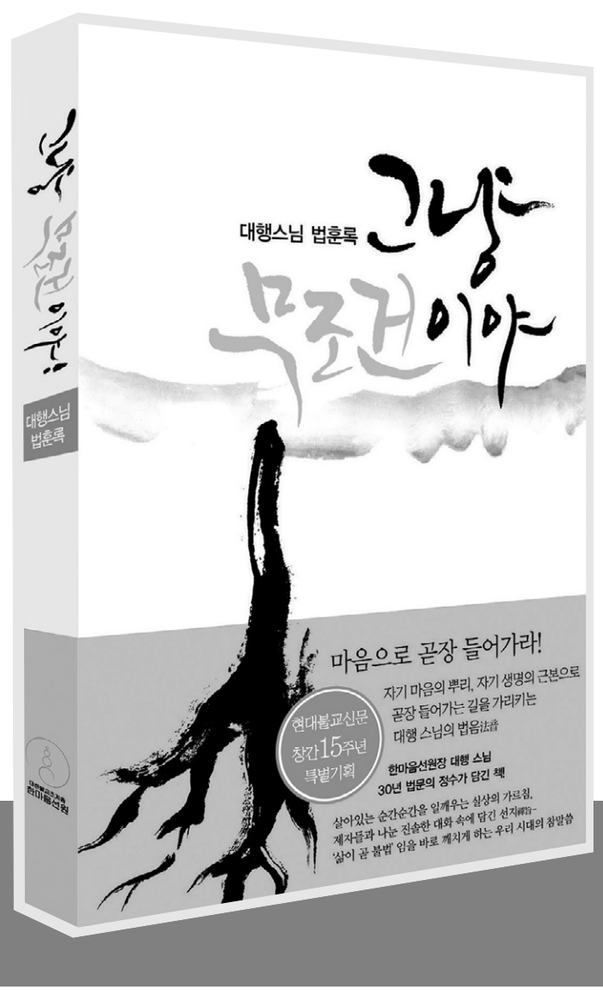
또 영계성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도 이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데다가, 나에게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도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삼천배 절하고, 모든 걸 바깥으로만 하니까요.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 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안에서 마구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마치 엄마와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애들에게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 하니까,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막 뛰어놀고 온통 집안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들 안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아, 이 집에 오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좋구나. 그러니까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런다면 정신 분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하나니까 주인도 하나여야 되는데, 딴 주인이 거기서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심부름하는 자기 시자를 자꾸 리드해 나가야 될 텐데, 주인이 또 하나 생겨 가지곤 몸을 자꾸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 가지 말라, 뭐 갖은 참견 다 하고 말입니다. 그 영계성이란 것이 이런 도리를 알아서 죽은 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죠. 사람을 이리로 가랬다, 저리로 가랬다, 먹지 말랬다, 나가지 말랬다 온통 야단법석을 하니까 이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심부름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신 분열이다 미쳤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안에서 주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인데 병원에 데리고 가본들 뭘 하며, 약을 먹여 봤던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물방울 두 개를 하나에다가 붙이면은 물방울 하나가 되지 둘이 되지 않는다. 오만(五萬)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해 놓으면 그냥 영이지, 오만 개의 영이 숫자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영 자체도 공했다고 했으니까 주인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분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인과성이다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인연에 따라서 그게 간단치만은 않은 겁니다. 많이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것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죠. 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종이 떨어진 거를 주워 보라고 하셔서 그걸 주우니까, "그 냄새가 어떻더냐?" 하고 물으셔서 "향 쌌던 종이입니다." 했습니다. 또 가다가 새끼오락지 떨어진 거를 주워 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비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건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면 한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라. 너희들도 살아나감에 있어 이 향을 쌌던 종이를 따르려느냐, 썩은 생선 묶었던 새끼오락지를 따라가려느냐?" 하셨던 거죠.

사람이라면 보고 듣고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썩은 새끼오락지를 따라간다면 그게 악종(惡種)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깡패 소굴에 들어가면은 벗어날 길이 없듯이. 또 향을 쌌던 종이, 향내 나는 향수라고 그러죠. '향수의 바다' 이러죠. 우리 몸에도 물이 있지만, 향수해(香水海)같이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것이 전체 향수라면, 향수를 따르는 향수라면 얼마나 그게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과라는 자체가 바로, 악종의 인연이냐 선종의 인연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악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인해서 속도 썩거니와 불구인도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데, 이 인과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테냐는 얘깁니다.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낳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그 모든 것을 속 안 썩이고, 그냥 수순하게 살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이 돼서,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그 종자니까.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인연을 자꾸 만든다면 아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과거는 내 몸뚱이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러는 겁니다. 내 몸뚱이 속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성에 대해서도 내 몸뚱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전성이라는 문제도 살생으로 인해서 많이 연결되니까 구분지삼은 살생이 원인이죠. 그러나 이 유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속병을 앓았다 이러면은 그것을 대치해서 자식이 또 속병을 앓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남을 애타게 꼭 그 값어치대로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부모가 치르고, 그 대가를 또 자식이 치르게 내려간다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개미가 개미를 낳지 딴 종자를 낳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딴 거 낳는 것을 못 봤어요. 돌연변이가 있다면 딴 거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내려오면서, 지금 백팔 염주에 염주알을 꿰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그 종자가 종자대로 그렇게 꿰여 있죠. 이 세상 이치도 우주 전체를 염주알 꿰 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염주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항상 하죠. 거기서 나온 거라면 거기서 대치를 해야지 어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구멍도 그 구멍, 드는 구멍도 그 구멍, 우리가 숨을 쉬었으면 숨을 쉰 그 자리에서 숨을 또 내쉬지, 딴 자리에서 숨이 나오는 겁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숨구멍이죠. 그렇듯이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도 딱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한 궁전 가운데 털구멍에, 털구멍 가운데서 보살을 낳고, 털구멍 가운데서 모든 세계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보성' 하면 오간지옥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차원이 낮고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천이 돼서 기어다니는 벌레로 땅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이에요. 무당들이 칼을 들고 바가지에서 죽 쑨 것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하하하…. "이걸 먹고 싹 물러나라." 하하하….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내 밥내도 못 맡게 지옥성에다 넣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인간이 돼야 국내 밥내를 맡지 어떻게 국내 밥내를 맡습니까, 땅속에서 사는 벌레가? 만약에 땅속으로 다니고 굴속에서 살고 그러는 살모사나 그 뭐, 뱀 종류라든가 벌레 종류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냥 국내 밥내도 못 맡죠. 그게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정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칼로 썰어도 썰어지지 않고, 하하하…, 아주 굳세고 아주 늠름하고 여여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부처라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속에 모두 주둔해 있는 거를 어디 가서 빌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좋다고 내가 항상 말하죠.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주둔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대로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업보성이라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인과성이 자체가 몽땅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을 내가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으니까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자손 대에도 그렇고, 다시 바뀌지는 거죠, 아주 그냥.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모든 일체 목신(木神)들, 즉 말하자면 식물들과도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통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면 그 모든 통신을 엮어 주는 멤버란 말입니다. 엮어서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둘 아니게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는 자체에도 큰 나무들의 목신들, 꽃신들, 뭐 신들이 천차만별로 있죠. 그래서 수풀을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나무를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관리인이 있고, 또 어디 도면 도, 시면 시, 이렇게 갈라서 다스리는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주림신(主林神)이라고 그러고, 주해신(主海神)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주(主) 자 빼놓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마음 빼놓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기필코 이것을 다 부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부순다 부순다 하고 안간힘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여하고 편안하게 나가는 거죠. 이 몸뚱이 하나가 그대로 꼬챙이에 꿰져 있는 것처럼 바로 선장에 꿰여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배와 같고요. 선장이 끌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놈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배를 탄 중생들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험한 파도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감과 같다,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선장이 잘 이끌고 가는 거를 믿지 못하고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에 있는 중생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하고 안에서 뛰면은 바깥에서도 뛰고, 바깥에서 뛰면 안에서도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이 배가 몸뚱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은 파도가 치든 말든, 배가 엎어지겠으면 엎어지고 말겠으면 말고, 딱 그냥 '어허, 내가 공(空)했는데, 배를 탄 거는 어딨으며 배를 안 탄 거는 어딨겠느냐? 파도친 거는 또 어딨겠느냐?' 이럴 때는 그냥 안에서 빙긋이 웃음이 날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배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사히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부도가 났네 뭐가 났네 하는 것도, 이 도리를 몰랐을 때에 부도가 나게 해 놓은 거를 어떡합니까? 수습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주인한테다 다 맡기고, 하늘이 무너져도, 회사가 다 그냥 날아간다 하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거지.' 하고, 거기다 딱 맡겨 놓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하고 가는 거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 것을 왜 불편하게 사십니까? 자식이 지금 저기 물에 빠져서 둥둥둥둥 떠내려간다, 부모가 둥둥둥둥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그 자식도 건지고 부모도 건지지,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같이 다 죽어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대요. "어머니가 고생고생 하며 사시다가 늙어도 고생을 면치 못하고 애를 쓰면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아도 그냥 그 어머니만 건지지, 그 어머니의 시자는 건지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이 떠내려간다 이럴 때는 아직도 좀 시자 노릇을 할 테니까, 그 몸뚱이가 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와서 건지게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는 것도 건지게 돼서 살게 되고, 깔려 죽을 것도 다 살게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음의 놀이가 아니라면 절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절대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임신을 해서 별성을 낳을 때에 수없이 낳고 수없이 들이고, 또 수없이 나도 중심의 근본이 아니라면 그렇게 들이고 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위성이 떴다고 하더군요. (대중 속에서 '무궁화호' 라고 대답함) 무궁화든지 뭐든지 말입니다. 허허허…. 그것이 뜰 때에 내가 말을 하길 이랬습니다. "허허, 이 마음공부들을 했으면, 들이고 내는 데에 저장처를,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 더 달았으면 아예 그냥 제대로 될 건데 모자라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위성이 지구 밖에서 돌아가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 한 거지, 딴 데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한 거지, 딴 데서 떨어져서 그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렸든지 내렸든지 간에 마음이 선장이죠.

(다음 호에 계속)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항상 하죠.
거기서 나온 거라면 거기서 대치를 해야지
어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구멍도 그 구멍, 드는 구멍도 그 구멍
우리가 숨을 쉬었으면 숨을 쉰 그 자리에서 숨을 또 내쉬지,
딴 자리에서 숨이 나오는 겁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한 숨구멍이죠.
그렇듯이 마음이 들고 나는 자리도 딱 하나입니다.

※위 법문은 95년 8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맹파명리 중국 단건업 선생 초청 특강

기존 명리의 단점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 건업 선생의 강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단건업 선생 강좌 및 상담 일정 –

일 시 :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강의시간 : 오전 10시~1시, 중식 : 1시~3시, 3시~6시 [하루 6시간 6일 강의]
강의수준 : 중급수준 [2012년 최신자료]
강의장소 : 신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강의비용 : 85만원 (7월2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강의교재 무료제공)
강의방법 : 동시통역강의 . 강의교재 : 한글번역제공
등록방법 : 사전등록제 (선착순등록마감) 농협 352-0447-8973-63 예금주:박형규
강의유의사항 : 녹음금지, 동영상 촬영금지, 내부자료 외부누출금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합니다]
주요강의내용 : 체용, 빈주, 주공, 적신포신, 허실의 응용, 상법의 응용, 합의 응용, 충의 응용, 부귀팔자 잡아내는 법
상담안내 : 8월 12일 ~ 17일중 단건업 선생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연 락 처 : 031)918-7550, 011-1743-0543
홈페이지 참고 : www.mangpa.co.kr

학산맹파명리연구원

NAVER 영일상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佛器)

아주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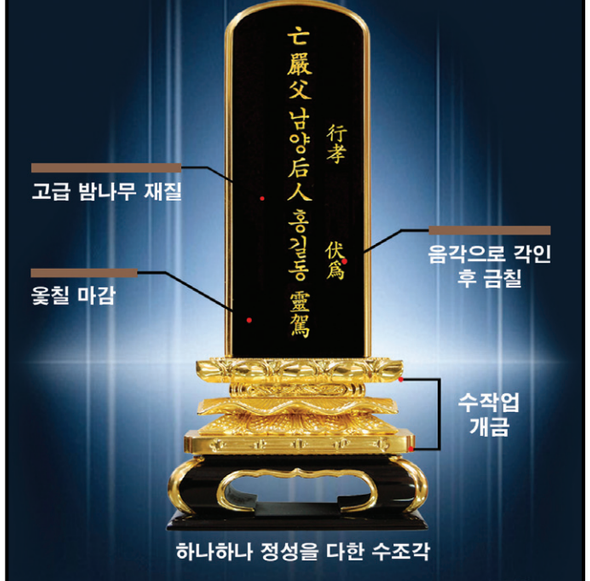
중량 525g, 유효기간 10년

※본 제품은 10년간 사용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顯考學生府君 神位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유*무선 겸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불자 세상보기

'주폭' 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흥미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색 다른 전쟁을 치루고 있다. 바로 '술' 과의 전쟁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아니면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와 폐해를 특집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겠다' 고 경고하고 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강릉경찰서는 경포해수욕장 등 동해안 해수욕장으로의 주류 반입을 단속하고 있기도 하다. 사법부에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서 취중상태를 양형감경사유로 고려했던 것에서 반대로 이를 가중처벌요인으로 삼아 주취로 인한 범죄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처럼 술과의 전쟁을 벌인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0년대 언론이 앞장서 음주문화를 개선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며 이 당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당시 경찰은 유원지에서 음주행위를 풍기문란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기도 했다.

90년대 들어서는 경찰과 관계 당국이 '범죄와의 전쟁' 을 벌이며 그 일환으로 심야 · 퇴폐 영업행위를 단속했다. 이 당시 술 소비량을 무려 21%, 유흥업 종사자의 수도 20만 명 이상까지 줄었다.

당시 상황은 1992년 10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신입사원 폭주 강요는 옛말', '밤늦게 2 · 3차 거의 사라져' 와 같은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음주문화 개선은 2~30년이 지나도 계속된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사회에서 음주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사회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기까지 하다. 술에 취해 저지른 중대범죄행위도 술로인한 실수로 치부되기도 한다. 형법에서는 주취를 일종의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조직을 등에 업고 일반시민에 해를 끼치는 폭력배들의 무력행사를 '조폭' 이라고 한다면, 술의 힘을 빌려 일반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주폭' 이다.

음주 문화 병폐 인식 부족
폭력 범죄 40%가 음주 관련
사회 질서위해 술 규제 필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폭력은 엄연히 중대범죄이며 술로 인한 '주폭'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폭력범죄의 약 4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경찰의 통계만 보아도 지나친 음주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단속은 필요하다. 대부분의 폭력범죄가 일종의 격정과 충동의 범죄이며 음주가 이런 감정을 유발, 촉진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주폭은 습관적이며 그래서 누범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 또한 주취자와 주취에 의한 각종 문제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집행과 처벌이 음주로 인한 폭력 억제와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규제와 처벌만으로 우리 사회의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뿌리깊은 문화를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술에 취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용인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바꿀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주류를 팔고, 사고, 마시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국 어디서나 너무나 쉽게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다.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슈퍼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주류판매를 밤 11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일요일이면 모든 곳에서 술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 주취자에 낭비되는 경찰력의 손실을 아껴 그 힘을 시민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더하기 위해서라도 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사부대중 칼럼

올림픽 대표 선수단 선전 기원



남전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태릉선수촌 전법단
지도법사

지구인들의 가장 큰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인 하계올림픽이 7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던 대회가 1948년 런던올림픽이라고 하니까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거기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이번 올림픽에 〈조계종 응원단〉으로 참가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예전에 보았던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라는 어떤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꾼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곤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표어 중에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 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글로 생각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정신적 자세와 도전의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 지금 바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최선을 다하는 도전정신과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며 올림픽을 준비해 왔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그 꿈의 무대에 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그동안 노력하고 인내했던 스스로의 능력을 경기장에서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올림픽은 여러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루며 자웅을 가리는 국력의 경쟁 마당인 것도 사실이다.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다. 그럼에도 부정과 반칙이 아닌 선의의 경쟁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는 건드릴 수 없는 전제가 있다.

정정당당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모습은, 올림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준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불자 선수들의 용기 있는 선전은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나아가 세계인들에게도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리라 믿는다.

불자선수들 뜨거운 감동 주길
올림픽, 인류 상생 위한 전환점
4년간의 노력 수행자 모습 닮아

한편에서는 우리 선수단의 목표가 10-10, 금메달 10개와 종합 10위 달성이라고 한다. 자칫 성적에 대한 목표와 국민들의 기대치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림픽의 좋은 결과는 당연히 국민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겠지만, 성적을 떠나 최선을 다한 것으로도 충분히 국민들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이 긴장감과 부담감을 떨치고 경기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4년을 주기로 지구촌 곳곳을 순회하며 열리는 올림픽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선사해 왔다.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인간과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전쟁과 기아,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올림픽은 인류가 평화와 상생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나 목표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정진해온 우리 선수들은 수행자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준비가 끝났다면, 어찌 결과를 걱정하겠는가? 선수들 모두, 용감하게 도전했으면 한다. 모쪼록 이번 런던올림픽이 갈등과 대립의 세상을 화합과 평화의 모습으로 바꾸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불자 선수들이 앞장서면 더욱 좋겠고.

社說

사찰 평생교육원 준비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의 시대다. 단순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가 아니라 자기 계발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어서다. 이렇게 수요가 늘다보니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7월 12일에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평생교육 시장이 종교계에 개방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개신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 강좌들이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도 상당수 축적된 상황이다.

반면 불교계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시설, 운영 전문가 등 기반이 전무하다. 동국대와 위덕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 불교사학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순수 사찰 평생교육원은 현재 조계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 있어서 후발 주자인 불교계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대사회와 기업에서 나날이 '멘탈 생산성' 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명상 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의 양성도 종단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미 중 ·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이어지는 10년의 교육 시장은 타종교가 선점했다. 25세이후 70세까지의 평생교육 시장마저 타종교에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사찰 평생교육원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학교폭력 근절 처방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사례로 첫 공식 인정됐다. 지난 3월부터 펼쳐온 구미 도리사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 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 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전서 우수사례로 뽑힌 곳은 학교 30개교, 일반단체 10곳이며 종교단체에선 유일하게 구미 도리사가 선정됐다. 도리사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다는 데 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심리치료, 명상, 108배 등 다양한 불교 수행법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단순 프로그램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참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변화시킨 것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주효했다.

이 같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은 당장 큰 효과를 보였다.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 는 현재 교육청과 각급 학교 연계 정기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인근 지역 학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템플스테이에 참가시키고 있다.

학교폭력 가담 학생 대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아' 라는 외부 낙인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지마저 꺾어 놓는다.

이런점에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 는 학생들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참 자아를 찾아내고 인내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며 치유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학교폭력예방의 큰 대안이 충분이 될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봉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주지일광
www.kidobal.com 051)442-6556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02)2603·1005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010-9334-3967
소원성취 인등기도 합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축
대광명사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달음산 정관암 017-571-0097
대한불교조계종 절 어린왕자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051-783-3037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명부전 건립 불사 동참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062-362-2091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 점등식 축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bssw.or.kr
법수선원 02)445-9911, 3411-1139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053)743-7070
부산포교원 오세암
051) 751-6103
www.oseam.or.kr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052-264-5810/011-9525-9843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오등선원
064-744-0808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 부처님 오신 날 축